



2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2호

(루게 352)



◆◆◆◆◆◆◆◆◆◆ 차 례 ◆◆◆◆◆◆◆◆◆◆

종자는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게 하는 기본담보	2
당중앙을 우러러	11
찬란히 빛나라, 당의 그 위업이여!	12
고마운 당의 해발아래	13
향도의 빛발	14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여	17
기다리던 어머니	18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동화적 환상	29
로쇠를 모르며 투쟁하는 사람이 주체형의 주인공이다	31
밤은 지새고 먼동이 트려는데...	33
쌩	34
화선입당	34
기쁨	35
충성이면 눈속에도...	36
가없는 바다를 남겨놓고	37
대자연의 정복자들	38
북창의 타빈소리	40
젊은 탄부가 일하러 오던 날	41
그대들의 밝은 미소로 하여	42
저 별들이 말해주고있구나	43
충성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	44
세전사	49
중대전투기록장을 펼치고	57
다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	59
전승의 밤, 철령을 넘어	60
영웅고지에 깃든 노래	61
충성의 한모습으로	64

종자는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게 하는 기본담보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빛나게 구현하여 인류문학예술창작과 문예리론발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함으로써 문예사상사에 찬연한 기여를 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서는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 어디 있으며 사람들에게 심오한 사상미학적감흥을 주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톤튼히 틀어쥐고 어느 고리를 풀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만능의 열쇠를 종자에서 찾고 그에 대한 이론을 창시하였으며 그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론, 전형론, 극적구성조직론, 형태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정연한 공산주의적창작리론체계를 확립하였다.

당에서는 종자라는것은 쉽게 말하여 작품의 기본핵을 가리켜 말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로 제기되는것이라고 가르치였다.

어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주며 생활의 본질을 감명깊게 인식시켜주는 힘있는 사상미학적가치를 가지고있는것이라면 그것은 그 작품에 그의 형상전반을 꽃피울수 있게 한 근원이 있기때문이다.

문학예술에서의 종자에 관한 이론은 이 근원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는 새롭게 발견된 문예학적범주이며 작품의 사상미학적깊이를 근본적으로 담보해주는 우수한 문예작품창작의 강력한 리론실천적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은 이때까지 객관현실과 문학예술의 호상관계에 대한 선행한 유물론적견해에 기초하여 그의 사실주의적진실성에 대하여 강조하여왔으며 그에 반영된 생활사실들의 진실성과 그의 사상미학적심오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제에 대하여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선행한 문예리론은 작품에 심오한 주제를 제기할수 있게 작품창작을 내부로부터 추동하고 그 사상주제를 풀어가는데 생명과 넋을 안겨주는 근원에 대해서는 더 깊은 탐구를 하지 못하였다.

문학예술작품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것이 있기때문에 창조되는 정신적인 창조물이다. 때문에 작가가 자신이 무엇인가 강렬하게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없이 작품을 쓴다는것은 그것이 벌써 사상미학적감흥을 불러일으킬만한 작품을 쓸수 없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감흥의 깊이를 론하면서 그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선행한 문예리론이

주제를 강조하게 된것은 바로 주제의 이와 같은 본질과 관련된다. 다시말하여 주제는 작가가 작품에서 무엇인가 말하고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성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작품내용의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일정한 문제성을 제시해주는 주제의 미학적요구를 잘 해결할것을 요구하며 그 주제가 미미하고 심각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분열되어서는 좋은 작품으로 되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에서 명확하고 일관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 해명에 모든 형상수단을 집중함으로써 주장하려는 사상을 뚜렷이 표현한다.

문학예술작품은 결국 그를 통하여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는것이며 작가자신의 일정한 견해를 표현하려는것이기때문에 문학예술작품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주제와 사상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바로 이렇게 하여 인류문예리론력사에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미학적심오성문제와 관련하여 소재, 주제, 사상 등의 문예학적범주들이 중요시되고 그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리론실천적해명에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다.

당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종자에 관한 리론은 바로 한 예술작품에서 작가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주장하고자하는 주제와 사상을 내부로부터 배태시키고 꽃피게 한 심오한 근원을 발견하고 해명한 빛나는 문예리론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사상주제는 바로 1920년대말~1930년대초 조선사회현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철학적인 파악 다시말하여 그 종자에 의하여 발현된것이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에는 바로 나라 없고 돈이 없어 온갖 천대와 멸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는 인민만이 체험할수 있는 눈물겨웁고 파란곡절많은 꽃분이 일가의 비극적운명이 소재로 되어있으며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시대상이 반영되면서 나라 잃은 인민과 억압받고 착취받는 근로대중의 출로는 그 어떤 랑심이나 지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근로하는 계급과 피압박민족의 원수를 증오하고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싸움에 일떠서는데 있다는 사상을 표현함으로써 오직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작품의 이와 같은 소재와 사상은 일제식민지통치 하에서의 우리 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 이 망국

노의 설음과 고통으로부터의 출로는 혁명의 길밖에 없다는 주제와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중심에 심어지고 이 작품의 주제와 모든 형식적요소들에 내부로부터 생명과 넋을 안겨준 본질적인 근원에 기초하여 흘러나온것이다.

《꽃분아, 우리가 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 너는 아직 다는 모를게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라가 없는탓이다. 원쑤 왜놈들과 배지주같은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굴기때문이다.

꽃분아,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이렇다,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사상주제를 배태시킨 본질적근원은 바로 철용이에게 주어진 이 의미심장한 말속에 암시되어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명작의 사상과 주제 그리고 그의 형상체계전반을 뿌리내리게 하였고 조건지어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조국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이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워 왔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나라 없는 설음과 고통은 참을래야 참을길 없는 엄혹한것이였다. 바로 이와 같은 절통한 민족적 및 계급적 감정에 기초하여 명작은 나라 없는 인민의 설음과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들의 고통 그리고 그로부터의 출로라는 종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 보는바와 같은 소재와 사상을 낳고 심오하고 독창적인 주제를 발현시키였다.

때문에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예술적형상의 꽃을 피울수 있는 기본요소들, 내용과 형식, 사상성과 예술성의 기본요소들을 자체내에 함유하고있는 모체이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대한 사상과 인간정서를 낳게 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종자를 바로 선택한데 기초하여 거기에 그가 요구하는 예술적세부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가면서 예술적가공, 형상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여 작가는 작품에서 종자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더욱 형상적으로 전개해감으로써 혁명의 진리와 생활의 가장 심오한 세계를 밝혀주는 주제와 사상을 표현한다.

이야기거리는 있는것 같은데 작가가 탐구한 사상적알맹이는 없이 그저 늘어놓기만하여 사람들의 심

금을 울리지 못하는 무난하고 기록주의적인 작품을 낳게 하는것은 모두 창작에서 이와 같은 종자를 똑똑히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온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종자가 다 있는것은 아니다.

인간중심사상을 철학적기초로 하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문학예술작품에 반영되는 생활현상들의 진실성에 대하여 중요시하며 그것을 하나의 문제제로 통일시켜 심오한 문제성을 제시하는 주체의 역할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그 바탕에 내부적으로 작가의 보다 심오한 철학적인 사색이 작용하고있다는 합법칙성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그 고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주제적심오성을 담보하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파악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적 지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로부터 출발하시여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 사상의식이며 그들의 모든 혁명투쟁은 자기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시였으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빛나는 해명을 주시였다.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고 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작품의 중심에 자주성을 지닌 인간의 존엄을 깊이있게 그릴것을 요구하였으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인간의 무진장한 힘이 그의 정신적위대성에 있으며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이 그의 자주적인 사상적적극성에 있다는 진리를 밝힐것을 제기하였다.

자주성을 지닌 인간의 힘과 존엄을 중심에 놓고 그의 정신적위대성을 깊이있게 반영한 혁명적문학예술 즉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창조과정은 문학예술창작에 전통적으로 작용하여오던 기본범주들의 기능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만족할수 없었다.

다시말하여 인류문예리론력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에서의 종자에 관한 리론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실천적

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작품이 더욱 심오한 인간정신의 산물로, 더욱 심각한 철학적사색이 깃든 것으로 될것을 요구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 요구에 의하여 나온 주체의 문예학적범주이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지니고있는 그 본성과 사명은 인류문예력사에서 오래동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여온 소재, 주제, 사상 등 기본범주만 가지고는 그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그것은 예술적형상의 내부에서 흔히 척추로 비겨온 주제나 또한 사상일반이 아니라 바로 심장에 비길수 있는 기본핵과 사상적알맹이를 정확히 절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와 같이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그러한 인간학, 작품의 중심에 사람일반이 아니라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존엄있는 인간을 내세울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새 인간학을 창조할것을 과업으로 내세운 주체시대의 심오한 사상미학적요구야말로 문학예술에서 종자라는 전혀 새로운 문학예술적범주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였으며 산생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당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예술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작품들에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종자가 심어져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종자를 발견함으로써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원작품들의 사상미학적의도의 심오성을 그대로 체현할수 있었다.

혁명가극 《피바다》가 그와 같은 심오한 사상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것은 당에서 이 원작에 당대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어떤 철학적사색이 깃들어있는가 하는것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그의 주제사상을 전개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철학적사색이야말로 혁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하며 한번 각오하면 누구나 다 혁명을 할수 있다는 이 작품의 종자를 낳은것이다. 이와 같은 종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본원리가 가르쳐주는 생활의 진리였으며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길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연극 《피바다》를 공연하던 당시의 사람들을 혁명의 길로 광범히 불러일으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였다.

작품의 주인공 순녀야말로 보통사람의 전형이며 그는 한번 각오하자 혁명을 훌륭하게 해나가는 농촌녀성이다. 그의 형상이야말로 혁명은 특별한 사

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하며 한번 각오하면 누구나 다 혁명을 훌륭히 해나갈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 평범한 사람들을 항일무장투쟁으로 광범히 불러일으킨 힘은 바로 이상과 같은 종자를 안고 태어난 사상주체의 철학적심오성에 기인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나의 심오한 사상주제를 표현해주고있는 문학예술작품이 생활의 본질에 대한 어떤 철학적사색에 기초하고 무슨 사상미학적의도에 의하여 창작되었는가를 창조적으로 탐색하게 한것은 사람들에게 물질세계와 인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근본관점을 안겨준 위대한 주체사상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것이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되게 한 빛나는 창조활동이다.

당에서는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고 하였다. 당에서는 또한 창작가들은 창작에서 종자를 똑똑히 쥐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작품의 주제와 소재에 관한 문제이며 사상적알맹이, 이것은 창작가가 찾아낸 종자라고 가르치였다.

종자를 작품의 핵으로 규정한 당의 독창적리론은 하나의 사물현상으로서의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달리하게 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문예리론이다.

문학예술은 사회적의식형태의 하나인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물체에서와 같은 핵이 있으리라는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 반영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사실들과 성격형상 등을 하나로 통일시킨 주제라든가 관통사상에 대하여만 지적하여왔다.

사람들은 결국 이때까지 하나의 문학예술작품전체를 기초적으로 결속시키고 바로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전체가 분해되지 않고 공고한 사물현상으로 존재하게 되며 꽃피게 되는 작품의 핵에 대하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물체의 핵발견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것과 같이 문학예술작품에서의 핵발견도 그의 창작실천상에서나 리론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종자를 작품의 핵으로 규정한 당의 독창적인 리론은 다른 사회의식형태와 구별되는 문학예술작품의 본성적특성에 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빛나는 리론이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작품은 다른 사회의식형태에서의 그것과는 대비할수 없이 강한 하나의 전일적인 유기체를 이루고있다.

선행한 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이 하나의 전일적인 유기체로 되어있다는것은 밝히였으나 거기에 핵이 있다는것은 밝히지 못하였다. 문학예술작품이 하나의 전일적인 유기체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핵의 존재를 밝히지 못한것은 사람의 인체구조의 통일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 생명의 발원체인 심장의 존재를 밝히지 못한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수 있다.

당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작품의 유기체에 핵이 있다는것을 발견한것은 문예리론력사에서 일대 혁명으로 된다.

식물에서 씨앗을 론하지 않고는 그것을 옳게 론할수 없는것과 같이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을 모르고서는 그우에 생겨난 소재, 주제, 사상 등 요인들을 바로 론할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의 발견과 그에 관한 학설은 바로 이와 같이 물체에서의 핵, 인체구조에서의 심장, 식물유기체에서의 씨앗의 발견에 비유할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방대한 과학학설에 비유할수 있다.

이와 같이 종자에 관한 당의 독창적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문학예술작품이 하나의 종자라는 핵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공고하고 전일적인 유기체로 된다는것을 밝히였으며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이 무엇에 기인하며 그의 거대한 사상미학적감흥이 무엇에서 오며 그의 높은 감화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천명할수 있게 한 빛나는 리론이다.

당에서 밝혀준 종자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리론에는 종자야말로 소재와 주제와 사상의 그 모든 요소들의 기본성분을 자체내에 가지고있는 작품의 기본바탕이며 그들을 하나의 핵으로 결합시키는 기본고리이며 결코 그 어느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는 대신할수 없는 기본모체로 된다는 사상이 천명되고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종자가 소재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은 종자속에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기때문이며 사상적알맹이-이것이 창작가가 찾아온 종자로 되는것은 종자가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자가 작품의 주제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은 종자속에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내포되어있기때문이며 종자가 소재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은 종자속에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내포되어있기때문이며 사상적알맹이, 이것이 창작가가 찾아온 종자로 되는것은 종자란 사상성 일반이 아니라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학은 문학예술에서의 종자란 혁명투

쟁과 인간사회생활에서 작가가 탐구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는것을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거쳐서만 로동계급으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바로 근본이 로동계급이라고 해도 꾸준한 자체수양을 해야만 자신을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로동계급화할수 없다는 사상적알맹이를 옳게 짐으로써 심오한 종자를 가진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당에서는 예술영화 《로동가정》의 창작초기 형상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지금도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설정은 잘되였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작품을 의의있게 만들수 없으며 중요한것은 근본이 로동계급이라 해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다는 사상적알맹이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작가가 찾아온 종자로서의 사상적알맹이가 작품의 사상성일반이 아니라는것을 명확히 해명해주었다.

모든 생물유기체가 자기의 종자를 가지고있으며 그 종자에서 생겨나듯이 문학예술작품도 이상과 같은 하나의 종자-핵으로부터 싹터 거기서 줄기가 뻗고 아지를 치고 아름다운 형상의 꽃을 피움으로써 주제를 산생시키며 사상을 낳는다.

당에서는 작가들이 영화문학을 잘 쓰려면 우선 좋은 종자를 쥐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성 없는 종자는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수 없다고 하였으며 똑똑한 종자를 쥐는것은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가르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구현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작품의 핵에 대한 비밀을 밝혀낸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관한 리론은 주체시대 혁명적문학예술 창조과정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밝혀준 빛나는 창작리론이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모든 창작의 근본조건을 밝혀준 공산주의 새 인간학창조의 강력한 무기이다.

종자의 발견은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발견한것으로서 그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이란 과연 어디에 자기 생명의 근원을 두고 태어나고 자라나는가 하는 과정이 비로소 똑똑히 밝혀지게 되었다.

인류문예력사는 이때까지 잘되고 못된 문학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그것을 줄기와 아지, 잎사귀와 꽃을 가지고 론하여왔을뿐 그 근원

으로 되는 종자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생물유기체와 같이 문예작품유기체의 좋은 꽃과 열매도 종자를 제외하고 논한다는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믿음성 없는 종자를 가지고 제아무리 그 가지와 꽃을 바로세우고 좋은 열매를 따려고 재간을 부려도 결국 그것은 로력의 낭비만을 가져올뿐 온전한 열매를 맺을수 없으며 좋은 수확을 기대할수 없다.

종자의 발견은 이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밝혀놓은것으로 하여 문예창작과 리론발전에서 비할바없이 큰 의의를 가진다.

당에서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로 제기되는것이며 종자를 바로잡아야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종자리론의 거대한 의의는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와 그의 해결방도를 마련해준데 있으며 문학예술작품의 질적특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을 밝혀준데 있다.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가 가지는 의의는 우선 그의 정확한 선택이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모든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에 귀결된다.

당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종자를 바로 선택한 다음에는 거기에 예술적세부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는데 모든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여 작품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가르치였다.

종자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으로 되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해주게 되는것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이 바로 종자의 옳은 장악과 그의 예술적가공에 의하여 달성되기때문이다.

당에서는 좋은 종자를 잡는것은 창작에서 첫 공정으로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종자를 옳게 선택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성을 옳게 보장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왜냐 하면 사상적

알맹이-이것은 창작가가 찾아낸 종자이며 종자, 그것은 생활속에서 찾아낸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기때문이다.

예술성이란 바로 이렇게 장악된 좋은 종자에 생활적세부를 부여하여 심화해가고 예술적으로 가공함으로써 형상의 꽃이 피게 한것이다. 때문에 종자를 옳게 잡고 그것을 옳게 가공해가면 그것은 반드시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종자선택과 그의 가공과정의 결합, 이것은 작품가치규정의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인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작품의 기본핵으로서의 종자는 바로 이렇게 형상의 꽃도 피게 하고 사상도 낱게 하기때문에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그만큼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관한 당의 독창적리론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자기 창작의 성과여부를 위하여 무엇보다 종자를 잘 잡는데 힘을 넣고 좋은 종자를 쥐기 위하여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 심오하고 폭넓은 예술적사색과 탐구를 하며 피타는 창작가적인 노력과 심중성을 기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가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는것은 거기에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좋은 종자가 심어져있기때문이며 예술영화 《목란꽃》이 그와 같이 사상예술성이 높고 품위있는 작품으로 된것은 거기에 혁명가는 절해고도에 홀로 남을지라도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좋은 종자가 심어져있기때문이다.

종자는 창작가들로 하여금 주제사상을 생활적으로 탐구하고 제기하게 하는 사상적알맹이며 창작의 첫 공정부터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시켜주는 고리를 목적의식적으로 찾게 하는 핵이며 모든 형상적요소들이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조직되도록 추동하는 기본고리로서 문학예술작품의 가치규정의 근본문제, 유일한 기준으로 되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결합을 튼튼히 담보해주는 힘있는 창작실천적무기이다.

당에서 독창적으로 창시한 문학예술에서의 종자에 관한 리론은 작가들에게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일수 있는 강력한 실천적무기를 안겨줌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하는 무기로 된다.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가 작품의 가치규정의 유일하게 옳은 기준인 그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해주는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되는것은 또한 종자가 작품의 사상미학적의도

를 정확히 전달해주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작품의 사상미학적인도란 창작가가 작품속에서 노린 문제성과 그에 대한 해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상미학적인도는 작품의 주제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중요한 성과는 주제가 뚜렷한데 있다고 하시였으며 혁명가극창작을 지도하시면서 예술작품은 자기가 이야기하고자하는 내용이 뚜렷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자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뚜렷해야만 작품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

작품에서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는 주제의 명백성과 사상의 정확한 전달은 종자를 똑바로 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작품의 밑바탕에 놓인 종자가 똑똑치 못할 때 그 주제사상성이 명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 주제사상이 종자에서부터 싹터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에서 그 주제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의 철학적심오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여왔으나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조건, 다시말하여 주제의 불명확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요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나라없이 왜놈의 종살이를 하면 개인의 행복도, 삶의 보람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는 자그마한 녀원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인공의 운명을 통하여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이와 같이 뚜렷한 사상미학적인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바로 이 작품에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으며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만이 가난한 사람들의 살길이라는 독창적이고도 절박한 종자가 심어졌기 때문이다.

종자가 부실한 식물이 그 줄기나 아지, 잎사귀와 꽃들을 곳곳하고 싱싱하게 키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종자가 없는 작품이 자기 창작의 의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주제사상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를 바로 가져야 창작가가 이야기하려는 사상미학적인도를 명확하고 깊이있게 전달할 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것은 종자가 바로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작품의 종자는 사상미학적인도를 뚜렷히 해줄뿐만 아니라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해주는 거대한 역할을 한다.

철학성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일반화의 심도를 의미한다.

작품의 철학성이란 창작가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의 사상적심오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작품에서 철학성은 필수적으로 구로 제기된다.

예술이 이러한 철학성을 띠게 될 때 그 작품은 사람들의 심중에 호소하는 힘이 커지며 생활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간학으로서의 참다운 교과서가 되게 한다.

작품에서 이와 같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철학성은 작품의 기본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작품의 기본핵은 인간생활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력적인 철학적사색과 탐구에 의한 산물이며 거기에 커다란 사회정치적의의를 부여하고있는 심오한 문제성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건만 꽃본이의 정성이 아직도 모자랐단말인가!

애오라지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라 간절한 희망과 녀원과 기대를 안고 가시발을 헤치며 츄렁바위를 뚫아 한송이 한송이 꺾어온 그 꽃들을 깔아놓으면 온 마을을 덮고도 남으려만 어머니는 그 한송이 꽃도 받지 않고 갔으니...

어머니가 딸의 심정을 몰라서란말인가?

야속하다, 야속하다. 야속한 이 사연이 무슨 까닭인지 원한은 쌓여도 풀길 없는 이 사연이 그 무슨 까닭인지 그 누가 대답해주랴!》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이 눈물겨운 설화 장면은 단순히 꽃본이의 비참한 운명을 부각하기 위한 생활의 세부가 아니며 여기에는 이 명작의 중심에 자리잡은 기본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철학성이 울려나오고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하지만 나라 없는 인민에게는 그 어떤 지성도, 그 어떤 효성도 망국노의 설음을 가져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살길은 오직 투쟁뿐이며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름아닌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생활의 위대한 진리를 밝힌 것이다.

작품의 철학성은 이와 같이 심오한 생활자체의 논리속에 있으며 그러한 철학성은 작품의 기본핵이 지니고있는 중요한 속성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심오하게 천명해주는 철학성을 보장하자면 철학의 본성적요인인 본질의 심오하고도 폭넓은 일반화를 걸쳐야 한다. 그런데 바로 작품에서 그와 같은 철학적사색과 일반화를 지닌 것은 종자이다. 생활의 의의를 심오

하게 일반화한 이런 종자는 창작의 철학성을 보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예술적사색을 계발시키며 많은 여운을 안겨준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철학성이 보장된다는것은 현실반영에서의 온갖 형식주의, 기록주의, 자연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게 하며 사실주의예술의 높은 경지를 보장하게 하는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생활을 피상적으로 반영하는 기록주의는 종자잡기로부터 시작되는 깊은 철학성을 가진 문학예술창작과 전혀 인연이 없다. 그것은 종자야말로 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에 립하는 태도와 작품을 창작하는 자세부터 심오한 생활적탐구와 사색을 하도록 추동하는 힘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자는 이야기거리의 있는것 같은데 작가가 탐구한 사상적알맹이는 없이 그저 늘어놓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 무뎡하고 평범한 문학예술작품에 치명적인 선고를 내린 위대한 문예리론이다.

생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파악이 없이 창작된 문학예술의 결함은 결국 그것이 종자 없이 썼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렇기때문에 이야기거리의 있는것 같은데 알맹이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때문에 종자에 관한 리론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내용이 빈약하고 사상성이 깊지 못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심각한 진리를 밝혀주지 못하는 온갖 기록주의적작품을 일소하게 하는 강력한 리론실천적 무기로 된다.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가 작품가치규정의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인 그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거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까닭은 또한 종자가 창작의 개성적특성을 살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당에서는 형상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은 종자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에서 우러나오는것만큼 창작에서는 언제나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였다.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에서 종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그의 개성적 특성을 살리게 하는 거대한 역할을 논다.

당에서는 작품에는 반드시 창작가가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놓은 종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아름답고 참신한 형상의 꽃이 피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종자를 옳게 친다는것은 벌써 작품의 개성적인 특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실현하고 류사성을 극복하는 전제를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종자는 문학예술에서 류사성과 도식주의를 일소하게 하는 강유력한 실천적무기이다.

그것은 심오한 철학적인 일반화를 거친 종자의 장악이란 그만큼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것이기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관한 당의 독창적리론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사상예술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함으로써 인류문학예술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적문예리론이다.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에서 종자가 가지는 다른 거대한 미학적의의는 그것이 문학예술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 작가의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초를 밝혀준다는데 있다.

이것은 동시에 창작에서 속도전의 전제를 옹계 마련해주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창작적열정이란 작가를 창작으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작품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에서는 종자는 작가의 창작을 추동하는 힘이며 예술적환상과 창조적열정의 원천이라고 가르치였으며 작가는 종자를 잘 골라잡아야 비로소 창작적열정에 불타게 되며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였다.

주체의 문예학은 작가의 창작을 가장 힘있게 추동하는 힘이 어디 있으며 창작적열정에 불타게 하는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종자에서 봄으로써 이에 대한 전혀 새로운 문예리론을 개척하였다.

선행문예리론은 작가로 하여금 바로 작품을 쓰지 않고는 못견디게 추동하는 힘을 주는것도 주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제는 종자와 같은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하고자하는 기본문제성이며 예술적파제가므로 여기에는 온갖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내포되어있지 못하기때문이다.

주제는 종자, 다시말하여 씨앗이 아니며 그 씨앗에 의하여 움터나온 줄기에 비길 그런것이다. 줄기나 아지, 잎사귀는 자체로 싹트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것은 씨앗에 의하여 땅속에 내린 뿌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라나게 된다.

자체로 싹트려는 성질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이 창작을 힘있게 추동하는 요인으로 될수는 없으며 그런 성질을 가지고있는것은 오직 종자이다. 때문에 종자만이 비로소 작가의 창작적열정을 본질적으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작가가 좋은 종자를 잘 골라잡게 되면 사람들에게 흠여넘치는 격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명작품을 기어이 쓰지 않고는 못견디게 추동하는 참된 원동력이 생기게 된다.

종자가 창작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그것

이 주제와는 달리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속에서 골라잡은 형상의 자료가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파악되어있는것이기때문이며 거기에 생활적으로 파악한 형상의 주되는 사상적알맹이가 쥐여져있는것이기때문이다.

당에서는 작가는 좋은 종자를 똑바로 골라친 다음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그러므로 주제를 장악하였다고 하는것은 종자라는 근원이 잡힌 다음에야 성립될 수 있다. 주제란 종자에 의하여 암시된 기본문제성을 창작과정을 통하여 천명해간것이다. 작가가 자기 작품에서 주제나 사상을 파악한다는것은 종자를 장악함으로써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작가는 창작에 앞서 자기 작품에서 리용할 생활재료들과 이야기거리들을 하나의 기본문제에로 결합시켜 어떠한 문제를 강조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수 있으며 이런 사색이 심화되면 일정하게 창작할 열정이 생길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자를 장악한 경우와는 비할바없이 약하고 불확고한 열정으로밖에 되지 못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주제에 비한 종자가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종자가 잡혔다는것은 창작과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었다는것을 말해주며 그것은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쓰도록 추동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에서는 작가들은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건딜수 없다는 그러한 불타는 정열과 충동에서 붓을 들어야 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글을 써야 진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 창작적진리를 밝혀주었다.

때문에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충동문제는 감동적인 예술작품창작의 필수조건이다.

당에서는 창작적열정이란 작가를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작품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서 창작적열정이 타오르면 못해낼것이란 없다고 가르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인류문예리론은 작품의 기본핵문제를 발견하지 못한탓으로 하여 옳은 해답을 줄수 없었다.

작가에게 있어서 종자를 골라잡았다는것은 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왜 그런 사상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 하는 절박한 근원을 비로소 알게 해주며 창작의 동기를 알게 한다.

때문에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잡은 조건하에서는 작품을 정력적으로 쓰지 않고는 못건디는 강한 충동에 휩싸이는것이 필연적이다.

경험은 작가들이 현실에 침투하여 종자를 골라잡

지 못하는 동안은 작품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열에 불타지 못하며 믿음성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서야 비로소 작품창작에 열정적으로 달라붙게 된다는것을 허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당에서는 작품의 종자를 바로잡는것, 이것은 속도전의 선결조건이며 그 성과를 좌우하는 확고한 담보이라고 가르치였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를 잡는것이 작가의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조건으로 된다는것은 바로 그것이 문학예술창작에서의 속도전의 전제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된 문학예술에서 종자는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수 있게 하는 거대한 미학적의의를 가진다.

종자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의 주제적인 창작원칙인 속도전의 전제를 마련해주는 위력한 무기이다.

당에서는 종자를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속도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속도전을 하여야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고 가르치였다.

종자를 쥐는것이 속도전의 전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창작의 기초공정을 완성하게 하기때문이며 자기 작품의 주제사상, 형상체계, 구성조직, 성격의 개성화 등을 예견하게 함으로써 자기 작품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기때문이다. 종자를 쥐는것이 속도전의 전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작가에게 자기 작품의 성과에 대한 확신과 희열을 안겨주기때문이며 작가의 창작적열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종자를 옳게 잡았다고 하여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자는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사상적알맹이기때문에 이것을 잘 잡는다는것은 작가로 하여금 신심을 가지고 창작에 달라붙을수 있게 하며 속도를 높일수 있게 한다.

당에서는 바로 공산주의 새 인간학창조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종자와 속도전의 호상관계를 천재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이 두 공간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예술의 창조과정을 현명하게 지도함으로써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 대문예부흥》의 빛나는 시대를 펼쳐놓았다.

당에서 독창적으로 발견한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관한 리론이 가지는 다른 중요한 의의는 그것이 문학예술창조과정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밝혀줌으로써 작품창작에서 의외의 우여곡절과 편향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며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문학예술사업을 정확히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었다는데 있다.

그것은 창작에서 종자를 똑바로 쥐는것이 가지는 결정적의의와 종자자체가 내포하고있는 본질적특

성과 관련된다.

당에서 독창적으로 창시한 종자리론은 문학예술 작품의 종자란 작가가 말하려는 심오하고 명백하고 의의있는 문제성이 있으며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온갖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있다.

그러므로 좋은 종자를 골라잡는다는것은 벌써 심오한 주제와 사상이 구체적형상의 옷을 입고 나타날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창작의 기본성과를 담보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의 창조과정은 혁명적문학예술창조과정의 합법칙성이 어떻게 종자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확히 풀릴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로 된다.

이 작품은 그의 창작가들이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려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선택해야 할 생활재료의 종류와 범위도, 구성조직과 형상작업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규정할수 없었다. 당의 지도밑에 로동계급의 근본에 대한 문제,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해도 계속 배우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한다는 심오한 문제를 종자로 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창작가들은 작품의 형상체계, 구성조직과 극발전의 길을 찾고 구체적인 형상작업에 착수할수 있었다.

바로 이렇게 하여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로동계급의 혁명화문제와 같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이 제기하고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의있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밝혀낼수 있었다.

보는바와 같이 종자는 예술적형상의 꽃을 피울수 있는 기본요소들을 자체내에 가지고있을뿐만 아니라 문학예술작품의 구성조직과 형상작업을 조건지어주어 생활적진실의 진지한 탐구와 인간성격의 전형화를 추동하는 창작과정의 합법칙적기초를 작가에게 쥐여주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건설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며 문학예술을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길로 령도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게 된다.

종자론에 의하여 문학예술창조과정의 합법칙적기초가 뚜렷이 밝혀진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도하는데서 혁신을 가져오게 한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당이 창작에서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종자라는 공간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형상적지도를 훌륭히 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사상예술성과 사회교양적기능을 목적의식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예술활동의 그 모

든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혁명적 문예사상을 밝혀주시였다.

당에서는 부르조아사회에서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는 반동적인 작가들과는 달리 우리 창작가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인간답게 살며 일하는 창작가들이라고 하였으며 작가들은 당에서 전투적과업을 받고 나가서 그 과업을 수행하는 초병이라고 가르치였다.

당에서는 종자가 가지는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종자를 쥐는것은 전군중적운동으로 토론에 붙인다음 그것을 당에서 비준받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이와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이때까지 어떤 문예리론에서도 제기되지 못하였다. 바로 로동계급의 당이 종자를 가지고 문예창작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할수 있는것은 종자가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고리이며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모든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을 가진 작품생명의 근원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지도에 의하여 작품창작에서 종자만 잘 골라쥐면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은 어떠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이 요구하는 옳은 방향으로 곧바로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종자와 작품의 기본선에 관한 문제, 종자와 력점에 관한 문제 등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되고 체계화된 종자학설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창조사업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할수 있도록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주체적문예학의 중요한 미학적범주로 발견된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관한 독창적문예학설은 창작에서 무궁무진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주체적창작리론이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창작의 담당자들인 작가, 예술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고도로 높이게 하며 그들을 사상미학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하는 정당한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문예리론이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창작에서 온갖 부르조아적 자유화와 기회주의리론을 격파하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할수 있게 하는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우리는 종자의 본질과 그 리론실천적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창작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현종호

당중앙을 우러러

끝없는 환희를 안고 기쁨을 안고
설레고 설레이는 인민의 마음처럼
동트는 새벽노을은 저리도 붉은가.
하늘가득
땅 가득
금빛노을이 피어오르는 2월의 아침,

조용히 문들이 열린다.
경사로운 4월을 맞는 그 새벽처럼
이 땅의 끝까지 꽃물결이 흐른다.
사철 흰눈이 녹지 않는 백두산마을에서도,
푸른 물결 구슬지는 동해가 어촌에서도,

문들이 열린다, 기쁨을 속삭이듯...
온 밤 손자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전설같은 이야기로 밤을 지새던
저 등대섬의 흰서리 내린 칠순로인들도,
눈내린 들길우에 첫자욱 찍으며
배낭메고 돌아온 젊은 당일군도
노을 피는 창가에 눈이슬 적시여라

아, 뜨거운 격랑을 안고 굽이쳐오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우에
높이 솟아 빛나는 우리의 당중앙,
한없이 맑고 깨끗한 축원의 마음들이
금빛노을로 물드는 당중앙창가,

금시,
이 땅의 밝은 해돋이가
저 창가에서 솟구쳐오르는가
끝없는 창조의 새 세계가
저 창가에서 노을로 피어오르는가
승업한 정적속에 영광의 새날이 밝아와라,

뜨거운 눈물에 젖어 우러르노라,
주체의 찬란한 해돋이로
공산주의 려명을 불리오며
조선의 장엄한 새날을 빛내여주고
조선혁명의 장엄한 행군길을 열어주는
당, 우리의 당중앙,

세기를 두고 바라던 인민의 숙원을 헤아려
주체사상화의 기치 창공높이 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조선을 고동치게 한 당,

영생을 바라는 인민의 가슴속에
김일성 동지의 전사로 빛나는
가장 고귀한 삶을 꽃피준 당중앙,

그처럼 남먼저 달려가고싶은
먼 미래의 락원을 오늘에 불러
세월이 남긴 파도높은 기슭을 지워버리며
콘베아의 흐름으로 새 땅을 펼쳐주고,
오는 세월의 년대기우에
그렇듯 빛나던 30년대를 다시 펼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의 그 정신으로 꽃피게 한 당중앙,

그 해발 언뜻 구름 나는 창공에 닿으면
아슬한 첩탑들이 허공에 들어차고
그 해발 대지에 미소처럼 뿌러지면
금나락 설레는 풍년벌이 춤추고
그 해발 서해바다가 처녀에게 닿으면
흘러가던 얼음장우에도 봄꽃을 피워주나니

아, 이 땅우에 흘러가는 시대와 년대들을
영웅들의 행렬로 빛내여주고
장엄한 3대혁명의 붉은 기발로
위훈의 기념비들을 안아올리며
력사의 큰 자욱 짙어가는 당중앙,

우러르노라, 감사에 젖어 우러르노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할 주체위업
당중앙이 있어, 당중앙이 있어
더 찬란할 래일을 그리며
받드는 한마음 꽃물결로 설레노라,
축원의 한마음 대하로 굽이치노라,

해방된 강산에, 환호넘친 강산에
백두의 태양을 우러러모시며
감격으로 울고 웃던 인민이
이 아침, 당중앙을 우러러
환희의 그 새벽처럼 설레이거니

아,
해돋이,
조선의 찬란한 공산주의 해돋이는
당중앙창가에서 밝아오고있어라.

리정술

찬란히 빛나라, 당의 그 위업이여!

오는 봄을 안고
행복한 꿈을 꾸는듯
해빛이 흐르는 하늘가
쌓아올린 다락밭 백리 물길을 열며,
눈이 녹는 먼 산기슭
움트는 과일나무숲을 어루만지며
당이여, 한없이 은혜로운 그 손길로
이 땅우에 새날을 가꿔가도다

전변하는 땅,
어디로 가나
희열에 넘친 삶과 투쟁의 열정이
물이 오른 청청한 숲처럼 설레고
창조의 거센 열풍이
구름발을 날리며
조국의 하늘가에 흐른다.

사람마다 영생의 길을 걷도록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키워주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당중앙
그 해발아래 주체의 봄빛은 넘치여
사람도 강산도 환희에 들끓어라.

파도만이 기슭을 치는 섬마을에서
등대불을 켜들고
초소를 지켜온 평범한 한생을
그토록 소중히 받들어주고 빛내여줄제
당중앙을 우러르는 인민의 가슴속엔
맑은 이슬이 피어흐르고

위대한 수령님 품속에서 보람찬 생을 보내고 간
한 설계기사를 못잊어
그토록 크나큰 사랑을 안겨줄제
당이여, 불노을이 타는 하늘가에
온 나라가 불덩이를 안고 일어섰어라

그 사랑에 젖어
그 믿음이 고마워
강산은 풀고
백발에도 진함을 모르는 열정이
이 땅우에 위훈의 탑을 세운다,

만풍의 금나락 훈풍에 일렁이고

철의 도시우에 자동화의 노래는 울리어라
바다멀리 파도를 멈춰세우며
뻗어가는 제방을 따라
조국의 새 땅이 해발을 안고 일어선다,

수백리 험한 산밭을 날아넘어
강철관을 따라 쏟아지는 정광폭포,
용접불꽃이 하늘을 덮는 철숲들,
자랑차다, 어디로 가나
가슴이 커지는 우뢰를 터치며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이 펼쳐지나니

위대하여라
사랑의 그 손길,
령도의 그 손길,
새날을 안고 휘날리는 3대혁명기치우에
하나의 의지, 하나의 숨결로 나아가는
천만의 대오우에
높이 솟아 빛발치여라.

아,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이 땅을 가꾸고
아버이 그 사랑으로
충성의 꽃을 가슴마다 피우며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가는 당중앙!

영광을 드리노라!
조선을 안고
세기우에
장엄한 주체시대를 새겨가는
당이여, 우리 당중앙이여,
세월을 앞지르는 예지의 그 손길
천만년 인류의 꿈이 비껴있던 먼 기슭을
조국땅 한복판에 안아올리도다

찬란히 빛나라, 당의 그 위업!
꺼질줄 모르는
저 강선의 붉은 노을이 비낀 하늘에
삶의 아름다운 미소가 넘쳐나는 땅우에,
조선에서 밝아오는
공산주의 해돋이를 안고 일어설 세계에!

변홍영

고마운 당의 해발아래

봄날의 밝은 해빛아래

온갖 꽃들이 피어나듯

내 이제는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리는 나이여도

고마운 당의 해발아래

한떨기 꽃으로, 청춘으로 피어났어라

꿈결에도 지니고싶던

김일성 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원증을

심장에 엮는 이 순간이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찬란한 해빛아래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는 이 기쁨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 안겨준

고마운 당을 우러르는 감사의 마음

그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뜨거운 눈물만 두볼을 적시고 또 적시고...

아, 저 하늘의 해빛에는 그늘이 있어도

광휘로운 당의 해발에는

한점의 그늘도 없어라

혁명의 길에서 땀땀이 얼굴을 못드는

한 지식인의 마음속 그늘마저

이처럼 티없이 가져주는 당의 그 사랑엔...

값진 재부를 쌓아놓고 살아야

이 땅에 행복한 삶을 둔 사람이라

어린 자식들의 천진한 웃음을 보며

마음속이 밝아지는 그런 순간에도

나에게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의 한가닥 불꽃마저

영생하는 삶으로 꽃피워준 당의 손길이어

아, 한생을 과학에 바치며

현미경속에서 발명의 불빛을 보던 그 기쁨도

이 순간의 이 행복에 이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세월이 주는 나이로만 백발을 맞으며

두번다시 청춘으로 태어날수 없었으리라

당이 준 이 사랑, 이 믿음이 있어

나는 누구보다 밝게 웃고

당이 준 이 사랑, 이 믿음이 있어

내 적어가는 탐구의 글발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꽃으로, 충성의 꽃송이로 붉게 피어라

아아,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배려

그것은 우리모두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그 해빛!

그 해빛 따라 승리하리라

빛나는 정치적생명의 영원한 품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가리라

태양의 빛을 받아 꺼지지 않는

충성의 별이 되어

충성의 별이 되어

허수산

향도의 빛발

지구가 생겨 수억만년, 인류가 땅위에 첫발을 내짚은 때로부터 100만년, 돌맹이와 몽둥이를 들고 폭풍 회오리치는 사나운 자연을 맞받아 싸우며 사람들이 한점의 불꽃을 발견한 때로부터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스리는 힘을 가슴에 안을수 있었다.

그 한점의 불꽃은 인류의 손에서 돌도끼를 쇠도끼로 바꿔주게 하면서 오늘의 과학과 문명으로 걸어올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의 손에 쥐고있는 그 불로써 사회의 물질적부는 창조할수 있었으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을 알수 없었던 탓에 피와 눈물의 역사를 걸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밝혀주는 사상-그것은 인류가 어둡고 황막한 세기의 준령들을 넘으며 목마르게 찾던 광명의 빛발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진정 사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찾아준 위대한 사상의 창시는 사람들이 수천년동안 모대기며 찾던 그 빛발의 발견이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였다.

혁명의 폭풍만리길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백전백승의 기치,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오늘 이 땅위에 더 세차게 휘날려가고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을 말할 때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것을 이 땅위에 실현해가는 과정인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도의 빛발이라 부른다.

온 누리를 밝히며 해빛처럼 비쳐가는 향도의 빛발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고 가꿔주며 천만의 대오를 하나의 길, 혁명의 길위에 세워주며 미래에로 이끌어주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에서 시작된 그 광휘로운 빛발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의 예지와 슬기, 하늘과 바다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에 대해

서 생각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력사상 처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이고도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위업 실현에로 전당, 전국, 전군을 불러일으켰다.

인류가 발견한 한점의 불꽃이 지구를 덮었듯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로 이 땅을 일색화하여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

우리앞에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땅을 구르며 전진하는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자연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꽃피워가는 조선,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그 사상을 꽃피우는 빛발이 되어 누리를 비쳐주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고마운 손길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숨결, 조선의 피줄은 하나의 의지, 하나의 뜻으로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것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인민대중은 그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간다.

주체형의 붉은 피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려는 그 충성심이 고이고 또 고인 티없이 순결한 붉은 피가 이 세상 처음 조선의 심장속에서 용용히 맥박치고있다.

해빛도 미치지 못하는 천길지하막장까지 밝혀주는 향도의 빛발을 가슴에 안고 검덕의 영웅광부들은 감격에 목이 메어 충성의 발파소리를 이 강산에 울리고 또 울리며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으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붉은 피를 가슴에 품이고있다.

빛을 받아야 꽃송이가 아름답게 피어날수 있듯이

향도의 빛발을 받아 주체형의 붉은 피가 사람들의 심장속에 젖줄기처럼 흘러들고있으며 새로운 혁명가들이 이 땅우에 태어나고있는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도록 심장속에 패기와 열정을 부어주는 그 순결한 피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흐르고있기때문에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가장 높은 생의 목표가 조선에서 빛나고있지 않는가.

검덕의 한 광부는 폭포처럼 광석이 쏟아져내리는 조구통이 메여 전투장에 난관이 닥쳐왔을 때 화구를 막는 영웅전사처럼 폭약을 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위를 맞받아 한치한치 뚫아올라갔으며 드디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이 하나의 신념, 이 하나의 투지가 그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었으며 불사신과 같은 그 모습은 주체형의 붉은 피를 자양분으로 하여 피어난것이다.

향도의 빛발이 비쳐가는곳이면 주체의 요구대로 산악도 바다도 길들여지고있으며 한알의 열매도 인민의 행복을 안고 달디단 즙을 익힌다.

바다를 가로질러 뻗어나간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와 수백리 산발과 계곡을 누비면서 이어진 무산-청진사이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의 위용...

쇠물폭포 쏟아지는 황철의 산업텔레비죤화와 원격조종실에서 반짝이는 자동화의 불빛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주체시대를 장식하여주고있는것인가.

수세기동안 내려오던 가곡의 붉은 틀을 마스고 창조된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피바다》식 혁명가곡의 노래소리가 20세기 문예부흥기의 화원을 활짝 꽃피우며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울려 퍼지고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언뜻 스치는 짧은 순간에도 벌써 몇세기를 주름잡는 거인의 발걸음으로 세계를 경탄시키며 조선은 나아간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속도전의 방침은 이 강산에 질풍노도를 불려일으킨다.

수천수만년동안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속에 살아오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력사의 길우에서 뒤떨어져있던 조선이 만일 자기의 전진을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왔다면 오늘의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 찬란한 문화는 멀리 앞에 있는 하나의 리상으로만 남아있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월을 주름잡아 달리는 천

리마의 고삐를 우리 인민의 손에 쥐여주시였으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속도전의 날개를 인민의 발걸음에 달아주었다.

향도의 빛발아래 타오른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70일전투》가 벌어졌다.

채취공업과 수송부문의 주공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긴데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고 진격전, 섬멸전의 포문을 열어 승리의 진군길을 다그친 결과 새로운 천리마 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었다.

그 기세, 그 기백으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만에 완수하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며 700만톤의 황금나귀리를 2년이나 앞당겨 이 땅우에 높이 쌓아놓았다.

반년사이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 락원거리가 솟아나 창문마다에서 빛나는 불빛들이 밤하늘에 성좌가 내려앉은듯 별천지를 이루고있는 이 땅...

가극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몇해가 걸린다던 기존관념을 깨뜨려부시며 조선에서는 1년남짓한 기간에 4대혁명가극이 창조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그대로 옮긴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창조해내는 과정에는 혁명적대고조의 상징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작속도》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속도전-그 번개치는 기상으로 흐르는 시간도 휘여잡아 사람들이 마음먹는대로 기적과 혁신을 력사우에 아로새기는 창조의 새시대가 이렇게 향도의 빛발아래 태어났다.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도, 청년화학종합공장의 은빛 철판들도 세월을 앞당겨 저 푸른 하늘에 일떠세우며 조선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고있다.

계속되는 혁명, 멈출수 없는 투쟁,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저 백두밀림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의 60돐 생일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일숨씨와 학습방법과 생활기풍이 우리의 사업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옮겨져 혁명의 노래소리 조국땅에 메아리친다.

배낭을 지고 당일군들은 농민들속에 들어가 밭두렁우에서 당정책을 그들에게 해설해주고있으며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들끓고있는 전

투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선동대들의 불같은 호소가 사람들의 피를 끓여주고있다.

향도의 빛발아래 이 땅의 모든 일꾼들이 수령님 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워 그의 요구대로 일해나간다.

그 빛발아래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백두밀립의 초연속을 헤쳐온 혁명선렬들처럼 불패의 대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은 수백수천만의 젊은 대오로 자라나고있다.

향도의 빛발-이는 사람들의 심장속에서 위대한 사상이 주체형의 피가 되어 뛰게 하는 우리 당의 손길이며 공산주의 그날에로 줄달음쳐가게 하는 크나큰 사랑이다.

이 땅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어린 눈동자마다에서 꺼질줄 모르는 저 삶의 빛은 어디에서 안고오는것인가.

겹쳐드는 죽음도 이겨내고 자기들의 고귀한 땀과 정성이 스며배인 사랑하는 대지를 다시 밟는 기쁨에 천만마디 아뢰고싶은 말을 뜨거운 눈물에 담아 두불을 적시고 또 적시는 사람들이 있다.

서해바다 사나운 파도우에 떠있는 자그마한 얼음장우에 몸을 싣고 한 처녀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당중앙의 청사에서는 온밤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처녀를 낳은 어머니도 딸을 찾다가 잠든 그 깊은 밤에도 한 생명의 불꽃을 지켜 향도의 빛발은 거친 파도와 폭풍을 뚫고 비쳐가고있었다.

처녀는 작은 얼음장우에서 꽃피는 대지로 살아왔다. 그 빛발을 따라서 죽지 않은 삶으로!

조국의 하늘에 꺼질줄 모르는 그 향도의 빛발을 우러러 감격에 목이 메고 또 메어 말 못하는 처녀와 함께 웃고 울며 환희에 넘쳐 설레이던 그날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조국으로부터 수륙만리 떨어진 대양의 한복판, 집채같은 파도가 선체를 들부실듯 때리는 그속에서 《혁신》호의 두 선원이 급병으로 위급하게 되어 그들의 생명을 두고 혁명동지들이 안타까이 가슴을 치고있을 때였다.

가슴을 조이고있던 그때 머나먼 조국으로부터 전파가 날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전사,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혁명동지의 심장을 한초한초 더 세차게 높뛰게 하여주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덕을 싣고 지구우를 날아온 사랑의 그 전파!

가장 가까운 기슭으로, 가장 가까운 기슭으로-

혁명동지를 구원할수 있는 땅이라면 조국의 대지처럼 펼쳐주며 부르고 이끌어주던 그 전파!

변경시킬수 없는 배의 항로마저 돌려 마드라스항으로 향하게 한 그 위대한 사랑의 힘!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들의 생명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이 가닿는 곳이면 낮선 땅도 낮선 거리도 어머니의 품처럼 봄빛에 싸인다.

마드라스의 거리를 구급차들이 달리고 뉴델리에서 날아오른 비행기의 거세찬 동음소리는 두 선원의 심장의 맥박소리와 시간을 맞추고있었다.

당중앙에서 시작되는 그 시간과 한초도 어김없이...

그 사랑, 그 위대한 힘에 받들려 아득히 머나먼 대륙의 한끝에서 《혁신》호의 두 선원은 자기 고향집에서처럼 일어나 다시 땅을 밟았거니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랑에 선원들도 목이 메고 외국의 담당의사들도 가슴이 불처럼 달아올라 해쫓는 동쪽, 머나먼 조선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섰을 때 광휘로운 빛발이 그곳으로부터 찬란히 비쳐오고있었다.

아, 향도의 빛발!

자기의 손에 불을 쥐고있으면서도 어둡고 황막한 세기의 준령들을 넘으며 것처럼 모대기며 찾던 그 빛발이 조선에서 해빛처럼 비쳐오고있었다.

그 빛발은 위대한 사상을 사람들이 사는 땅우에 꽃피워주었으며 이 세상을 주체형의 새 모습으로 키우고 가꾸는 사랑이었다.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짓부셔버리며 자연도 사회도 인간들의 정신적면모도 주체의 요구대로 완성시켜주는 그 빛발!

주체의 해발이 되어 누리를 밝혀주는 향도의 빛발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은 찬란한 공산주의 해돋이를 오늘에 본다.

그 빛발은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

조선의 미래

그 빛발 따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빛발 따라 우리는 영생하리라

홍현양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여

꿈결에도 그리워 오고만싶었던

회령땅, 회령땅

정들은 고향처럼 찾으니

뜨거웁게 한품에 안아주시는

김정숙어머니의 인자하신 영상이여

여덟살 더벅머리 내 어린시절

단하나 어머니마저 잃고

구결의 대문을 두드리며 헤매던

그 슬픔, 그 원한을 가져주시는가

고향집 트랙에서처럼

어머님께서 서계시누나

밝으신 미소를 환히 담으시고

어머니의 영상 높이 우러르니

생각는 마음 목이 메인다

서러웠던 지난날이 가슴에 사무쳐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고마워서

봄이면 백살구꽃 만발한 기슭

저 풀잔디언덕우에 설음많은 어린시절을 남겨두시고

어머님께선 벌써

백두의 품을 찾아 떠나가셨나니

아,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그늘지고 설음 많던 이 땅에

60돛 생일의 새 봄빛을 뿌려주시며

김정숙어머님께선 헤쳐가시였어라

장군님을 목숨으로 받드시며

자옥자옥 걸어오신 눈보라 만리...

세상 가장 아름다운 충성을 바쳐오신

어머니의 그 빛나는 삶의 높이를

내 어이 다 따를수 있으랴

내 바쳐온 충성의 열도를 갑절로 더한다해도

어머님께서 걸으신 충성의 그 한길을

대를 이어 영원히 걷는다 해도

충성의 발걸음을 떼여주는

고향땅에 찾아와

어머니 품에 안기니

기뻐서 운다, 그리워서 운다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살라고

간고한 혁명의 한길을 남먼저 걸어가신

아아, 김정숙어머니이시여

두만강 물소리 정답게 노래하는

회령땅-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서

얼어든 강산에 봄빛을 뿌리시며

이땅에 봄과 함께 오시였어도

어머님께서는 오늘도 걸어가고계시여라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태양의 해발로 빛나시여라

최국산

기다리던 어머니

1

군소재지로 가는 우불구불한 신작로는 무성한 잡관목수림속으로 사라져갔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신듯 아무 말없이 걸으시었다.

그 한발자국 뒤에서 박봉녀가 따랐다. 땀을 흘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본 그는 아침에 군에서 떠날 때 어머님께서 차를 꼭 타시도록 우기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였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면에 내려가시여 그곳 녀성들을 만나 녀맹사업실정을 료해하시고 군소재지로 돌아가시는길이다. 오늘아침 어머님께서는 군일군들이 차를 마련해드렸으나 끝내 사양하시고 20리길을 걸으셨던것이다. 그래도 오전에 면으로 내려갈 때에는 숲속에서 선선한 공기가 흘러나와 괜찮았는데 지금은 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피약벌이 뜨겁게 내려찍고 풀냄새가 배인 지열을 확확 풍겨주어서 여간 덥지 않았다. 군소재지까지 가려면 아직 10리길은 종이 걸어야 하였다.

박봉녀는 좀 쉬어가실것을 권하였으나 어머님께서는 상냥하게 웃으시며 좀더 가다가 물 좋고 그늘 좋은 나무밑에서 땀을 들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한참동안이나 말없이 생각에 잠겨 걸으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서쪽을 가리우던 산릉선이 끝나고 앞이 탁 트인곳에 이르시여서야 박봉녀의 소원을 풀어주시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요.》

하시고는 길가의 풀숲을 헤치시며 언덕으로 오르시는것이였다.

박봉녀는 어머님께서 물 좋고 그늘좋은곳에서 쉬자고 하시더니 하필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이런 자리를 택하셨을가 하고 생각하며 어머님쪽을 쳐다보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언덕에 뿌리박은 바위우에 오르시여 오른손으로 채양처럼 해빛을 가리시고 멀리 바라보고계시었다.

신작로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합수동은 큰범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을 한 범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작은 마을이였다.

박봉녀는 어머니의 심중을 알수 없었으나 마을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안광에서 레사롭지 않게 마음을 쓰신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이때 읍쪽에서 빈 지계를 진 어린 소년이 타박타박 걸어오고있었다. 배잠뱅이에 짚신을 신은 그 소년은 이쪽을 조심스러운 눈길로 살피더니 재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버렸다.

언덕아래로 지나가는 소년을 눈여겨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 급히 바위에서 내려오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저 지계 진 소년을 좀 만나봐야 하겠어요.》

그러자 박봉녀는 벌써 멀리 지나간 그 소년을 소리쳐불렀다. 소년은 피땀 돌아보고나서 더 재빠른 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박봉녀는 다시 소리쳐부르며 달려갔다. 그제서야 소년은 걸음을 멈추고 박봉녀를 기다리고 서있었다.

《왜 그러시나요?》

박봉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은 당돌한 태도로 물었다. 박봉녀를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불안의 감정이 내뿜어있었다. 박봉녀는 당돌하고 귀염성스러운 소년의 태도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소년은 다정스러운 박봉녀의 얼굴과 옷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아주머니 이름은 뭐나요?》

박봉녀는 소년의 오돌차고 엉뚱한 질문에 호호 웃으며 고운 눈을 흘기였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묻는것은 버릇없는 짓이란다.》

그러자 소년은 무안한듯 외면하더니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박봉녀는 소년이 너무 상심해하는것 같아서 이름을 대주었다.

《내 이름은 박봉녀라고 한단다. 그건 왜 묻니?》

하고 소년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자 소년은 대담

대신 시들해진 표정으로 다시 박봉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통명스레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에 진 지계를 좌우로 흔들면서 달아빠는 것이었다. 박봉녀가 다시 소리쳐불렀으나 소년은 들은척도 안했다. 야속한 심정으로 소년을 지켜보고있던 박봉녀는 뒤늦게 곁에 다가오신 김정숙어머님께 말씀드리었다.

《참 이상한 소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소년의 행동에 대한 박봉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멀어져가는 소년을 오래도록 지켜보시는 것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군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몇 번이나 합수동마을을 되돌아보실뿐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박봉녀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주 쳐다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박봉녀가 영문을 몰라 궁금해한다는 것을 아셨던지 군 소재지에 거의 들어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합수동마을을 처음보았지만 낮익은 고장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허두를 떼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유격대에서 함께 싸우던 한 녀성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합수동에서 살며 지하공작을 하던 남편이 적들에게 희생되자 오금실은 갓난애기를 업고 두만강을 건너 유격근거지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해 겨울 왜놈들의 《토벌》이 있는 어느날이었다. 오금실이라도 근거지녀성들과 함께 뒤산으로 올랐다. 놈들의 총소리가 귀전을 치는데 애기는 추위에 못이겨 기를 쓰며 울어댔다. 젖을 물려도 소용없었다. 놈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닥친 순간 오금실은 젖물린 애기를 꼭 껴안았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났을 때는 이미 아이는 질식되어버린 것 같았다. 오금실은 아무 감각없이 늘어진 애기를 안은채 낡은 사람처럼 멍청해있었다. 이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품에서 애기를 빼앗아 안으시고 혼드시었다.

《남철아! 남철아!》

그 애절한 부름소리에도 애기는 감감 숨죽이고있을 뿐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 위험이 가시지

않은 불타는 마을로 애기를 품에 안고 무작정 내려뛰시었다. 녀인들은 감동어린 눈으로 뽀얗게 눈가루를 일으키며 내리달리시는 김정숙동지를 지켜보고있었다.

오금실이 허둥지둥 눈우에 자빠지며 뒤따라 내려갔을 때는 따뜻한 온돌에 눕힌 남철이의 얼굴에 피기가 돌기 시작한 뒤였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업상 다른곳으로 떠나셨기때문에 오금실의 소식을 모르고계시었다.

준엄한 시련의 해들이 뒤바뀌던 어느해 가을 새로운 작전을 앞두신 사령관동지께서 재봉대원들에게 시급히 부대의 겨울군복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과업이 아름답겠이니 재봉대원 한명을 더 보충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다음날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전투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봉대원들과 함께 작업준비를 한창 다그치고있을 때 부채살같이 주름퍼진 군복치마자락을 날리며 재봉기를 지고 밀영에 나타난것은 다름아닌 오금실이었다.

그러나 이 감격적인 상봉이 후일 김정숙동지의 가슴아픈 추억으로 남게 될줄 어찌 알았으랴.

군복짓기가 마지막고비에 이른 어느날 불시에 적 《토벌대》가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 군복통구리들을 필사적으로 다 옮기기는 하였으나 그 마지막 대렬이 놈들에게 꼬리잡히게 되었다. 커다란 위험을 감축한 오금실은 놈들을 유인하여 외판 골짜기로 끌고감으로써 위기를 면할수 있게 했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 재봉대원들과 함께 그 골짜기로 달려가시였으나 오금실은 이미 적탄에 쓰러져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와락 가슴에 그리안으시었다. 간신히 눈을 뜬 오금실은 가까스로 군복이 무사한가고 물었고 그다음 《남철이를...》 하다가 눈동자가 허공에 멎어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애타게 흔들며 목놓아 부르시였으나 오금실은 끝내 대답이 없었다...

《참 오금실동무는 훌륭한 혁명가였어요. 일본놈들때문에 아들을 잃을번한후에 모진 마음먹고 남철이를 유격근거지의 린근마을에 사는 인정깊은 할머니에게 맡기고 유격대에 입대한 동무였지요.

오금실동무는 한동안 우리와 함께 군복을 지으면 서 지하공작원이었던 남편이 범산에서 추격하는 적과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치던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합수동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도 자주 자랑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조국이 해방되면 남철이를 데리고 합수동에 돌아가서 살겠노라고 외웠는데 그만...》

김정숙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박봉녀는 함께 싸우다 희생된 혁명전우에 대한 가슴아픈 생각에 잠기신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남철이의 고향이 합수동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박봉녀는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께서 남철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던가. 얼마 전에는 오금실이 남철이를 맡겨두었다는 동북지방으로 사람까지 보내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남철이의 고향이 여기 합수동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어머님께서 박봉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남철이가 똑똑한 아이라면 혹시 제 고향마을인 저 합수동에 찾아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봉녀는 대답할수 없었다. 남철이를 찾으려고 사처에 사람도 많이 띄웠고 있을만한 곳을 다 수소문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그 소년이 이 산골에 와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동북지방에 갔다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철이가 열살되던 해에 그 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것, 그후 이웃마을 지주놈이 남철이를 끌어슴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지주아들놈과 싸우고 어데론가 도망쳤다는것만 알뿐이다. 그런데 자기 고향도 모르고 그를 데려올만한 사람도 없는 그 소년이 과연 어떻게 이 외진 고장을 찾아올수 있을것인가.

박봉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것이였다.

《아까 그 소년을 보았을 때 그러려니해서 그런지 꼭 오금실동무의 모습을 닮은것만 같았어요.》

박봉녀는 이제서야 김정숙어머님께서 왜 그 소년을 만나보시려고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소년

을 놓쳐버린 자신의 잘못이 뼈아프게 느껴졌다. 어머님께서 가시는곳마다 혈벗은 아이들만 보시면 의지가지없이 헤매는 희생된 투사들의 자녀들이 아닐가 하는 아픈 마음에서 관심하시곤하셨기에 오늘도 어린 나이에 큰 지계를 지고가는 소년을 보시고 어느 투사의 아들이나 아닌가 해서 그러시는줄로만 여겼던것이다.

2

박봉녀는 레사로워보이는 사업과 생활에서 매번 어머님의 웅심깊은 뜻을 새록새록 느끼면서도 오늘도 어머님의 뜻을 옹게 받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확 달았다.

그래서 그는 군에 도착하자 자신의 잘못을 느끼면서 회지도에 들어가시는 김정숙어머님께 합수동마을에 다녀올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오늘은 힘들터인데 쉬었다가 래일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나 박봉녀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박봉녀의 절박한 심정을 리해하신 어머님께서는 반겨웃으시며 기꺼이 승낙하시였다.

박봉녀는 치마바람이 일도록 종종걸음을 놓았다. 신작로에서 벗어나 산골 달구지길에 따라 합수동쪽으로 걷는 박봉녀의 마음속에 가벼운 흥분이 피여오르기 시작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기어이 찾으시려고 애쓰시는 그 소년, 그러나 수많은 유자녀들을 학원으로 다 데려온 오늘까지도 나타나지 않던 그 소년이 과연 여기 한적한 촌구석에 있을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직 그 누구도 추리해보지 못한 생각, 비록 젖먹이때 고향을 떠나 고향에 대한 살뜰한 표상을 못가진 남철이지만 어머니를 찾고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고향에 찾아왔을수 있다는 심리까지 추리하신 어머님의 생각대로 이 마을에 남철소년이 꼭 있을것만 같은 믿음도 생기는것이였다.

누구에게든 빨리 물어보고싶은 생각이 앞선 박봉녀는 마을에 들어서자 첫집에 들러 물어보았다. 그 집 녀인은 박남철이라는 아이는 있는데 최남철이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맨 구석진 안쪽에 있는 초가집을 가리키며 그 집에 작년에 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애 이름이 무슨 남철이라는것 같더라고 했

다.

박봉녀는 그 녀인이 가리켜준 집을 향해 가면서 그 집에 있는 애가 김정숙어머님께서 찾으시는 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애도 어머님께서 찾으시는 아이가 아니라면 어찌겠는가? 어머님께서 섭섭해하실 생각을 하니 온 세상에 대고 남철이를 소리쳐 부르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어머님의 그 깊고 뜨거운 정도 모르고 남철소년은 지금 이 세상 그 어디에 숨어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착잡한 흥분에 골똘한 박봉녀는 가쁜 숨을 호-몰아쉬고 땀호박이 무겁게 주렁주렁 매달려 고삭은 수수질울타리가 썰그러져 가는 초가집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주인 계십니까?》

삽작문안으로 들어서자 열려진 부엌문에서 허리가 굽은 늙은 할머니가 나왔다. 할머니는 저녁준비를 하던참이었던지 젖은 손을 베치마에 감싸拭으며 낮은 녀인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어데서 누굴 찾아오는 손님이신지...?》

《할머니, 말씀 좀 문자고 들어왔어요. 혹시 이 집에 있는 총각애가 최남철이 아닌가해서 찾아왔습니
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못 긴장한 얼굴로 약간 채머리까지 흔들며 반색해 말하는것이였다.

《아니, 우리 남철이를 찾아오셨단말이유?》

《그래요. 최남철이를 찾아왔습니다. 동북에서 나온...》

박봉녀의 탄성에 할머니도 기쁨에 들떴다.

《옳거니, 면바로 찾아오셨수. 애 남철아-!》

그러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시나요?》

하는 애된 목소리와 함께 맨발로 토방에 불쑥 나선것은 바로 길가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였다. 령리한 눈으로 바라보던 남철소년은 박봉녀를 알아본 순간 자라목 움츠러들듯 다시 쑥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다.

(참 이상한 애로구나.)

무턱대고 이름부터 묻는 소년에게 버릇없는 짓이라고 한 말을 그토록 노엽게 생각한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자기를 경계하는 소년의 행동은 그 정도 이상이어서 아무래도 이상스럽게만 느껴졌다.

《할머니 손자인가요?》

박봉녀는 궁금한것부터 물었다.

《아니라우. 의지가지 없는 앤데 불쌍해서 데리구 있수다. 저 애 아버지는 왜놈들한테 죽은지 오래구 지금 제 에미를 찾겠다구 이역땅에서 예까지 고향이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수.》

박봉녀는 남철이가 김정숙어머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소년이 틀림없다는 예감이 들자 토방에 올라서 문을 열었다.

《남철아!》

소년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길로 박봉녀를 살피는 것이였다.

방바닥에는 산수학습장이 펼쳐져있었고 그우에는 연필꽂다리가 놓여져있었다.

방바닥에 놓인 학습장에 눈길을 떨군 소년의 자세에는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었다.

《애야. 너의 어머니 이름을 아느냐?》

소년은 눈에 의혹의 빛을 띠우고 잠시 박봉녀를 쳐다보다가 간절한 기대가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금실.》

박봉녀는 순간 소년의 어깨를 와락 그러안으며 탄성을 질렀다.

《네가 그렇게 찾던 남철이었구나!》

어리둥절해서 박봉녀를 쳐다보는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남철아, 너를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계신다. 어서 나하고 같이 가자.》

박봉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던 소년은 간절하게 물었다.

《나를 찾는 분이 누구시나요?》

《가면 알지, 너의 어머니랑 산에서 함께 싸우시던 분이시다.》

《정말이나요?》

소년은 부르짖듯 묻고는 문지방을 짚고 방안을 지켜보고 서있는 할머니에게 얼굴을 돌렸다.

《할머니, 나 가볼래요!》

주름많은 할머니의 얼굴에도 기쁨이 뒤설레고있

었다.

《오냐!》

소년은 방바닥에 있는 학습장과 연필을 재빨리 거두더니 박봉녀에게

《나 좀 나갔다고겠어요.》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봉녀는 할머니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남철소년을 찾아온 사연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남철이 어머니의 소식을 알게 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박봉녀에게 근심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 일을 어찌노. 저 애가 그런줄은 모르고 제 열 얼마나 기다리고있는지 모르다우.》

할머니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제서야 박봉녀는 기쁨과 희망에 들뜨던 소년의 진속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밖에 나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프락에 나가 찾아보았으나 소년은 없었다.

박봉녀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소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프락에서 서성거리는데 범산교승이어서 소년의 켑켑한 목소리가 산울림타고 들려왔다.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밝은 목소리는 박봉녀의 불안을 가해주었다. 그러나 수림이 무성하여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이윽도록 그쪽을 올려다보고 서있는데 소년은 어느새 내려왔는지 짜리다래끼를 무겁게 들고 집뒤울안에 서 나타나는데였다.

《산에는 왜 올라갔었니?》

박봉녀가 반갑게 맞아주자 소년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손에 든 다래끼를 내보이는것이였다.

《잡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박봉녀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다래끼우에 가리워진 떡갈나무잎을 들쳐보았다. 그 안에는 다치면 단물이 툭 터질듯 새노랑게 무르익은 산복숭아가 가득 들어있었다.

《이렇게 잘 익은 산복숭아가 어데 있더냐?》

박봉녀는 기특해하는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소년도 장해서 벌쭉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따드리려고 남몰래 익혀 두었던거예요.》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한개 집어보려던 박봉녀의 손은 순간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소년의 그 말이 박봉녀의 뇌리를 찔고 소년의 간절한 심정이 그의 가슴을 얼어들게 했던것이다.

《왜 그러세요. 잡쉴보세요. 꿀맛이에요. 이래봐두 이 범산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예요.》

천진한 소년은 복숭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줄 알았던지 못내 섭섭해하는것이였다.

《남철아, 네 성의가 하도 고마워서 그런다. 이 복숭아는 가지고가서 먹자.》

박봉녀는 소년이 내민 복숭아다래끼를 받아쥐었다. 그제서야 기분이 좋아진 소년은 앞서 걸기 시작하였다. 그의 동작에는 활기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저런 소년에게 어머니의 불행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줄수 있단말인가?)

범산을 물들이던 저녁노을도 사그라지고 옅은 황혼이 골짜기에 자리를 펴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활개를 저으며 걸어가던 소년은 말없이 걸기가 호젓했던지 뒤로 뺄 돌아서며 물었다.

《저를 찾으시는 분이 누구시나요?》

소년의 눈동자에는 호기심이 잔뜩 어려있었다.

《가보면 알게 된다는데. 그분은 김정숙어머님이시다.》

박봉녀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날아가는 새도 단방에 쏘 떨어구신다는 유격대 너장군을...》

《남철인 그걸 어떻게 알아?》

《동북에 있을 때 어른들이 다 그러던데요 뭐.》

박봉녀는 소년이 여간 기특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웁다! 바로 그분께서 너를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계신단다.》

소년은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실린 얼굴로 박봉녀를 쳐다보았다. 자기에게 차례진 큰 행운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정말이다. 아무렴 내가 거짓말을 하겠니.》

그제서야 소년은 씩 웃고나서 다시 활개치며 걸었다.

(이렇게 순박하고 인정있는 소년인데 낮에는 왜 엉뚱하고 이상한 아이로 보였을까?)

3

친숙해진 소년은 이야기를 곧잘하였다. 박봉녀가 놀란것은 무엇보다 소년이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있는것이였다. 전설적인 영웅,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뒤쫓아오는 왜놈들을 외딴 골짜기로 끌고가서 통쾌하게 족쳐버리셨다는 이야기며 날아가는 산새를 별로 겨누지도 않으시고 단방에 쏘떨구신다는 이야기 등 비범한 예지와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왜적을 벌벌 떨게 하셨다는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품고 자랑스럽게 하는것이였다. 아마 소년은 지각이 들면서부터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것이 분명하였다.

시내가 가까와지자 소년은 흥분된 얼굴로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분은 남달리 키도 크시고 체격도 웅장하시겠지요?》

박봉녀는 웃었다. 상상하기를 즐기는 소년들에게서 흔히 받아온 질문이였다.

남철은 한번도 만나본 일 없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제나름의 표상을 가지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럼, 남다른데가 있으시지, 그러나 키가 크시거나 체격이 웅장하신것은 아니란다.》

《그러세요...》

소년은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

《그렇다면 그분을 보기만해도 왜놈들이 벌벌 떨었다는데 특별히 엄하신가요?》

소년들의 환상이란 끝이 없는가보다. 박봉녀는 또 웃으며 소년의 상상을 바로잡아주었다.

《그렇지도 않단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소년은 자기의 상상을 죄다 부정하는 박봉녀의 얼굴을 의문스레 바라보았다. 소년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인상은 아무래도 보통 어머니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하신 모습이었던 모양이다.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시내에는 벌써 전등불이 반짝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 코지 않은 기와집앞에 이르렀다. 문

열린 방안에서는 김정숙어머님께서 군녀맹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였다.

박봉녀는 남철소년을 찾으시려고 그토록 애쓰신 어머니이시였기에 남철소년을 찾아왔다는 소식만 들으시면 버선발바람으로 달려나와 소년을 부둥켜안으시리라는 생각을 하며 산복숭아다래끼를 든채 조심히 방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바람에 방안에서 이야기가 중단되고 박봉녀에게 시선이 집중되였다.

《남철소년을 데려왔습니다!》

박봉녀는 산복숭아다래끼를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그 사연까지 죄다 말씀드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남철소년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으시자 눈을 빛내이시며 박봉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였다. 그러나 박봉녀가 생각했던바와는 달리 어머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흐리신 안색으로 산복숭아다래끼를 오래 지켜보실뿐이였다.

박봉녀는 반기실대신 흐리신 어머님의 안색을 보자 기쁨보다 근심을 끼쳐드렸는가싶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아, 내 왜 체신머리없이 산복숭아다래끼부터 내놓았을까?)

박봉녀는 자신의 분별없는 처사를 모질게 꾸짖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남철이에게 그렇게 기다리는 오금실동무를 내 세워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윽고 김정숙어머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참아내기 어려워신듯 한숨과 함께 나직이 한마디 말씀하시였다.

(아, 그래서 자리를 일지 못하셨구나.)

박봉녀는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에서 가슴이 뭉클하도록 뜨거운것을 느꼈다. 박봉녀자신도 자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신 숭엄하고 웅심깊은 그 사랑에는 천만분의 일도 따를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숙어머님의 그 사랑은 벌써 유격근거지에서 남철이의 얼어드는 심장을 덥혀주시였고 부모를 잃은 그의 행처를 친부모이상으로 찾으시였으며 소년을 찾은 지금에 와서는 또 그의 어머니를

앞에 내세워주지 못하는것을 못내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는것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문을 열고 밖에 나서신 어머님께서는 토방에서 마당으로 성큼 내려서시더니 소년의 두어깨를 감싸안으시며 반기시는것이였다.

《네가 분명 남철이었구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의 손목을 이끌고 방안으로 들어서시였다. 밝은 전등아래로 들어서신 어머님께서는 남철소년의 두손을 꼭 잡고 무릎을 굽혀 앉으시였다.

《어디 좀 보자. 어찌면 너는 꼭 어머니를 닮았구나!》

다정다감하신 눈길로 남철이를 바라보시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만스름을 잊으신듯 환히 웃으시며 기뻐하시였다.

남철소년은 검정치마에 흰 무명저고리를 입으신 김정숙어머님의 상냥하신 얼굴을 존경과 흠모의 정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날저녁 소년과 함께 식사를 하신 다음 남철이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캐여물으시였다. 남철은 인자하신 어머님의 인품에 이끌려 스스럼없이 말쑤드리기 시작하였다.

남철이는 어머니가 맡겨둔 집 할머니를 외할머니로 알고 따랐다. 인정있는 할머니였으나 가난때문에 소년에게 쌀밥 한술 못해주었고 조밥이나마 배불리 먹여보지 못하였다. 그런 처지에 웃은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 가운데서도 대바른 할머니는 남철이가 철들기전부터 너의 어머니는 왜놈들과 싸우려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산속으로 들어갔다는것을 입버릇처럼 외었다. 그러던 할머니가 열살난 남철이의 병간호를 받다가 끝내 추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으면서 할머니는 남철이에게 말했다.

《남철아, 잘 새겨두어라. 너의 어머니 이름은 오금실이다. 이곳에 들어오기전에 합수동에서 너를 낳았다더라. 조국을 빼앗았을뿐만아니라 너의 아버지며 마을사람들을 죽인 일본놈들을 원수갚겠다구 너를 이 늙은것한테 맡기고 떠나면서 나라를 찾게 되면 너와 나를 데리고 합수동에 나가 살자구 하더

구나. 너는 나라가 독립되거들랑 어머니를 만나서 꼭 고향에 가서 살아라.

애 남철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를 찾아간 어머니 뜻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되찾겠다구 눈물을 뿌리며 떠나가던 네 어머니를 다시 못보고 가는것이 한스럽구나...》

할머니의 유언은 소년의 꼴수에 새겨졌다. 남철은 다음날부터 이웃마을 지주집 꼴머슴으로 되였다. 어린 소년의 등은 무거운 꼴단에 지지눌렸다. 그래도 소년은 여물지 않은 뼈와 근육을 악버티며 꼴단을 저야만 살아가는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날 지주아들놈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소잔등에서 꼴단을 풀어들어놓고 남철이더러 지라고 야단이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소잔등에 올라타는것이였다. 남철은 소를 가시밭으로 끌었다. 그놈은 남철에게 달려들었다. 남철이는 참았던 분노를 터치고야 말았다. 달려들다가 오히려 남철이에게 매를 맞은놈은 항복하고야말았다. 남철은 비겁한놈의 꼴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정처없는 길을 떠났다. 한지에서 헤매이던 끝에 료리집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다. 구박과 천대는 여기도 매한가지였다. 공상 많은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려는 생각도 하였다. 이런 때 남철은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소년에겐 어머니가 고향에 가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두만강을 건넜다. 술한 고생을 하며 그림던 합수동을 찾아왔으나 것처럼 기대했던 어머니는 고향에 없었다. 정든 집과 친척들은 없었으나 마을사람들은 남철이를 붙들고 울며 반겼다. 남철이는 어머니와 가깝게 지냈다는 앞집할머니를 의지하여 살며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기다리는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 할머니는 산나물을 해서 판돈을 꼬기꼬기 꾸저두었다가 사주지 못했던 고무신을 며칠전에 사왔다. 남철이는 너무 기뻐서 몇번이고 신어보고 또 신어보았다. 그러면서도 구차한 생활속에서 인정을 길러온 남철은 신총이 다 물러난 할머니의 낡신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근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닌 금년겨울에 뭘 신을가?》

《원 녀석두 별걱정을...》

남철이는 어머니가 더 그리웠다.

(우리 어머니 언젠가 오실까. 오실 때 내 옷 한벌 하구 할머니 고무신 한켠레만 사가지고 왔으면...)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다. 남철소년은 하는수없이 학교에서 돌아와 나무짐을 지고 장에 나갔다. 오는 겨울에는 할머니가 밭이 시리지 않도록 고무신 한켠레를 꼭 사드리고싶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남철은 선생한테서 꾸중을 들었다. 《나무짐을 지고 장에 다니지 말고 숙제를 착실히 해오너라.》

남철이는 그후부터 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두번째로 남몰래 장에 갔다오는 길이었다. 오던 길에 박봉녀를 만났다. 그는 황급히 지나쳐버리려했다. 한것은 길가에 계시는 분들이 나무짐을 지고 장에 갔다오는것을 알기만 하면 꼭 학교에 알릴것만 같았던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걷는데 뒤에서 덜미를 잡듯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번 돌아보고나서 더 켜걸음을 놓았다. 그런데 재차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인정을 느낀 소년은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걸음은 저절로 멎어섰다. 가까이 다가오는 녀인을 바라보는 소년의 얼굴에는 기대와 경계의 두 감정이 얹혀져있었다. 침착성을 잃은 소년은 대번에 이름부터 물었다. 그랬더니 어른의 이름을 묻는것은 버릇없는 짓이라고 나무랐다. 또 대주는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도 아니었다. 기대가 빛나가자 경계심만 부쩍 살았다. 그래서 달아빠고말았던것이다. 집에 돌아온 남철은 설새도 없이 산수숙제를 풀기 시작했다. 《또 나무장사를 하느라고 숙제를 못했니?》 그 가슴아픈 말을 듣지 않으려고...

소년의 이야기를 듣다가 박봉녀는 뒤로 돌아앉았다. 이상스럽게만 느껴지던 소년에게 것처럼 가슴아픈 사연이 깃들어있었던가. 슬그머니 돌아앉으려니 이번에는 복숭아다래끼가 눈에 걸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박봉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박봉녀는 그 침묵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이제 남철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천진한 소년의 어린 가슴에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슬픔을 어떻게 안겨줄수 있단말인가.)

방안의 공기를 짓누르고있는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면 소년의 울음이 터질것이다. 박봉녀는 그것이 두려웠다.

4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시였다. 그이께서 밖에 나가시자 박봉녀는 방안의 침묵이 더 거북스러워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달빛 은은한 프락에 그린듯 서계셨다. 애타게 찾던 남철소년을 만났다는 기쁨과 안도감은 그렇듯 벌써 아픔으로 변하시는것이였다. 박봉녀자신도 아픈가슴 달래기 어려울진대 항일전의 간고한 나날 함께 싸우시던 어머님의 마음은 오죽이나 아프실것인가.

박봉녀가 어머님의 곁으로 다가갔을 때 그이께서는 약간 떨리는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남철이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름 석자뿐이에요.》

어머니사랑의 단맛을 모르고 살아온 남철이, 그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것인지 모르는 소년이기에 어머니에게서 바라는것이 고작 옷 한벌과 할머니에게 드릴 고무신 한켠레가 아니겠어요. 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것처럼 아는것이 없는 남철이였지만 거칠은 세상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머니의 이름 석자만은 가슴속 깊이 간직해두었다가 해방된 오늘엔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어머니를 찾겠다고 낯선 고향까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산열매를 어머니를 위해 남몰래 익혀두었을가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길가는 녀인을 붙들고 이름을 물으며 어머니를 찾았을가요.

이러한 자식의 심정을 안다면 그 어머니의 가슴은 또 얼마나 쓰리겠나요. 아, 그래도 어머니의 가슴이 천백번 쓰러더라도 자식의 소박한 그 소원을 풀어줄수 있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함께 돌아오지 못한 전우의

얼굴을 그려보시는듯 영채도는 눈길을 드시어 달을 바라보시는것이였다.

은은한 빛을 뿜던 달은 추억의 쪽배런듯 파도무늬의 얇은 구름속을 넘나들며 끝없이 흘러가고있었다.

그 달을 바라보고계시던 어머님께서는 생각깊으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저 남철이와 같은 아이들때문에 심려하고계십니다. 지난겨울 함박눈 내리던 날 밤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박봉녀에게 그날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하염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면서 저택정원을 거니시였다.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우산을 들고 마당가에 나서시였다. 찬눈을 오래도록 맞고계시는 장군님이 넘려되신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우산을 펼쳐드시였으나 장군님의 깊은 사색을 깨칠가봐 잠시 머뭇거리시였다. 당과 국가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밤잠을 잊으시던 장군님께서 이 밤 또 무슨 일때문에 넓으신 어깨에 함박눈이 두껍게 내리썩이도록 심려하시는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그이곁으로 다가가시였다. 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는 아늑하신 촉감에 걸음을 멈추시고 머리우를 쳐다보시였다. 나지막이 가리워진 우산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낮으나 생각에 젖은 웅글은 목소리로 뒤에 서계신 김정숙어머님께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왜 아직 자지 않소?》

어머님께서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시듯 어깨우에 두껍게 내려앉은 눈을 손으로 털어내리시였다.

《웃이 다 젖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정원을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조국의 눈을 맞으니 희생된 혁명동지들의 생각이 간절해지오. 그들은 모두 숨지는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나라가 해방되면 자기들의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우리곁을 영영 떠났지… 그들의 아들딸들이 지금 어느 한지에서 헤매고있는것만 같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얼굴에는 심려의 빛이 력력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싶으셨으나 생각뿐이시였다. 자신께서도 장군님의 그 말씀에 가슴저미는듯한 아픔을 참으셔야 했던것이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장군님의 그 심려를 덜어드릴수 있을것인가.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얼굴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들을 다 찾아내여 우리가 그 애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줍시다!》

말씀을 끊으셨던 장군님께서는 생각이 간절하신듯 말씀을 다시 이으시였다.

《오금실동무의 아들도 어느 길거리에서 이 눈을 맞으며 울고있을것만 같소.》

심려깊으신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신 김정숙어머님의 심정은 몹시 애달프시였다…

말씀을 마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함박눈 내리던 그날밤의 숭엄하신 장군님의 영상을 그려보시는듯 잠시 아무 말씀도 없이 생각깊으신 얼굴로 서계시였다.

어머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선 박봉녀의 눈앞엔 혁명자유가족학원창립을 위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꽃피우시려고 애쓰시며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회상되였다. 유자녀들을 찾으러 떠나는 사람들을 바래고 맞아주시던 일이며 데려온 유자녀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느라 학원에서 지내시던 일이며 아직 채 데려오지 못한 유자녀들을 못내 걱정하시며 또다시 사처에 수소문하시던 일들이 떠올랐다.

모든 유자녀들이 학원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는 남철이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던가. 혁명자유가족학원 개원식날이 가까와오는 요즘 남철이를 생각하며 걱정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더 절박해지셨던것이다.

어머님께서는 회상에서 깨어나신듯 박봉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봉녀동무가 이번에 장군님의 크나큰 심려를 덜어드리었어요. 이제 장군님께서 남철이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뭘...》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자신이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를 끝까지 지키시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끝내 남철소년을 찾으신것인데 도리어 자기에게 치하를 하시지 않으시는가, 박봉녀는 어머님의 고매한 품성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봉녀동무, 어서 들어가자요. 우리가 다 나와있으니 남철이가 섭섭해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께서서는 방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머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박봉녀의 마음은 또 무거워졌다. 이제 어머님께서 남철소년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어차피 전해주시실것이기 때문이였다.

어머님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서시자 남철소년은 기다렸다는듯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조심스럽게 묻는것이였다.

《우리 어머니를 잘 아신다지요?》

소년의 영민한 눈동자에는 간절한 심정이 함뿍 어려있었다.

《잘 안다. 잘 알구말구.》

소년에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울렸다. 박봉녀는 어머님의 그 목소리와 인자하면서도 근엄하신 얼굴에서 회생된 전우에 대한 슬픔을 참고 이기시기에 애쓰신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어머님의 그 심정을 알리 없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데 있어요?》

순간 박봉녀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것이였다. 초조히 깜빡이고있는 소년의 기대에 찬 두눈은 어머님의 대답을 재촉하고있었다. 이제 어머님께서서는 가슴아픈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박봉녀는 난감한 얼굴로 김정숙어머님을 지켜보았다.

소년의 눈길을 찬찬히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서는 남철이를 품에 꼭 껴안으시며

《남철아!》

하고 목메여 부르시였다. 한껏 애정에 젖은 어머님의 그 목소리는 박봉녀의 가슴속에 서렸던 불안과 슬픔을 말끔히 날려버리는것이였다.

남철이는 새로운 눈으로 김정숙어머님을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흠모의 정이 넘치는 눈, 그러나 의혹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소년의 시선이 어머님의 얼굴에서 떠날줄 몰랐다.

《남철아! 나를 어머니로 불러다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소년을 부르시며 더욱 뜨겁게 남철이를 껴안으시였다. 그러시는 어머님의 눈에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의 이슬이 빛났다.

박봉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김정숙어머님께서 지금 혁명전우가 껴안아야 할 소년을 자신께서 껴안으셨다는 생각에 목메여하신다는것을 직감하였다.

소년을 껴안으신 어머님의 얼굴에는 자애의 빛이 짙게 깔리시였고 예지로운 안광은 성스러운 감정으로 불타시였다.

(아, 혁명의 어머니!)

박봉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솟구쳐올랐다. 정녕 남철소년에 대한 김정숙어머님의 이 뜨거운 사랑은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단순한 육친의 사랑만이 아니라 조국이 겪은 수난과 더불어 파도처럼 겹쌓이는 슬픔을 이겨내시고 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혁명의 어머니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고귀한 사랑이었던것이다.

박봉녀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경건하게 하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그 모습을 존경어린 눈으로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5

박봉녀가 남철이에게 입학줄 학원제복을 가지고 저택에 도착한것은 사위가 어둡기 시작한 때였다.

그사이에 남철이는 텅수룩하던 머리를 깎고 목욕까지 해서 그런지 아직 배잠뱅이 그대로였으나 다른 아이가 된듯싶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무르익은 능금처럼 발기우리하게 피어오르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축축한 그의 머리를 다 빗겨주신 다음 박봉녀가 가져온 옷을 원탁우에 올려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남철이를 앞에 앉히시고 학원제복과 모자, 그리고 구두를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남철에게 얼굴을 드시였다.

《남철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조용하나 엄숙하게 울리었다. 그러자 남철소년은 선생앞에서 학생들이 항용 짓게 되는 곧바른 자세를 취하며 정중하신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봉녀는 다정하고도 굳센 어머님의 눈빛속에서 남철이를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시려는 뜨거운 마음을 읽고있었다. 엄숙하나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님의 눈빛은 오직 귀여운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에게서만 볼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애무에 찬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이나 인정뿐아니라 소년을 혁명의 기동감으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력력하시였다.

《너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떼신 어머님께서는 남철에게 파란곡절 많은 혁명전우의 한생을 상세히 들려주시였다. 사랑하는 자식을 때려두고 혁명의 길에 나서던 때의 일이며 사령관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나날 작식대원으로, 지하공작원으로, 재봉대원으로 싸워온 위훈에 대해서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가의 고결한 최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야기를 귀담아듣고있던 남철소년은 어머니의 최후에 대한 사연을 알게 되자 울먹해진 얼굴을 떨구었다. 빨강게 되었던 그의 얼굴에 파랗한 기운이 서렸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남철아, 너의 어머니는 너를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나에게 남기고갔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너를 키우려고 한다. 너도 나를 어머니로 불러다오.

이 옷은 바로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한대로 너를 **김일성**장군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려고 만든 학원제복이다. 자, 어서 갈아입자!》

학원제복을 꿰어지도록 바라보는 소년은 선풍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손수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철이에게 옷에 퍼운 붉은 줄을 가리키시며 근엄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이 붉은 줄은 혁명을 위하여 목숨 바친 너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줄기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남철이도 이제부터 공부를 잘하고 총쏘는 법도 잘 배워서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꼭 훌륭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알겠니?》

《네!》

주눅들어버린듯하던 남철이였으나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굳은 결심을 가졌던모양 배심에서 우러나오는 담찬 목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옷을 다 입히시고나서 어머님께서는 남철이를 데리고 옆방으로 나가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남철이를 거울앞에 세우고 다시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시였다. 몸에 꼭맞는 옷과 새 구두를 받쳐신고 모자까지 쓰고보니 소년은 더없이 령리하고 귀여웠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의 단정한 모습을 만족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시다가 꼭 껴안으시며

《남 철 아, 제복을 입으니까 더 영특하고 귀엽구나.》 하시면서 소년의 등을 어루만지시였다.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그것을 목마르게 바라고 찾던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전신으로 스며드는것을 세차게 느끼면서 응석이라도 부리고싶은 심정에 젖어드는 소년의 귀가에 《나를 어머니로 불러다오.》라고 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사랑겨운 목소리가 되새겨졌다. 그러자 옷감과 고무신을 사가지고 돌아올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던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지금 자기가 입은 붉은 줄을 띤 제복을 보자 애타게 바라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된 남철은 어머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어머니!》 하고 부르짖었다.

소년의 이 부르짖음은 언제고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리움과 함께 불러보고싶던 어머니를 가슴속 깊은곳에 간직했던 부르짖음으로서 화산의 분출과도 같이 억제할수 없는것이였고 거세찬것이였다.

소년의 진정에 넘치는 그 부르짖음은 혁명의 어머니-김정숙어머님께서만이 줄수 있는 사랑의 메아리였다.

《오냐! 내가 네 어머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들먹이는 소년의 잔등을 부드러운 손길로 자꾸 쓸어만지시였다. 어머님의 옷섶은 소년의 눈물에 젖어들었고 또한 어머님의 소리없는 눈물은 소년의 어깨에 떨어져내렸다. 남철소년이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박성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동화적환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1972년 1월 24일 교시를 받들고 우리 동화문학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에 주신 역사적인 교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동화, 우화 창작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 사상적내용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의인화의 수법으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내용으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만들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구현한 우리 당중앙에서는 동화, 우화에 대한것을 아동문학에서는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끌고나가야 하며 아동영화문학과 아동문학 작품창작에 사회적관심을 돌려야 하겠다고 가르치였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와 당중앙의 가르침을 받들고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 우화를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을 명백하게 파악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동심리도 사회적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습니다. 봉건사회에서의 아동심리는 봉건사회의 사회적환경을 반영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아동심리는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환경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심리와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심리가 같을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 속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세대로 자라나고있으며 주체시대, 우리 인민들이 세기적으로 숙망하던 민족적대변영의 시기에 자라나고있다.

우리 나라의 이 벅찬 사회주의현실은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어린이들의 심리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대변영의 새시기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충성심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주체시대의 고상한 윤리도덕적품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면서 무럭무럭 힘차게 자라나고있다.

이러한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 우화를 훌륭히 창작하려면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어린이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생활속에 들어가야 동화에서의 의인화의 폭을 넓히고 환상을 생활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래치게 할수있기때문이다.

생활에 발붙인 환상은 의인화의 수법을 형상에 옳게 받아들이게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그러므로 환상을 옳게 도입하는것은 동화창작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동화에서 환상은 어떻게 되여야 할것인가. 동화의 환상은 어린이들의 지적, 정서적 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환상을 얻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에 대한 작가의 높은 열정과 함께 어린이들의 념원을 자기의것으로 완전히 체험했을 때에만 비로소 이런 환상이 나래칠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동화문학의 환상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락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한한 행복과 3대혁명의 붉은 기폭을 높이 휘날리며 휘황한 공산주의 앞날을 위해 투쟁하는 바로 그 길우에서 발현되는 량만적생활에 있을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와 같은 생활속에서 사회생활의 본질과 시대의 전형적인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높은 사상성과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환상을 도출해야 할것이다.

동화작품창작에서 현실에 튼튼히 의거하여 환상의 나래를 펼쳐야만 온세계가 경탄하여마지않는 오늘의 벅찬 우리 현실, 당중앙이 밝혀준 속도전의 위력이 가져다준 우리 조국의 비할바없는 발전속도와 그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만이 가질수 있는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를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원래 어린이들이란 말 그자체가 희망과 꿈의 대명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꿈은 그 어느 역사적시대에도 비할바없이 크고 리상도 또한 높은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평범한 이야기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높은 지향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군하는것을 보게 되는것이다. 그들이 시대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포부가 기실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의 물방울을 통해서 전 우주를 비쳐 보려고 하는 우리 어린이들만이 가질수 있는 높은 이상의 세계를 작가의 안목으로 넉넉히 찾아보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동화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속에 보다 깊이 침투되어 그속에서 가치있고 폭넓은 새롭고 독창적인 환상의 나래를 펼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그런데 동화적환상이 현실을 복사하거나 기록하는 정도로 되어서는 어린 독자들에게 희망과 이상의 힘찬 나래를 안겨주지 못할것이다. 또한 그 환상이 현실속에서 도출된것이라 할지라도 극히 지엽적이거나 제한된것으로서 전형성을 띠지 못할 때에 그것은 시대적미감에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것으로, 환상을 위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될것이다. 어디까지나 환상은 현실에 대한 복사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창조적환상으로 될때만이 어린 독자들에게 유익한 공상으로 될수 있는것이며 그들로하여금 그를 실현해보려 하는 내적충동과 정서세계를 키워나갈수 있게 할것이다.

동화의 환상문제에서 우리는 또한 환상 그자체가 내포하고있는 계급적성격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동화적환상이 현실에 토대하지 못하고 허황하고 공허한것으로 될 때 그 환상은 어린독자들에게 현실세계에 대한 모호한 인식밖에 다른것은 더 줄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그 동화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과는 관계가 없는 그릇된 사상적 경향으로 떨어지고말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동화적환상이란 곧 로동계급적성격을 띤것으로서 현실에 기초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부합되게 모든 자연과 사회 현상을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인식시킬수 있는 그러한 환상을 말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말하는 환상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것이며 현시대의 혁명적인 현실과 시대적요구에 부합되는 창조적환상을 의미하는것이다.

동화창작에서 중요한 환상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환상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는 문제이다.

작가는 어느 한 자연이나 사회과학의 전문가로는 못되여도 그 분야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이 동화를 쓴다면 환상이 나래치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분히 기록주의 경향으로 떨어

어지고 말며 의의있는 환상이 펼쳐지지 못하고 메마른 작가의 의도가 로출되고 교훈이나 훈시, 설교가 생경하게 드러나게 될것이다.

동화창작에서 의인화된 동식물의 형상창조는 동식물 그자체의 특성이나 속성을 알고저하는데 기본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상, 감정, 동향, 지향 등 인간들의 심리적특성과 생활을 인격화해서 반영하는데 기본이 있을것이다. 때문에 동화작가들은 동식물의 생태적특성이나 그 속성을 기록적으로 전달하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심원한 세계를 형상적으로 재현하는데 모를 박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만이 동화의 생명력이라고도 볼수 있는 환상도 생활론리에 의거하여 발생하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주체시대의 요구와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복고주의경향을 철저히 극복, 청산해야 한다.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했던 지난날의 구전동화에서는 흔히 긍정적주인공들이 약자로 등장하고 부정적인물들이 강자로 설정되어있었다.

구전동화에서는 대체로 선한것은 오직 토끼, 양, 다람쥐와 같은 약자들이고 악한것은 승냥이, 독수리 같은 강자들로만 의인화되어있었다. 계급투쟁의식이 미약하였던 옛날사람들은 자기들은 세도가 없고 힘이 약하기때문에 착취계급들에게 압박당하고 천대받는것으로 인정하여왔다. 때문에 당시 인민들의 유일한 념원과 지향세계는 약자가 지혜의 도움으로 강자를 타승하는 방법밖에 달리는 표현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피착취 근로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어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에 와서는 긍정적주인공들을 부정적인물에 비해서 연약한것으로만 설정해서는 안될것이다.

무엇때문에 동화문학의 긍정적주인공들을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인물들로 그리지 못하고 밤낮 적들앞에서 쫓겨다니거나 숨어다니는 그러한 나약한 인물로 형상하겠는가, 작가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선택하고 묘사하는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속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체현시켜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력사를 창조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동심을 깊이있게 탐구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2년 1월 24일에 주신 교시를 더욱 훌륭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영선

로쇠를 모르며 투쟁하는 사람이 주체형의 주인공이다

나는 《조선문학》이 제기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주인공은 어떠한 인간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지상토론에 참가하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한 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며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우리 시대, 피끓는 청장년들의 웅당한 의무로 되고있다.

그러나 육체적인 로쇠를 사상적의지로 극복해가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해가는 사람이야말로 과연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의 소유자, 주체형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기때문에 혁명가답게 살며 행동해야 한다. 혁명가답게 살지 못하면 죽은 송장과 같다. 혁명가답게 살자면 혁명적기세로 간고한 투쟁을 해야 한다.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리기섬교원은 이렇게 혁명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며 급년 65살을 헤아리는 다과목 교원이다.

교단에서 40년!

세월은 아득히 흘렀다. 그 가운데는 일제강점하에서 보낸 치욕의 10년도 포함되어있다. 진리를 알고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진실을 이야기해줄수 없었던 그 시절을 그는 젊은 나이에 보냈으나 침울한 기분속에서 활기없이 헛되이 보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새조국의 교단에서 그는 참으로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품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린지 오래고 그에게서 육체적로쇠는 숨길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만일 이 교원이 생일날 천리 먼곳에 있는 손자들까지 불러들인다면 아마 수십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그러니 울망줄망한 손자들을 무릎위에 한가득 앉히고 창가에 앉아있을수도 있고 바다가 어느 바위우에서 낚시줄을 던지며 한가한 나날을 보낼수도 있을 나이이다.

그러나 기섬교원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 오직 한 마음 안고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갈 주체형의 인간들을 키워내는 가장 어렵고도 보람있는 교육초소에서 자기의 정열을 끊임없이 바쳐가고있다.

만약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열도가 조금이라도 식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찾아오게 되는 육체적로쇠로 하여 이미 오래전에 새세대 교원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넘겨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그처럼 영예롭고 보람있는 혁명임무로 간직한 전사이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그처럼 가슴뜨겁게 느낄줄 아는 주체형의 주인공이기에 육체적로쇠를 억센 투지로 견디어내며 오늘도 자기 초소를 그처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것이다.

내가 여기서 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는것은 긴긴세월 교단에서 자기의 노력을 말없이 바쳐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바쳐가고있다는 오직 그 한가지만이 아니다. 내가 토론하려는 문제는 그가 오늘도 로쇠와 침체를 모르는 주체형의 주인공답게 교원집단속에서 자랑찬 혁신자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혁명적이며책임적인 립장에서 새세대들을 키워가고있다는 그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고있다. 생산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한만큼 물질적결과로 나타난다고, 그러나 하구많은 공수를 넣어도 인차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것이 인간개조사업, 학생들을 교양하는 교육사업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산에서 혁신자라는 개념을 말할 때 인간과 자연과의 호상관계에서 물질적부를 누구보다 풍만히 창조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로동계급의 전형적인간, 천리마기수들, 3대혁명의 충성의 기수들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전선에서 혁신자라는 정의를 해설할 때에는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변혁해가야 할 인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전선의 선구자, 인간교양자들을 넘두에 두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새세대의 로력혁신자들을 주체형의 주인공으로 형상화하는 동시에 그들모두를 이런 보람찬 사회적인간으로까지 키우기 위해 그처럼 노력하고 있는 인간개조의 숨은 노력가들도 웅당 주체형의 주인공으로 그려야 할것이다.

물론 기섬교원에게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그 어떤 기적적인 성과는 없다.

그러나 속담에 한낱한시에 낳은 사람의 손가락도 길고 짧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그 취미와 성격, 자라난 가정적환경이 각이한 수백, 수천명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나날 풍랑인들 어찌 한두가지만이였겠는가, 이 과정을 어찌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혁신자만 못하다 하랴.

이것은 그가 걸어온 하나의 긴 로정에 대한 이야

기에 불과하다.

65살의 로령기, 육체적로쇠.

나는 오늘까지도 안온한 안식처를 뿌리치고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격류속에 뛰어들어 패기와 정열을 다 바쳐가는 그 정신, 그 마음이 더욱 아름다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60돐 생일이후 기성교원이 당과 우리 혁명, 어버이수령님께 바쳐온 충성의 한 단면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몇해전 여름이라고 생각된다.

기성교원의 60돐 생일날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었다.

안해는 남편의 60돐 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그와 합의도 없이 멀리 떨어져있는 아들과 딸, 친척과 손자들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서둘러 전보를 날렸던것이다.

그날도 학교에서 밤늦게야 돌아온 그는 이 사실을 알자 온 나라가 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이때 사람들을 부르는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안해를 나무랐다.

그는 차려놓은 저녁상도 받지 않고 체신소로 달려가서 60돐 생일은 아직 하지 않으려고 하니 떠나지 말라고 전보를 쳤던것이다.

자신의 한순간의 락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길줄 아는 혁명적립장과 태도, 나는 바로 여기에서도 지난날의 늙은이들과 주체시대 늙은이들의 정신도덕적특질에서 차이가 있고 그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교양에서 가정교양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학교와 가정의 호상관계도 그만큼 중요한것이다.

기성교원에게는 학생들의 교양을 위하여 학부형들과의 부단한 접촉이 필요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대고조로 들끓는 현장에서 거의 침식을 바쳐가고있는 학부형들을 자주 학교로 부를수는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하루 2~3명의 학부형들을 계획적으로 만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기성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출근하던 길에 학부형들을 만났고 점심시간 30분씩을 줄여가며 공장으로 찾아가서 부형들을 만나 학생교양문제를 의논하였다.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부형들과의 1,000여회의 담화를 하는 과정에는 그가 걸지 않은 길, 그가 찾아보지 않은 학생가정은 거의 없다.

누가 보진 말건, 누가 알아주진 말건 스스로 걸은 길을 합치면 그 길이는 참말 헤아릴수 없이 긴것이다.

기성교원은 이 길에서 오직 하나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의 교양문제만 의논한것은 아니였다.

말은 사업이 대단히 바쁘다나니 자녀들을 교양할 시간이 없다는 어느 사업소의 내부담당지도원 최동무에게는 자녀교양도 혁명사업의 한 중요구성부분이라고 설득력있게 해설하여 자녀교양에 누구보다 높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학부형이 한두사람만이 아니였다.

작년 9월초에 있는 일이다. 기성교원은 소년단지도원으로부터 착취받고 압박받던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자는 계급교양자료를 가지고 분단토론회를 진행할 과업을 받았다.

그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걸어온 쓰라린 과거사를 좀더 생동하게 보여주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퇴근무렵 제지공장으로 찾아가서 버짙을 구해다가 밤이 깊도록 짙신을 삼아가지고 분단토론회에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지난해 2월중순경 화학을 담당한 송현옥교원이 시약이 떨어져 학생들에게 실험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듣고 100여리나 되는 함흥화학공장에 찾아가서 시약을 구해온 사람도 다름아닌 기성교원이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을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기성교원은 재작년봄부터 당조직으로부터 한가지 분공을 자진하여 더 받았다.

잠시간을 리용하여 각 직장과 공장기업소의 근로자중학교학생들을 료해하고 거기에 출연할 강사들도 찾아내어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처음에 출연시킨 교수자들의 수준은 낮았다. 결과 수강자들의 수준도 말이 아니였다. 기성교원은 강사들을 불러다가 밤늦도록 교수안과 교수방법을 깨우쳐주었다.

특히 실력이 낮은 과자공장, 연료공급소의 몇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직접 교재직관물까지 만들어주었다. 결과 지난해에 와서 근로자중학교 근 200명의 졸업생들중에 180명의 최우등, 우등생을 냈던것이다.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주인공의 빛나는 생이란 육체적생명의 길고 짧음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심장속에 간직된 충성의 열도를 거침없이 현실변화에 발산하여 새로운 변혁을 이룩해갈 때 그것이 것처럼 값있고 보석과 같이 귀중한것으로 되는것이다.

로쇠현상이 우리 혁명과 건설 사업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단지 나이많은 사람들을 두고만 말하는것이 아니다. 로쇠현상은 육체적으로 로쇠되려면 아직도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속에서도 일부 나타나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일이다.

같은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김동무는 대학시절부터 정열이 많은 사람이였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교육교양사업에서 일부 주관주의적편향이

나타나 조직으로부터 몇번 비판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후부터 김동무는 점차 정열이 식어 일정한 기간 로쇠현상에 빠지게 되었던것이다. 결과 그가 담당했던 학급 학생들속에서는 일부 자유주의적행동이 나타나 하급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까지 되었던것이다.

이런 하나의 단편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로쇠현상은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치밑에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며 공산주의 지름길로 내달리는 혁명의 전진운동에 적지 않은 제동기적역할을 하는,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우기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는 몇사람의 선진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에 의하여 건설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의 혁명문학은 로쇠현상을 극복하는 과정보다 주체형의 주인공의 주요한 특질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그려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경남도 신포시 2중천리마 어항고등중학교
교원 박재주

밤은 지새고 먼동이 트려는데...

김윤일

눈이 내렸다, 골짜기를 메우며
뽕양던 하늘이 희미해오고
하나둘 령마루에 별이 밝은데
조국으로 가던 길, 정치공작원은
떠나온 사령부를 바라보고있어라

밀영지 훔날리는 눈발속에서
목수건을 따듯이 매여주시던 장군님
아직도 마당가에 그냥 서계시는가
그의 가슴뜨거움에 젖어들어라

이제 령을 넘으면 그림던 조국땅...
장군님 품에 안기려
생눈길 헤쳐 백리
그이 품에 안겨 목와 울던 때는 언제던가
그 무슨 못잇을 속삭임처럼
바람은 눈꽃을 날려오는데

아, 태양의 빛발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달아준
아버이의 그 손길, 그 품이 아니였던들
혁명가-영생하는 삶을 안고 태어날수 있었으랴

왜놈의 채찍밑에
자유 불려 주먹 떨던 벌목부를
혁명의 대오에 세워주신 그 은혜
글귀를 익히느라 고심하던 밤에도

혁명의 뜻을 심어주시던 아버지장군님,
아름다운 산과 강, 기름진 들판
그를 위해 피흘린 선렬들의 이야기며
혁명가의 걸음새를 익혀주시던 모닥불가
아, 그 밤들의 추억은
가슴깊은곳에 저 백두의 령봉처럼 남아있으리

눈물속에 넘어온 저 령을
백두의 빛을 안고 다시 넘는다
갈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장군님 품으로 이끄는 별이 되어...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품
그곳에서 태어난
혁명의 별, 충성의 별들이
새벽을 부르며 누리에 빛발쳐가나니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어둠던 강산에 충성의 별무리 빛을 안고 태어나
조국으로, 조국으로
태양의 빛을 뿌리며 간다

생눈판우에 발자국 찍으며
힘있게 걸어가는 정치공작원
숫아오르는 태양을 우러른다
밤이 지새고 먼동이 트는 저 하늘가에
충성의 별,

조국의 별들이 빛난다.

쌈

구희철

산밭을 뒤집던

《토벌대》놈들의 짓어대던 총소리
준엄한 싸움으로 근거지를 지켜낸
아, 불타는 한밤은
이러히도 숨엄한 새벽과 바뀌누나

깊은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처럼
다시 모여오는 늙은이들 녀인들, 아이들
골짜기를 메우며 오는 근거지사람들

일제놈들의 행패질이 지나간 근거지
귀틀집 서까래는 허리부러져내렸고
빈독마저 깨어버린 마당가에선
아직도 내내가 풍기고 불티가 날리는데

앞서며 뒤따르며 흐르던 사람들

물목이 막힌듯 벗어섰어라
급힘없는 삶의 지조를 지켜낸 그네들
재가루를 헤치는데
오, 죽지 않고 살아난

봄보리의 파릇파릇한 쌈이여!

지지는 불길도 헤치고 돌아나온
창날같이 뾰족한 파란 보리쌈은
《토벌대》놈들 굵히지 못한
근거지사람들의 모습이런가
해빛을 안고 한껏 웃음지어라
불보다 뜨거운 가슴가슴에 안겨서...

오, 삶은 죽음보다 억세여라
불길도 태울수 없는것
총탄도 뚫을수 없는
두터운 땅을 뚫고나온
태양을 향해서만 살줄 아는 쌈이여!

불속에서도 죽지 않는

쌈이여, 새 생의 환희여!

그 어떤 시련의 폭풍속에 있어도

김일성장군님을 태양으로 우러러 싸운
너, 근거지사람들의 억센 기상이여!

화선입당 외 1 편

장건식

넌려진 첩관우에 무쇠관우에
땀에 젖은 작업복에 안전띠를 두른채
당원들 묵묵히 둘러앉았다
또 한사람 키워낸 신입당원을
건설장 한복판 첩관우에서
엄숙히 받아안은 우리 당 세포총회.

뜨거운 숨결에 떠받들린듯
근엄한 눈길들을 한몸에 받으며
돌격대의 젊은이 그들앞에 섰다
우뢰치는 하늘가 당원들의 뒤를 따라
드팀없이 받들어올린 첩관과 첩관 넘어
입당의 영광을 안아온 연공.

그에게 무엇을 더 물으랴

당이 준 초소와 그 임무를
성실한 자각으로 빛내여왔거니
당원들 손을 든다
무쇠같은 주먹을 추켜든다

아, 구름발이 홀러가는 트라스우에서
엄한 눈길로 안전바를 죄여주던
뜨거운 그 숨결들이 여기에 차있구나
첩관높이 오르던 젊은이의 뒤를
인자한 미소로 흐뭇이 지켜보며
걸음걸음 받들어온 당원들의 그 마음이...

눈보라 소리치던 그 겨울밤
웃으며 앞장서 눈길을 열던 당원들
이리도 높은곳에 올려세우려

단꿈 서린 밤길우에 발자국을 찍으며
 짧은이를 묵묵히 따라세우지 않았던가
 혈전으로 시작되고 혈전으로 이어져온
 우리 당의 발자욱이 여기에 찍혀가는구나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겨 자라던 투사들이
 당의 품에 불을 묻고 소리없이 흐느끼던
 그 눈물 그 숨결을 받아안은 화선입당이어!

공방전을 앞둔 고지에서도
 당총회는 이렇게 열렸더라
 탄약상자우에서 총가목을 틀어친채
 당원들은 이렇게 묵묵히 손을 들고
 초연에 그들은 군복자락에
 전사들은 이렇게 눈물 떨구며
 당의 성스러운 전투서열에 이어졌더라

불길속에 태어나 불길속에 다듬어지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속
 몸으로 심장으로 온 녀트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빛내이는 한길우에
 흔들릴줄 모르는 불패의 당이어!

아, 총진군의 쇄박소리 가슴을 치는
 대건설장 한복판 첩탐우에서
 당원들 무쇠같은 주먹을 들고
 신입당원 눈굽을 훔치며 안전띠를 조인다
 그렇다. 전격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우리 당은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전진한다

기쁨

조업을 앞둔 구내.
 꽃보라에 묻히울 래일의 꿈을 안고
 새 제철지구의 밤은 깊어가는데
 어찌하여 잠 못드는가
 첩탐을 더듬어가는 연공과 제관공
 그들은 이 밤도 총계길에서 마주친다.

한순간의 미소가 스치고 지나간다
 말없이 주고 받는 뜨거운 눈길들이
 눈부신 전로우의 오색기를 바라본다
 우정과 믿음으로, 사랑과 충성으로
 변함없는 신념의 한길을 걸어
 영광의 령마루에 다달은 사람들.

모래불 한복판에 휴계실도 나란히 짓고
 그우에 돌격대의 기발도 함께 띄운 이들
 전로의 기초를 쌓아올리던 그날부터
 얼마나 먼길을 함께 왔던가
 대원들이 일손 켜 그 깊은 밤에도
 무엇인가 못한 일 남아있는듯
 살피며 돌아보던 첩탐우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바빠 헤어진 두 돌격대장.

묻어둔 이야긴들 얼마나 많으랴,
 이밤에야
 하늘높이 다듬어올린 로정에 걸터앉아

기쁨도 추억도 함께 나누련만...

아, 맞이할 래일의 기쁨을 두고
 가슴에 실려오는 크나큰 의무로
 조업 앞둔 구내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다시 또 살펴가는구나.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전엔
 순간도 만족할줄 모르는 오랜 당원들.

말없이 옮겨드는 그들의 발밑으로
 새 제철지구는 얼마나 틈새없이 펼쳐지는가.
 어버이수령님 만족해하실 그 길우에
 가장 빛나는 삶의 희열을 찾고
 스스로 제 할 일을 찾아하는 그 길우에
 인민의 기쁨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제 날이 새면
 그들은 웃으리라.
 이글대며 굽이치는 쇄물앞에서
 위대한 수령님 환히 웃으실 때,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온 나라 인민들이 따라 웃을 때.

아, 그들은 웃으리라
 시련 많던 나날을 함께 돌이키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 기쁨에

파도처럼 실려오는 그 행복에 젖어...

충성이면 눈속에도...

김희중

산이 높은 양덕땅
눈깊은 령길을 굽이돌아
어머니 한분
딸집에 나들이 왔더니

이 어인 황홀한 진찬인가
싱싱한 오이채
향긋한 오이지
한겨울에도 멍석딸기라더니...

먼길을 온 한 어머니 가슴에도
어느덧 찾아와 기쁨을 피워주는
처녀소조원의 오이꽃
창너머 비닐박막집에는
어머니를 반겨맞으며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오이꽃구름

기특하다 하기엔 너무나 숭엄한
처녀소조원의 마음이다
멋없이 흘러가는 온천물이 불수록 아까와
만풍년을 가꾸고 돌아오는 저녁길에도
문득 손을 잡거보고
령너머 기계화반에 달려가는 새벽길에도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받아안은 고마움으로
김뽕은 온수를 두손으로 떠보고...

처녀는 충충벽을 쌓으며

남새온실을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추위 사나운 두메에도
도시 부럽지 않는 푸른 열매 주렁주렁
언제나 봄에 사는 좋은 세월 부르며
밤낮이 없던 도끼소리, 톱소리

아, 충성이면 눈속에도 피어나는
오이꽃, 오이꽃
읍이라 공장이라 차판가득 물결쳐가는
소조원의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
먼 산촌의 두메마을을
락원의 봄동산으로 높이높이 세워주었던가

하늘아래 첫동네에서 누리는 행복을 산너머 멀리
소조를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 계신 수도의 하늘
가에 비껴보고

아버이수령님께서 아시면 더없이 기뻐하실
그 영광을 소조원의 눈빛에 담아보며
설레이는 마음에 잠못이루던 어머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채
손주녀석 껴안고 잠이 들었네
눈보라 잉잉 창문을 두드려도
꿈속에는 구름처럼 피어나는 오이꽃, 오이꽃
사시절 봄날처럼 피어나는
따사로운 소조원의 꽃!

가없는 바다를 남겨놓고

한철흠

산에 산에 어깨를 겨룬 미더운 쪽
산중에 펼쳐진 생명수의 바다
만년대계의 저수지를 건설한 사람들
배우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난다

버들숲 해묵은 락엽우에
첫자욱 짙으며 오던 길은 그 어디
새 일터 찾아서 떠나는 길에는
백리 덕발을 적실 생명수가
금물결 출렁이며 배전을 치누나

어디바루나
위대한 수령님 밝혀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달려와 천막을 둘러치던 그 자리는
인적기에 한번도 놀라본적 없는
민물고기떼를 쫓으며
첫 발파를 하던 강기슭은

진달래 꽃철에도 함박눈 내리고
단풍철에 진눈까비 쏟아지는
고산지대의 날씨와
사나운 겨울을 길들이며
산같은 독을 쌓아올리던 전투장들은...

온 세계를 휩쓰는 한랭전선의 변덕에도 끄덕없이
한배미의 논, 한뼘기의 비탈밭도
모두 황금날알을 쏟는 땅으로 만드시려는
아버이수령님

야밤삼경에도 장거리전화로
북방의 건설자들을 찾으시어
당정책을 받들고 수고가 많다고
방안의 온도까지 물어주시던 그 사랑,

아버이사랑속에 살고있어
공사장을 휩쓰는 태풍도
때아닌 눈사태-《겨울의 홍수》도
불타는 가슴, 충성의 피끓는 심장으로
막아넘긴 사람들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릴
영광의 시각을 앞당기려고
뛰고 달리며 불꽃을 일으키며
속도전의 거세찬 불바람 날리며
《충성의 속도》를 창조한 사람들

대형삭도바가지 꼬리를 물던 자리도
이젠 물속에 잠겨버리고
높아가는 독과 함께
기증기로 높은곳으로만 물어올리고 또 올리던
건설자들의 휴게실, 수리개들의 집도
이제 더는 찾아볼수 없어도

우리들 전투의 나날에 남긴
위훈의 발자취야 어찌 지워진것이라
이 산중에 산같은 독을 남기고 떠나는데야
이 산중에 가없는 바다를 펼쳐놓고 떠나는데야

3대혁명의 붉은 기치아래
자연도 주체의 요구대로 길들이는 사람들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수월치 않아도
남기는 자욱은 가없는 바다
로동의 보람은 바다처럼 영원한것

길을 떠난다
그 어떤 왕가물이 닥쳐와도
포기포기 생명수로 뿌리를 적시며
논벌도 덕밭도 더 알찬 이삭으로 뒤덮일
풍년작황을 그려보며

시조

대자연의 정복자들

로승모

땀을 내리며

애솔나무 해풍에 설레이고
백사장 해빛 안고 번쩍이는곳
첫눈에 정이 드는 새 일터여!
준첩선 고동소리 높이 찾아왔노라.

오 땀을 내리자!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서해기슭
거룩하신 그이의 발자욱 찍혀있는 이 지점에
우리 풍만할 새생활의 땀을!

머지 않아 솟아날 새땅에서
풍년농사 지어낼 첫 관리위원장이며
살진 고기 키워낼 양어기사 데리시고
어버이수령님 걸으시던 그날의 자욱자욱...

바다가엔 검붉은 파도만 치고
모든것이 아직 거칠기만 하여도
태여날 앞날이 너무나도 소중하시여
바람소리도 노래마냥 들으시며
어버이수령님 심원한 사색속에 잠기시던 그 저녁...

아 못잊을 그 저녁,
하루해는 바다위에 누엿누엿 저물고

애기별 하나들 반짝이는데
황금이삭 스적이는 별을 걸으시는듯,
고기떼 부르는 양어장 종소리도 들으시는듯,
어버이수령님 환히 웃으시던 그 미소속에
벌써 새날의 화풍은 펼쳐지고있었거니,

두볼 축축히 적시던 관리위원장처녀도
스스럼없이 따라서 웃었고
어버이수령님 자리잡아주신
양어장 터전을 멀리 바라보며
젊은 기사 뜨거운 가슴에 손을 얹던
귀중한 그날의 이야기 심장에 안자!

오 청년건설자 우리들 찾아오기전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솟아난
조국의 빛나는 이 기슭엔
벌써 새생활이 출렁이고있었거니,

어서 땀을 내리자!
오랜 세월의 꿈이 아니고
머나먼 리상이 아닌
조국의 새 구역에 새생활의 땀을!

새 해안선

힘장수 준첩선도 시동소리 울리고
강철의 팔뚝을 돛대처럼 추켜든
무수한 굴착기도 모여온 공사장
이제 새 제방 쌓아갈 전투는 시작되려는데,

웃음소리 박수소리 울리는 속에
소금물에 절은 바지 걸어붙이고
돌격대장 와새걸음으로 감탕밭을 걸어나간다,
줄레줄레 대원들은 그 뒤에 따라서고...

아득히 먼 섬과 섬사이에
영원히 굳건할 제방자리...
이제 측량도 끝났으니 우리 발로 한번 밟아보자고
개표와 수령의 깊이를 가늠하자고
만년 묵은 감탕밭우에 지워지지 않는 자욱을 찍어
나간다.

썰물이 진 서해
바다물은 무인도너머 번쩍거리고
또 하나 태여날 새땅을 노래하는가

갈매기들 눈부신 해발속에 춤을 추는데,
생각깊은 사업소 신문주필은
벌써 사진도 한장 멋지게 찍었구나,
위훈과 랑만 속에 태여날 새땅
새땅의 태동을 세상에 전하고싶어...

어버이수령님 명령이라면 물러선적 없이
울부짖는 노도앞에서도 태연히 웃던
역센 대자연의 정복자들
또 하나 충성의 자욱을 찍어나간다.

이제 머지 않아 굳건한 제방이 그 자욱 따라서고
조국의 새 기슭이 굽이치며 펼쳐지려니
너무나 장한듯 흥에 겨운듯
걸다말고 이마위에 손을 얹은채
멀리 수평선을 거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오 어버이수령님 위대하신 손길아래
대자연을 다스리는 사람의 힘이

또 새로운 이 나라의 해안선을

여기는 마지막 제방을 쌓아가는 개교막이전투장
모든것이 소리치며 용을 쓰는
사람과 대자연과의 판거리싸움터
벌써 몇밤을 지새웠느냐!

산같이 모래 싣고 자동차는 달리고,
함성높이 나아가는 우리를 지원하는 굴착기들
강철의 팔뚝들은 집채같은 블로크를 물고
억센 무쇠발로 툇을 잡아흔든다.

보라!
마지막 항거하는 바다를...
검붉은 파도는 삼킬듯 달려든다,
하늘도 바다편이라는듯
장검같은 번개를 내리꽂고
역수로 비줄기 퍼붓는다.

아 사람과 자연과의 대결
누가 승리할것인가!
우리는 대자연의 영예로운 정복자 되려니

섬기슭에 마지막 블로크를 놓아
서해 노도를 영원히 밀어제끼 이 새벽
노을 타는 쪽우에서 가슴 울렁이는
못잊을 순간이 우리에게 왔구나,

검푸른 파도는 멀리 물러나고
천만년 묵은 바다밑이 드러났구나
동무여 우리 함께 저 소리를 들어보자
넓고넓은 새땅이 태어나는 소리를...

오곡의 싹을 안아키우고
억만의 열매 살찌우고 영글릴
달고단 즙액을 가슴깊이 담아안은
저 새땅이 숨쉬는 소리...

술섬, 제비섬
이제는 땅우에 옮겨앉은 《섬》마다에
파일나무 심어가꾸고
조개 줏던 섬처녀들
머지 않아 붉은 열매 따내야 하리,

이도포, 삼월포

이렇게 소문없이 세상에 펼쳐놓았구나.

투쟁

3대혁명의 불바람 일구며
이 밤도 지새우는 조국이어!
그대는 충직한 이 아들들을 지켜보리.

오직 수령님 위해
크나큰것 남기끓은 마음들이,
오직 조국 위해
영원한것 보태여주끓은 마음들이
달려드는 노도를 맞받아나아간다.

오 돌격대원들이여! 더 세차게 나아가자!
싸움이 준엄할수록 승리는 우리의것
보라 시퍼런 번개불속에
마지막 노도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 비명은 바다 멀리 울려가거니,

조국은 력사우에 새겨두리라,
주체형의 붉은피 심장에 끓는
스무살 젊디젊은 우리 나이에
천만살도 더 먹을 풍년벌을 낳았다고...

전변

오랜 세월 배고동소리 울리던 포구마다엔
뜨락또르 차고를 번뜻이 세워놓고
수수천년 오가던 배길차리엔
포전도로 닦아놓아 기계농사 지으리라.

오 그러나 모든것이 옛 모습 벗어던지고
천지개벽의 시대 노래불러도
그 이름들만은 그대로 불리
우리 시대 위훈의 자욱 길이 전하게 하리.

섬들도 포구들도 땅우로 옮겨앉은 주체의 시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3대혁명의 선구자로 빛내여주신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 전하며,

섬 이름, 포구 이름 그대로 부르리라,
다감한 후대들 돌이켜보며
전변하던 이 시대를 노래하라고
이름들만은 그대로 이 땅우에 남겨두라!

술섬, 제비섬, 이도포, 삼월포

세계지도우에서 빛나라 《보물섬》들이여!

서해기슭
또 하나의 새땅을 얻어내는 공사장에서
찬비에 젖고 눈보라도 헤치며
우리 돌아온 그 많은 저녁과 새벽

합숙방문 열 때마다
우리를 반겨주는 한장의 지도가 있다
조국의 서북단, 서해한가운데,
우리 로동으로 얻어낸 귀중한 땅
《비단섬》이 새겨진 한장의 세계지도가...

기적과 같이
전설과 같이
바다한가운데서 떠오른 섬
비단옷감 자라나는 《비단섬》!

말하라,
삼년 석달 소금물에 절으며
우리가 쌓아올린 그 막돌들과
우리가 파올린 그 검은 감탕흙이
언제부터 그렇게 빛나게 되었더냐!

배우에 오르시여 세찬 파도 가르시며
섬자리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
충성으로 파올린 귀중한 우리 《섬》을
세계지도우에 높이높이 없어주셨으니,

오 인간의 로동을 가장 빛내여주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손길아래
우리는 더 많은 《섬》들을 서해에 안아내여
대자연 정복자의 영예 떨치리.

싱그러운 훈향이 바다우에 가득 찰
《파일섬》 만들어 지도우에 얹어놓고
인민의 기쁨이 그 언제나 쏟아지는
무수한 《보배섬》을 바다우에 띄우리라.

세계의 땅들도 부러워할
자랑스런 이름들을 조국에 보태주며
3대혁명의 불바람으로 서해를 밀어내고
만대에 길이 빛날 자욱을 남기리라!

북창의 라빈소리

오대석

지심을 흔드는
화력타빈소리
온 조국땅에 빛과 열을 보내는
북창의 타빈소리

배전반실 계기바늘들이
높아가는 전류량을 가리키고
푸른 신호등이 별처럼 빛나
마음설레는 동력전사의 기쁨이여

쇠물을 끓이는 전극소리에서도
건설장의 밤하늘에
줄줄이 쏟아지는 불보라에서도
온 조국이 바라는 빛과 열량을 헤아리시며
여기 북창땅
천리 먼곳을 찾으시던 어버이수령님

비는 내리지 않아도
화력타빈소리와 함께
전류의 흐름 마를줄 모르는 이 땅,
지하석탄전선도
동력기지의 구내선에 이어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넘으신
그 험한 령길들을 어찌 잊으랴

하늘가에
퇴성치는 번개도 휘여잡아
꽃비단 짜는 방직기들에도
양수기 도는 산촌의 논머리
풍년씩 움티우는 포전들에도
전류의 흐름을 젖줄기로 물려주고싶던 그 마음이어
강물을 끌어올려 더운 가슴 식히며
순간도 멈추지 않는 화력타빈소리여

높뛰는 조국의 맥박인듯
세차게 울리는 저 타빈소리 들으시면
별무리처럼 빛나는
저 푸른 신호등을 보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어버이수령님

아, 언제나 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들려드리고싶어라
동해선 천리
마천령산줄기를 굽이돌아 줄달음치는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
나라의 억만재부를 쌓으며
천고의 밀림을 흔드는 전기톱소리...

어디서나 그 어디에서나
행복의 웃음꽃 피워주며
온 강산에 기계소리 노래로 울려퍼질 때
어버이수령님 제일 기뻐하시여라
북창의 타빈소리 들으시며!

젊은 탄부가 일하러 오던 날

김종백

탄부의 제복을 입은 둘째아들이
막장으로 일하러 오던 날
머리흰 아버지- 우리네 갱장은
생각이 많아 서성거리고

명절처럼 흥성이는 갱구앞에서
그날따라 웃음을 잊은 갱장
꽃송이로 테를 두른 인차가 기다려주건만
아들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그는 말하였네
-우리는 걸어서 막장으로 가자고

어찌 모르랴, 몰라서 되랴
꽃다발을 안고 해를 향해 웃으며
꿈많은 아들이 서있는 그곳
그곳은 어제날 그의 아버지
모지라진 쇠매를 단 하나의 유산으로 받아안고
하많은 고역의 막장으로 떠나던
생활의 첫 지점

청춘의 꿈은 탄버럭에 묻히고
단별적삼이 질통밑에 썩었다
사납게 우는 감독놈의 채찍에
피터진 이마의 상처 아물 날이 있었던가

언제나 무덤처럼 비좁던 막장
땅우에 여름해가 뜨겁던 낮에도
차디찬 석수에 젖어 겨울갈던 굴길
저나른 석탄은 산처럼 높았어도
불 못뎀 구들, 머리맡에 물사발이
얼음덩이로 굳어지던 함바집의 밤이여,

피롭고 울분에 찬 생활이

아프게 피자국을 남긴 그날의 굴길을
호사롭게 인차를 타고 지나면서야
어찌 다 알아볼것이라

즐거운 날, 온 세상의 축복속에
로동의 첫걸음을 떼는 아들에게
아버지된 자각, 갱장이 된 의무로
먼저 무엇을 주어야 했던가,

주리라 젊은 탄부, 아들에게
그렇듯 기쁜 날에 가장 아픈 추억을
아들이 안고있는 꽃다발이
억울했던 탄부들의 원한을 씻어줄
뜨거운 맹세의 눈물로 젖게 하지 않는다면야
그는 갱장- 아버지가 아니었으리

정녕 그날의 《오소리굴》을 걸어보지 않고서야
위대한 수령님 마련해주신
태양등 환한 지하막장 어이 알랴
은혜로운 해발아래 꽃피는
오늘의 행복을 어이 다 알랴

젊은 탄부 아들이 일하러 오던 날
갱장은 그와 함께 걸었네
기나긴 굴길, 원한 찼던 굴길을

둘이서 걸어가도 그들은 한사람,
자욱자욱 아버지의 어제날을 새겨안은 아들과
걸음걸음 아이들의 행복을 안아보는 아버지
그들의 발자욱소리도 하나로 울리어...

행복의 막장으로 가고있었네
굴속에 찬 세월의 버럭속에 묻히었던
자기의 청춘을 되찾은 갱장이,

크나큰 은혜를 베푸신 어버이수령님께

대를 이어 충성할 오직 한마음이 가고있었네

그대들의 밝은 미소로 하여

장호건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들이어도
바라보는 가슴들을 후덥히는구나
푸른 물 굽이치는 청천강기슭에
거인처럼 일떠서는 대화력발전소
들끓는 건설장 영예의 게시판에
나불은 혁신자들의 림름한 모습이어

무르익은 풍년가율이 기쁨에 설레이는
산과 들 저 넘어 끝없이 뻗어간
새 철탑들의 팔뚝같은 고압선으로
환호의 꽃보라속에 첫 전류를 흘러보낼
감격의 그날을 남먼저 안아보기에
그대들 눈동자엔 미소가 어렸는가

쏟아지는 쇠물의 폭포를 눈앞에 그려보며
솟아나는 비료의 산악을 가슴에 안아보며
높이 울리는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를 가까이 들
으며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온 그대들

어디나
강기슭 훔날리는 모래불우에
그대들 건설자의 단출한 령장을 풀던 날
울어대는 풀벌레들을 놀래우며
랑만의 손뽕금소리를 울린 천막자리는...

어디나
태어난 아들딸의 복스런 사진을

구름발 날리는 하늘가에서 받아보던 날
웃으며 떠들며 저마다 돌려보며
작업반의 축복을 한데 담아
이름도 충성이, 충심이라 지어보낸 그곳은

담배 한대 태우는 시간마저 아까와
손에서 용접기를 놓지 않은 그 마음
입었던 비옷마저 벗어
쏟아지는 폭우를 막아내며
기어이 콘크리트혼합물을 보장한 그 열정

그대들의 다함없는 충성심에 받들려
저 우람찬 발전타빈들이 일떠서고있구나
저 아름찬 증기배관들이 이어지고있구나
어버이수령님 몸소 걸으신 자욱우에
주체시대의 또하나 대기념비가 솟아오르고있구나

어버이수령님 부르신곳이기에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이 줄달음쳐오는곳이기에
영광 더욱 빛나는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혁신자들의 미소어린 자랑찬 모습

차림새는 수수하고 소박하여도
궁지높이 흐르는 그대들의 미소는
이제 번개치며 흘러갈 전류에 실려
온 나라 그 어디서나 빛을 뿌리리니
아아, 그대들의 티없이 밝은 미소로 하여

조국의 얼굴이 더욱 환해지는구나

저 별들이 말해주고있구나

김정호

서서히 아침안개 걷히는
채굴장으로 오르는 길에
별이 빛난다, 별이 흐른다
정다웁구나, 경적소리 가벼이
굽이굽이 산허리를 감도는 자동차에
무수히 빛나는 별, 별...

노을이 비낀 차창가에
나많은 저 운전수의 근엄한 눈빛 -
얼마나 많은 별을 새겨왔던가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도
교대와 교대를 이어가던
그 길우에 돌아오른 별,

아, 전화의 나날
포탄을 싣고 탄약을 싣고
화선천리 불길속을 헤쳐온 그대
전승의 언덕을 넘어온 별을
이 땅우에 다시 빛내이고있구나.

봄이면 길가에 물도랑도 깊숙이 파고
여름이면 산비탈의 돌담도 쌓으며
무수한 낮과 밤을 길우에서 보내던
그 마음
저 별들이 다 말해주고있구나

저 별들이 다 말해주고있구나
아직은 바쳐온 충성 모자라는듯
하늘의 수억만 별들을 모아
새기고싶던 마음
창안으로 밤을 지새며
바람부는 산정에서 새날을 맞더니,

때로 발동소리 고르롭지 못할 때면
교대를 잇던 그대,
기름자욱 얼룩진 얼굴을 들어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던
티없이 맑은 그 웃음도
저 별들에 다 새겨져있고...

말해주고있구나, 10년 세월 하루같이
채굴장으로 락광정으로 오르내린 길이어
구배 많은 광산길로
수억만키로를 달리고 달리던
무사고운행의 그 낮과 밤들이여,

어버이수령님 몸소 오시여
하나하나 별들을 세여보시며
성실한 로당원이라고
보석같은 그 마음이 조국을 빛내인다시며
그렇듯 대견히 치하해주시던
그 영광 그 기쁨
저 별들에 새겨져있구나.

나라를 받드는 그 마음
충성의 별로 새겨가며
주인된 자각속에 높뛰는
로동계급의 숨결이여,

성실히 조국을 받들어가는 그 마음
온 광산이 다 알고 온 나라가 다 알고있어라
하늘의 별은 밤에만 빛나도
저 차에 새겨진 별들은 밤낮이 따로 없이
그 언제나 빛나고있구나.

충성으로 불리는 뜨거운 심장

김성국

곧게 뻗은 공장구내길에선 연한 안개가 조심조심 흩어지고있었다. 푸르스름한 어둠의 흔적이 공원의 숲속이며 소채창고의 구석진곳에 아직 남아있는 이른새벽이다. 동쪽하늘의 좁은 구역이 감빔으로 물들어가고있을뿐 직장들의 무수한 창문들은 거무튀튀하게 보이였다.

이른봄이였다. 물을 머금은 살구나무의 우툴두툴한 껍질우로는 축축히 젖은 물기가 여기저기 흘러내리고있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과 미래와 행복을 불러주는 좋은 시절이 왔다. 어데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3대혁명소조원 김치규는 가볍게 구내길을 걸어가고있다. 키는 좀 큰편인데 얼굴의 선이 굵고 골격이 두드러지고 걸음걸이가 힘에 넘쳐있는 30대의 청년이다.

두시간전만 해도 그는 주물직장에서 쇠물을 부었다.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두툼한 입술을 짹 다문채 콩알같은 땀을 뚝뚝 흘리며 쇠물바가지를 들고 다녔다. 마지막 주입구에 쇠물을 부어넣고 남은 쇠찌끼를 쏟아버렸을 때 용해공 최아바이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었다.

《소조원동무, 인젠 좀 들어가 눈을 붙이시우.》

그 아바이의 눈길엔 간절한 소망의 빛이 어려있었다.

《괜찮습니다.》

벌써 몇번째 거듭해온 치규의 대답이다.

《그저 한가지 소리만 하는군.》

최아바이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있었다. 치규는 빙긋 웃었다. 생각해보면 그는 늘 그런 대답만 해온것이다. 사실 그는 벌써 며칠째 잠을 못자는지 모른다. 설계할 때에는 그것을 해놓고 자리라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목형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첫 쇠물을 붓게 되는 지금까지도 잠자리에 편히 누워있을수 없었다.

하나 인제는 좀 잠을 잘수 있지 않는가.

부어넣은 쇠물이 식을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는것이다. 가자! 잠을 좀 자고 나오자!

날이 밝을무렵 그는 합숙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쌓였던 피곤이 한꺼번에 물리면서 소스르 잠이 들려는 순간 그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내가 잠을 자다니? 주물결과도 모르고...)

놀라운 발견이였다. 너무나도 간단한것을 몰랐던 자신이 무척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그는 세면장으로 달려갔다. 푸푸 비누거품을 일구며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다. 그리고는 거뜬한 기분으로, 폭 잠을 잔 사람보다 더 경쾌한 걸음걸이로 지금 구내길을 걸어가고있는것이다.

방금전 쇠물을 부어넣은 제품이 몹시 보고싶다. 구별이나 안갔는지? 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그럴수는 없지만 혹시 오작이 났으면 큰 사고다. 3대혁명소조원인 내가 직접 쇠물을 부어넣은것인데 오작이라면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버이수령님께 한시바빠 기쁨을 울려야 할 수송관설비가 아닌가! 티끌만한 오점도 없이 훌륭한 제품으로 되어나오길 바라며 치규는 걸음을 다그쳤다.

주물직장안에선 가스냄새와 함께 열기가 풍기고있었다. 시뻘건 쇠물을 토하던 용선로의 숨결도 땀고 거세찬 바람을 일구며 돌아가던 송풍기도 잠이 들어버린듯 조용하다. 쇠물을 부어넣은 주형장에선 그물그물 튕김이 피어오르고있다.

치규는 그쪽으로 다가가 쇠갈구리를 집어들었다. 이어 모래속에 파묻힌 제품을 하나하나 털어내기 시작했다. 제품들은 아주 잘 나왔다. 조그마한 손색도 없이 쇠물이 잘 돌아 형태도, 표면도 나무랄데가 없었다. 치규는 온몸에 힘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이제 이것들을 가공에 물리고 그리고 제품품도 제격 뽑아내야겠어.)

그는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며 일에 접어들었다. 잊을수 없는 나날들, 모대기던 나날들이 느닷없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발파소리.

조국의 북방 무산과 청진사이 250리길을 뒀는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공사장에 첫발파소리가 울렸다. 어버이수령님의 또하나의 원대한 구상이 이 땅에 꽃피어나는 장엄한 서곡이였다. 무산에서 캐내는 쇠돌을 수송관을 거쳐 김철로 보내게 된다.

실로 큰 규모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공사, 250리구간을 단숨에 점령할 기세도 높이 주먹을 추켜들고 결의해나선 사람들은 다만 이곳 청년건설자들만이 아니였다.

여기 기계공장에 파견돼온 3대혁명소조원들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

태웠다. 250리구간에 늘일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우리가 생산해내자!

3대혁명소조원 김치규는 뛴는 가슴을 부여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수송관을 만들어낸다는것은 기술적으로 몹시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다. 손바닥처럼 두터운 강관(그것도 보통강관이 아니라 몹시 강한 재질의 합금강관)을 일정한 너비의 규격으로 잘라 타래진 관으로 말면서 이음짚을 안팎으로 용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만드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치규뿐만이 아니었다. 전체 혁명소조원들 다그 그랬다. 이 공장의 경험있는 기술자들과 관리일꾼들,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런 사정으로 하여 첫날 협의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 보지도 못한 수송관 만드는 기계를 어떻게 우리 손으로 설계하며 조립해낸단말인가? 지배인도 기사장도 번들거리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고 젊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토론들을 했다. 하나 시원한 안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왜 이리 꼴먹은 병어리처럼 가타부타 말이 없는가? 치규는 속이 달았다. 벌써 일어나 모든 사람들의 속이 탁 트이도록 시원스런 말을 하고싶었다. 하나 그역시 마음뿐이지 아무런 방도도 못가지고있었다. 두번, 세번, 협의회는 날을 이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머리에는 점차 수송관에 대한 인식이 깊게 배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론하는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며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만이 있다는데 대해 일치한 합의를 보았다. 3대혁명소조에서는 이 문제를 치규에게 맡겼다.

치규는 일을 시작했다. 그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권위있는 설계가인 리기사였다. 설계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리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이 말했다.

《전혀 파악이 없습니다.》

《파악도 실천도 함께 해결합시다.》

《될수 있을는지? ... 문헌에 의하면 이런 수송관을 만드는 나라가 불과 몇나라 없더군요.》

《그것이 우리 일에 결코 장애로 될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주저하게 되더군요.》

《우리 힘으로 난관을 헤치면서 해봅시다. 기사동지!》

《.....》

《이렇게 현대적인 공장에 설비들이 그췌하구 기사, 기수 고급기능공들 그리고 전진만을 아는 로동계급이 있는데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

《함께 해봅시다. 기사동지. 이 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치규의 말은 리기사의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날밤 리기사는 생각깊은 눈길로 마루바닥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방안을 거닐었다. 치규는 미구하여 그가 수송관설비설계에 열정을 가지고 달라붙으리라것을 믿었다.

설계가 시작되었다. 치규는 리기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 그의 설계실로 아예 자리를 옮겼다. 며칠씩 밤을 밝히는 일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치규는 매일 매시각 새로운 힘과 기백에 넘쳐 설계판에 마주앉곤했다. 어버이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각오가 가슴속에 차오르면서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는것이었다.

어느날 리기사가 그에게 다가와 진심어린 어조로 권고했다.

《소조원동지, 좀 눈을 붙이십시오.》

《기사동지도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까.》

《난 낮잠을 좀 잤습니다.》

리기사는 가볍게 웃었다.

《낮잠을 좀 잤구요?》

치규도 따라웃었다. 낮잠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그런 말을 하고있다니... 혁명동지를 생각하는 리기사의 넘려가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그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버리고말았다.

(속히 끝내자, 시작이 절반이라고 설계만 끝나면 좀 허리를 펴수 있을거야.)

그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다. 자리를 뜨지 않고 몇 시간씩 계속하여 일했다. 리기사가 다가와 고집스럽게 중얼거렸다.

《휴식은 인간의 생리적요구입니다!》

《그럴테지요. 하지만 의지의 힘으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기사동지, 도면을 다 완성하구 우리 한번 실컷 자봅시다!》

《허허허.》

두사람은 통쾌하게 웃었다. 치규의 마음은 전에 없이 즐거웠다. 리기사가 더없이 친근하게 느껴졌고 귀중하게 생각되었다. 두사람은 담배를 피웠다. 치규는 전사시절 강행군의 짧은 휴식시간에 전우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일이 생각났다. 리기사의 얼굴이 그때 전우들의 얼굴과 엇바뀌는것이었다. 그 어떤 알지 못할 격정이 가슴속에 쩌 마쳐움을 그는 느꼈다.

(어서 끝내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

그는 마음속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피곤을 이겨나갔다.

조립도가 다 되자 일은 좀 험하게 되었다. 부분도들은 다른 소조원동무들과 기사들 여러명이 각기 분담하였다.

드디어 한달만에 도면이 완성되었다. 그날저녁 웃음어린 얼굴로 리기사를 바라보며 치규는 말했다.

《오늘밤엔 집에 가서 푹 좀 쉬십시오.》

《소조원동지는?…》

《저역시…》

그러자 리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기사는 오래간만에 집으로 갔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치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밤 치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했던 일을 해보기로 작정했다. 주물품을 부어내자는것이다. 목형은 벌써 째째이 깎아두었다. 주형을 박고 쇠물만 부으면 된다. 밤이 이슥해서 목형을 들고 치규는 주물직장주형장으로 갔다. 모래를 퍼고 한개두개 주형을 박기 시작했다. 밤일을 나온 주형공들이 저마끔 가져다가 찍어주는바람에 일은 더더욱 자리가 났다.

그가 한참 신이 나서 주형을 박다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눈을 들었을 때였다. 낮익은 구두와 바지, 언제 왔는지 리기사가 자기앞에 묵묵히 서있지 않는가.

《기사동지!》

저도모르게 이렇게 웨치고난 치규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집에 가 푹 자겠다고 들어갔던 그가 아닌가.

《왜 또 나오셨습니까?》

치규는 조용히 물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걸 난 짐작했지요. 섭섭하군요. 소조원동지.》

《!…》

치규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 무엇보다에 그가 섭섭하다고 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불끈거렸다. 못견디게 리기사가 고마왔다. 치규는 말없이 그에게 다짐봉을 내주었다. 두사람은 밤새도록 주형을 박고 쇠물을 부었다....

이것은 바로 두시간전에 있던 일이다.

지금 치규는 걸싸게 제품을 털어내고있다. 먼지와 열기가 훅훅 풍기지만 그는 미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제품이 나왔다는 기쁨, 이제부터 커다란 일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흥분으로 하여 그는 지금 앞뒤를 가려볼 경황이 못되었다. 이윽하여 창문들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거 누구요?》

쪽잠에 들었던 최아바이가 두눈을 비비며 달려나왔다. 뒤이어 당직지령원도 그리고 다른 직장의 노동자들도 달려왔다.

《우리에게 두 일감을 주십시오. 소조원동지.》

《이런 법이 있습니까? 두말말구 어서 제품도면을 주시우. 이틀안으 해치우리다.》

《우리 선반공들에게 먼저 주세요!》

그들은 저마다 손을 내밀었다. 얼마나 미더운 사람들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일을 벌리지 않았는가, 못해낼 일이란 없다. 신심을 가지고 이악스레 해댄다면 제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문제될것이 없다. 250리 쇠돌길우에 충성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늘이고야 말리라!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치규는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랐기때문이었다.

수송관설비조립반이 새로 조직되었다. 현장경험이 많은 박기사가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었고 리기사는 현장기술지도를 보게 되었다. 각 직장에서 분담받았던 제품들이 들어왔다. 총조립이 시작되고 부분적 시운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말기작업은 잘 풀리지 않았다. 실패가 거듭되었다. 한번, 두번, 열번, 서른여덟번... 련속되는 실패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신심을 잃어버리게 했다. 실험할 때마다 모여들군하던 각 직장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른아홉번째의 실험은 이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또 실패였다. 강판은 원을 그리지 못하고 닭알모양으로 되는가 하면 이음새가 고르롭지 못하여 용접에 지장을 가져왔다. 검댕이 광대를 그린 박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쭈크리고 앉아 담배만 피웠다. 노동자들은 관이면 관, 굴대면 굴대 아무데나 퍼더버리고 앉아 제각기 생각들을 굴리고있었다. 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수송관을 보내달라는 기별이 왔다면서?》

《뭐라구?》

《정말 이거 속이 타누만.》

가슴을 두드리며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목새기지 못하고있었다.

치규는 더는 그 자리에 서있을수 없었다. 가슴속에 불이 이는듯했다. 목이 말랐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꿀꺼덕 꿀꺼덕 소리를 내면서 마구 물을 마셨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머리를 들여밀었다. 뒤통수가 시원하였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달아올랐다.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의 침울한 얼굴이 보인다. 그들이 모두 자기를 보는것만 같았다.

그는 저도모르게 외진 공원으로 걸어갔다. 벌써 선기가 났다. 낮에는 해빛이 따갑지만 밤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천덕천덕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행나무잎들이 비바람에 흩날리고있었다.

똥고나갈길이 없단말인가?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철도와 자동차, 선박의 현대수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3화수송을 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지 않으셨는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와 자동차, 선박의 현대수송을 강화하며 관수송, 식도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며 치규는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할 우리가 아닌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인속에 살고있는 우리 혁명소조원들이 아닌가, 내가 신심을 잃고 이렇게 망설이는것을 아시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심려하시겠는가. 안된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한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일을 랑정히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부족한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의 눈앞에는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금 눈앞에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다! 신심을 잃고있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치규는 생각했다. 그는 급히 발길을 되돌렸다. 그러던 치규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눈앞 커다란 버드나무에 기대어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있었기때문이다. 소조원은 그에게 다가갔다.

《리기사동무 아니십니까?》

《네.》

《왜 여기 서있습니까?》

《속이...》

그도 무척 안타까운 모양이다. 치규는 몹시 싸늘해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사동지, 왜 비를 맞고 서있습니까? 감기 걸리면 어쩔려구요?》

그는 리기사를 잡아끌었다. 리기사는 말없이 그를 따라왔다.

《기사동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대담하게 일을 벌립시다.》

《?...》

《기사동지, 강판모서리가공기를 한대 만듭시다. 그러구 굴대식으로 원조절장치를 만들어붙입니다.》

치규는 이미 생각했던 문제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일이 점점 커지는군요.》

《일이 꼬일수록 쭈그러들것이 아니라 맞받아나가잔말입니다.》

치규는 기사의 두손을 마구 잡아흔들었다. 그의 정열에 타는 눈길에 불빛에 번뜩이는것을 기사는 보았다. 리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날밤 치규는 또다시 설계에 달라붙었다. 리기사도 함께 밤을 새웠다.

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였다. 함속에 잠깐 나갔다고 오겠다고 하던 치규가 이윽하여 바이올린을 안고 나타났다. 계산책을 놀리며 새로운 수자를 얻어내던 리기사가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연주를 하시렵니까?》

《좀 쉬고 합시다. 기사동지.》

《숨씨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허허허.》

《웬걸요. 전사시절에 좀 배우느라 했지요.》

대학에 오기전 군대에서 그는 바이올린 다루는법을 익혔던것이다. 바이올린을 턱밀어깨우에 올려놓고 치규는 《봉》 하고 활을 그었다. 리기사는 자못 흥미가 있다는듯 그에게로 돌아앉아 부드러운 눈매로 바이올린과 소조원을 번갈아바라보았다. 이윽하여 《빨찌산의 노래》 선율이 울리기 시작했다. 눈내리는 산밭을 타고 인민유격대원들이 원썩을 치러 가는 모습들을 눈앞에 그리며 치규는 힘있게 활을 움직였다. 리기사도 승엄한 감정에 사로잡혀 묵묵히 앉아있었다. 간주가 울리고 다시 선율반복으로 넘어갔을 때 리기사는 고개를 주억거리며 주먹을 부르짖었다. 연주가 끝나자 리기사는 마음이 거뻗해지고 기운이 솟음을 느꼈다.

《그렇게 훌륭한 숨씨를 가지고있는줄은 몰랐습니다. 한곡 더 타지 않겠습니까?》

리기사는 진심으로 간청했다.

《아니 이거 너무 얼려추는게 아닙니까?》

《원 무슨 말씀올. 음악이란 고상한것이지요. 그런데두 난 음악과는 멀리하고 살아오고있으니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요.》

치규는 다시 활을 잡았다. 《사향가》의 선율이 밤공기를 깨뜨리며 은은히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깊어가는 밤, 3층 설계실의 조그마한 방안에선 오래도록 바이올린의 선율이 울리고있었다.

치규는 관말기 굴대를 고안해내느라고 벌써 며칠째 조형장치결을 떠나지 않고있다. 밤이고 낮이고 그는 언제나와 같이 그저 한모양대로 그곳에 앉아 굴대들을 조절한다. 그 길이를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직경을 여러가지로 조절도 해보면서 합리적인 수치를 얻어내기애 여념이 없다.

리기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소조원동지, 좀 교대합시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며칠째입니까? 목석이 아닌이상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초소를 교대하겠습니까.》

빙긔 웃어보이고나서 치규는 다시 굴대계통들의 부족점을 찾기 위해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사람!...》

리기사는 더는 아무말도 못하고 묵묵히 그의 일손만 거들어주었다.

드디어 굴대장치의 결함을 발견하였다. 각도조절을 잘못된때문이었다. 그것을 퇴치하니 관의 원이 훌륭하게 보장되었다. 치규는 비로소 조정장치결에서 일어나 팔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다. 리기사가 달려왔다.

《됐다면서요? 야 정말!...》

그의 눈에는 물기가 번뜩이고있었다. 이럴 때 기계화직장에서 모서리가공기를 만들어왔다. 대머리 기사장이 자동차에 함께 타고왔다. 모자도 쓰지 않은채 맨머리바람으로 땀을 철철 흘리며 그는 기증기갈구리에 쇠바줄을 걸고있었다.

마지막 조립의 총 돌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구내방송이 힘있는 음악을 울려대는가 하면 중학교 녀학생들의 소고대가 북을 팡팡 두드려댔다. 숙보원은 새소식을 쓰느라 여념이 없다. 다른 직장에 파견된 혁명소조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그 직장 대표들과 함께 자기들이 맡은 부분의 마지막작업을 마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었다. 천정기중기가 설새없이 오가며 물동을 나르고 용접의 불꽃이 여기저기서 번뜩였다. 팽팽히 긴장된 가운데 전투는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드디어 모든 계통의 조립이 끝났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첫 수송관을 생산해냈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 만세!》를 부르며 환성을 올렸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수송관을 매만지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수송관 수압시험을 위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사람들은 긴장되어있었다. 수송관은 수백기압의 고압에 견디어야 한다. 견디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것이다.

수송관 첫 제품에 대한 수압시험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긴장을 가져다주었다. 커다란 관심속에 수압시험이 진행되었다.

치규가 수송관을 수압기에 물리고 막 발브를 틀어줘려 할 때였다. 리기사가 그에게 다가와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발브를 쥐어야 합니다.》

리기사의 두눈에 빛발치듯 번뜩이는것을 본 치규는 만류하지 않았다.

주위를 휘돌러보고나서 빙긔 웃어보인 리기사는 드디어 스위치를 넣고 발브를 돌렸다. 수압기의 전동기가 아츠럽게 소리지르며 돌아갔다. 수압계의 바늘이 파르르 뒸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두의 눈길엔 긴장이 어렸다.

치규는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옥죄이며 수압계의 바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있다. 바늘이 한눈금 한눈금 힘겹게 올라간다. 그럴수록 전동기는 더욱 웅을 쓰며 부르르 뒸다. 조금만 더! 그러면 된다!

바로 이때였다. 바늘이 파들파들 떨더니 갑자기 아래로 꺾 내려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바킹!》하고 소리치며 리기사가 관모서리로 나는듯 달려가는것을 치규는 보았다. 《앗! 위험!》 번개치듯 뇌리를 치는 생각과 함께 치규는 뺨 몸을 날렸다. 리기사를 덮쳐눌렀다. 그리고는 자기가 바킹조임대를 돌리려고 벌떡 일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썩!》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솟구쳐올랐다. 안전울타리벽에 부딪친 그 결줄기가 치규의 아래도리를 후려쳤다. 치규는 거대한 물힘을 못이겨 콩크리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하나 다시금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바킹조임나사를 힘껏 돌렸다. 리기사가 달려왔고 주위에 모여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바킹을 죄었다. 드디어 사납던 물줄기가 멎었다.

《소조원동지!》

사람들이 치규에게 달려왔다. 침대에 누워 안정하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물리치며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어서 실험을 끝내구 어버이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보고를 올립시다. 수령님께선 크게 기뻐하실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에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얼마나 불타는 충성심을 안은 혁명의 새세대인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울리기 위해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새세대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사람들은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리기사의 두눈엔 물기가 번뜩이고있었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문채 감동에 젖은 눈길로 소조원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자 또 스위치를 넣읍시다.》

치규가 그에게로 다가서며 이렇게 나직이 권고해서야 그는 정신이 든듯 발브앞으로 걸어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수송관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공장정문으로 빠져나가고있었다. 종업원들이 길좌우에 서서 꽃다발을 흔들며 차행렬을 배려주고있었다. 노래소리, 《만세!》의 환호성이 구내에 메아리치고있었다.

3대혁명소조원 김치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웃기를 여미고 조용히 보단편소설

고를 올렸다.
《어버이수령님, 수송관은 넘려마십시오.》

세전사

김삼복

1

여름날 밀림속의 달밤은 신비스러운만큼 고요하였다. 이따금씩 별들이 총총한 하늘에 튀어오르는 빨강고 푸른 신흥탄들과 어데선가 들려오는 둔중한 포소리와 성급한 소총소리도 자연의 어마어마한 적막속에서는 무기력한듯, 심연처럼 컴컴한 골짜기들과 이슬에 젖은 가둬나무들이 달빛아래 번들거리는 수림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기관단총을 멘 두 병사가 해묵은 락엽을 밟으며 애어린 싸리나무들에 군복을 슬치며 군데군데 박혀있는 바위들을 에돌면서 교묘한 달빛이 나무잎새로 흘러드는 수림속을 걸어가고있었다. 앞선 사람은 상등병이고 뒤따르는 사람은 전사였다. 상등병은 중기에 어깨가 넓고 단단하게 생겼다. 전사는 키가 컸으나 몸매가 호리호리하여 앞선 사람보다 이상하게 작아보이였다. 상등병은 넘적한 얼굴에 입이며 코며 눈이 큼직큼직하게 자리잡고있어 사내다운 묵직한 인상을 주었다. 번쩍거리는 눈과 꼭 닫긴 입은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였다. 전사는 곱살한 눈과 오똑한 코와 귀여운 입과 보동보동한 턱 등이 잘 조화되어있었으나 어딘가 완성감과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사내가 처녀다운 인상을 주는데서 오는 느낌이었다. 그의 이름은 리준호였고 나이는 아직 스무살도 되지 못했다. 리성보다 감정이 우세하고 생각하기보다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복잡한 단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생활을 랑만적인 노을빛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나이의 청년이었다. 그는 아직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죽음이란 그와는 관계없는 무의미한것이였다.

리준호는 답답할 정도로 조용하고 푸르스름한 달빛이 가득한 꿈속같은 수림속을 입이 무거운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것이 괴로울 지경이었다. 그 무슨 정황이나 나타났으면 하는 소년다운 심리가 머리를 쳐든것은 이때문이었다. 그는 같은 환경과 같은 동작과 같은 생각을 지속하는것을 참아내기 힘들어했다. 변화무쌍한 전쟁관은 그의 이런 성미에 맞는 생

활무대였다. 리준호는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있을 수 있는 앞서가는 상등병-박창기에 대하여 놀랍게 생각하는것이였다.

리준호는 중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측에 속했다. 누구나 그를 사랑했고 귀여워했다. 그런데 이것은 리준호에게 커다란 불만을 주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자기를 결코 어리다고 생각지 않았으며 나이든 전사들과 동격에서 말하고 웃고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리준호가 말을 할라치면 모두 웃으며 바라보는데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대성 비슷한 무엇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인차 덤비면서 단편적인 압축된 몇마디 말을 하고는 얼굴을 붉히고 입을 다물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는 침착하게 길게 묘사할줄 몰랐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줄 몰랐다. 그에게는 자기 생활체험이 없었다.

그런데 박창기상등병에 대한 병사대중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는 말이 드문 사람이였으나 힘겨운 행군뒤의 휴식시간이 되어 전사들이 나무밑등에 기대여앉아 구수한 담배를 붙여물거나 풀벌레 우는 풀숲에 배낭을 메고 누워 별빛이 수없이 반짝이는 광막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풀잎을 씹으며 고향생각을 할 때면 간혹 입을 열군하는데,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리준호가 보건대 지루할 정도로 처지고 비약이 없는 긴 이야기를 전사들은 자못 심중한 표정을 하거나 두눈을 반짝이며 정신없이 듣는것이였다. 매 전사들의 속심을 손금보듯한다는 능구렁이 같은 부소대장도 그 정신없이 듣는 청중속에 끼여있군했다. 그들은 박창기를 존경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 그렇지만 리준호는 말이 적고 심중한 그의 성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어떤 무게를 느끼면서 그가 두렵기까지 했다. 그와 함께 있다면 우선 겁잡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는 그의 사랑스러워하는 눈길은 준호에게 오히려 모욕감을 주었다.

그들은 지금 중대장의 명령으로 우연하게도 함께

린접구분대에 연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길이였다. 스틱스적 앞서 걷고있는 박창기의 넓은 어깨 위에서 흔들거리는 기관단총의 총탁과 팔꿈치로 옆구리에 눌러붙인 등근 탄창과 그리고 표정없는 그의 뒤통리를 바라보면서 리준호는 며칠전에 그에게서 뜻밖에 나타났던 새로운 성격적측면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돌아켜보았다.

그날 부소대장이 싱글벙글 웃으며 후방에서 온 편지들을 나누어주었는데 박창기에게도 한통 차례였다. 리준호는 그 봉투뒤면에서 《남순화》라는 여자이름을 엿볼수 있었다. 박창기는 편지를 받아 슬그머니 천막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조금뒤 준호가 무슨 일때문에 무심히 천막안에 들어갔다가 머리를 수그리고 편지를 열심히 읽고있는 그를 보게 되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준호에게 얼굴을 돌렸는데 예리한 강철처럼 번쩍이던 그의 눈과 얼굴 전체에서 말할수 없이 부드러운 표정을 보게 된 준호는 놀래었다. 그 뿌연게 안개낀듯한 눈은 준호를 보고있는것이 아니라 어딘가 먼곳에 있는 남순화를 보고있었고 꼭 닫겨있던 입기가 약간 벙글사해진것은 그 처녀에게 보내는 미소의 여운이였다. 준호는 무슨 죄라도 지은듯하여 얼른 나와버렸다. 그때 일을 생각하자니 지금도 우스웠다. 그리고 그 일을 물어보고싶은 호기심이 못견디게 치밀었다.

《상등병동지!》 하고 준호는 박창기의 뒤에 바싹 다가서며 마침내 말을 꺼냈다.

《한가지 물어봐도 좋습니까!》

박창기는 걸어가며 뒤를 피뚱 돌아보았다.

《그 처녀가 누구니까. 편지를 보낸?...》

《응?》

창기는 마치 놀라기라도 하듯이 다시 뒤를 돌아보더니 《허...》 하고 미묘한 웃음을 던졌다. 그리고 여전히 말없이 스틱스적 걸어갔다. 나무그늘이 던지는 아롱다롱한 달빛무늬가 그의 군모며 등에서 끊임없이 흔들거리며 흘러갔다.

때로 사람들의 생각은 일부러 그러하듯 신통히 똑같이 진행되는 수가 있다. 지금 이 두 병사의 생각이 그러하였다. 박창기도 천막안에서 편지를 보다가 리준호에게 들켰던 일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던 차에 준호가 편지의 입자에 대하여 물었기때문에 야릇한 웃음을 지었던것이다.

그렇다, 달밝은 이 밤, 죽음과 삶이 희롱하는 이 전쟁마당에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달밤을 걸어가

며 박창기는 남순화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기관단총의 부혁을 억세게 틀어쥐고...

2

남순화는 아련하고 순박하고 마음어진 농촌처녀였다. 철도기관구로동자와 농촌처녀의 인연은 우습게 맺어졌다. 그 어느 일요일날 기관구로동자들이 농촌에 모내기를 도와주려고 나갔을 때에 창기는 순화를 알게 되었다. 순화는 모내기명수였다. 저고리소매를 팔굽이 드러나도록 걷어올리고 치마를 하얀 무릎우로 올라오게 졸라매입고 허리를 굽히고 채봉기바늘처럼 모를 꽃아나가는 처녀의 얼굴에서는 해별을 피하여 깊숙이 쓴 흰삼각건필모로 귀여운 입과 홍조 띤 뺨이 보일뿐 좀처럼 눈을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 눈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본것으로 되지 않는다. 지게로 모를 저다가 논판에 뿌려주는 일을 하고있던 창기는 그 처녀의 모꽃는 솜씨가 하도 황홀해서 한참씩 서서 바라보군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그 처녀가 허리를 펴고 이마에 튀여오른 물방울을 팔굽으로 씻느라고 얼굴을 들었다. 처녀는 그러면서 어째서인지 창기를 슬쩍 바라보았는데 그 순진하고 아름다운 눈매는 박창기의 녀를 훌쩍 집어삼키고말았다. (그것참, 기막히게 예쁘구나!) 하고 창기는 탄복하여 속으로 중얼거렸다.

점심시간에 창기는 그늘을 찾아 달구지밑에 나뉘를 펴고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가 소방울소리에 놀라 깨여났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그 처녀가 황소고삐를 쥐고 얼굴을 붉히고 서있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들처럼 머리수건을 쓰지 않은 긴 외태머리에 날씬한 몸매 그대로였다. 뺨이 힘있게 뻗친 황소는 이 아련한 처녀를 건드리기만 하면 금시에 달려들듯이 눈을 부릅뜨고 창기를 바라보았다. 뒤에 황소가 호위병처럼 서있어서 그런지 처녀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느껴졌다. 그런데 그것은 창기의 생각이였고 처녀는 청년의 잠을 깨우게 되어 몹시 미안해하며 《달구지를 메워야 하겠는데...》 하고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창기는 달구지 그늘밑에서 나뉘를 끌어내고 채를 들어주기까지 했다. 어서 황소를 달구지채밑에 몰아넣으라고, 그런데 처녀는 머뭇머뭇하더니

《그냥 봐두세요.》 하고 말했다.

영문을 몰라 채를 땅에 내려놓자 처녀는 황소를 채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다음에 채를 들어주어 황소는 스스로 멍에밑에 목을 들이밀었다.

《아, 그렇게 하는구만!》 창기는 열적게 웃었다.

처녀의 귀여운 입술에도 알릴듯말듯한 미소가 어렸다. 처녀는 숨씨있게 고삐를 황소의 목과 멍에에 휘감았다. 그리고 《이라!》 하고 고삐를 채며 청아한 목소리로 소를 몰았다. 나긋나긋한 처녀의 손에 이끌리어 황소는 방울을 절렁절렁 울리면서 꼬리를 즐겁게 휘휘 내두르며 굼뜨게 걸어갔다. 창기는 그 뒤모습을 바라보며 이윽히 그자리에 서있었다.

오후작업은 그 처녀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진행되었다. 이날 창기는 처녀의 이름을 알았을뿐이었다.

다음 일요일에는 다른 마을에 갔었다. 그래 순화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순화가 일 잘하는 열성민청원이라는 소문이 떠돌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창기는 순화를 만나고싶었으나 그 뜻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새 봄도 가고 여름도 갔다.

공화국창건 한뫼이 되는 작년 9월 9일 명절날이었다. 청진시의 거리거리는 공화국기발이 나뭇기고 명절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옷은 얼굴들이 해월에 번쩍이었다. 기관구의 총각들도 기름문은 작업복들을 벗고 빨아서 풀을 먹여 잘 다림질한 수수한 면직옷들을 입고 공연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돌아다녔다. 농촌사람들도 수많이 끌어들어와 어디 가나 사람천지였다. 잘 먹고 잘 놀고 지쳐서 해질녘에 홀로 집으로 돌아가던 박창기는 한때거리의 농촌처녀들을 공원앞에서 만났다. 공연히 떠들썩한 촌처녀들, 그 색이 진한 화려한 차림으로 하여 더욱 촌티가 나는 처녀들이 재잘거리며 그의 옆을 지나갈 때 창기는 그 일행중의 한 처녀가 이상하게 다른 처녀들의 어깨뒤로 숨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는것을 결눈으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남순화였다! 창기가 놀라 멈추어서는 순간 그들의 눈길이 부딪쳤다. 순진하고 아름다운 눈-창기의 가슴속 깊이 박힌 그 눈은 모내기철에 무심히 자기를 보던 그 평범한 눈이 아니었다!

순화는 눈길을 황황히 피하였다. 처녀들은 순식간에 그를 지나쳐버렸다. 몸매 날씬한 외태머리 남순화도 고개를 수긋하고 그 일행과 함께 지나가버렸다. 그런데 순화는 처녀들에게서 한두걸음 뒤졌다가 급작스레 따라잡는것이 기운을 잃고 지친듯해 보였다.

창기는 그 어떤 뜨거운 충격을 받고 마주오는 사람들과 부딪치며 뛰어갔다.

《순화동무!》 하고 그는 웨쳤다.

《안녕하오? 나를 모르겠소?》

《아이 참!》 뒤로 돌아선 처녀는 자기의 두손을 맞잡아쥐고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다른 처녀들은 놀란 눈으로 두사람을 바라보더니 알만하다는듯 와 떠들면서 날가리에서 날아나는 참새떼처럼 달아나버렸다. 순화는 멀어져가는 자기 동무들을 돌아보았으나 따라가지는 않았다.

《잘 있었소?》

창기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살뜰하게 물었다.

《네.》 처녀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처녀는 창기를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창기는 왜 그런지 그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할 말들이 많은 두 사람은 공원의 긴 나무의자우에 나란히 앉았다.

창기는 새삼스럽게 순화를 바라보았다. 수긋하게 숙인 머리의 흰 가리마, 윤기가 철철 흐르는 목직한 머리태, 그끝에 매달린 숯불처럼 빨간 댕기, 좁고 동그스름하고 연한 어깨를 감싼 눈부신 옥당목저고리, 이른봄에 피는 연분홍진달래빛 치마, 자그마하고 통통한 발에 신은 고무신... 창기는 이 순결한 처녀가 아주 가까운 벗으로 누이동생처럼 생각되고 그들사이에는 벌써 많은 말들이 오고간것 같았다. 그래 나란히 앉기는 했어도 긴 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그러했음에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따스하고 즐거웠다. 순화역시 창기와 함께 있는것에 웅색함을 느끼지 않고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어도 순간순간 마주치는 눈길에서 그것을 서로 이해하였다.

어둠이 깃들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순결한 두 벗은 거리를 걸어다녔다. 어느 시계방앞을 지나갈 때 무심히 시계를 쳐다보던 순화가 먼저 현실로 돌아왔다.

《벌써 아홉시가 돼가는군요. 아이 어찌나!》

《어째 그러우?》

《집엘 어떻게 가겠어요! 난 밤길을 혼자 무서워서 걸어가지 못해요. 동무들도 다 가고...》

처녀가 당황해서 울상을 하고있을 때 창기는 가슴 한가득 넘쳐나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것은 비로

소 처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그런 일이 생겼기때문에.

《나는 동무가 아니요? 내 주먹은 든든하고 어깨는 넓소. 집앞까지 바래다주지 않으리.》

《그럼… 올 때는 혼자 오게요?》

《왜 혼자겠소? 도깨비나 귀신하구 동무해 오지.》

《어마나…》

처녀는 창기의 번쩍이는 눈과 꼭 닫긴 입을 바라보며 마음을 푹 놓았다.

3

박창기상등병과 리준호전사는 여전히 침묵속에서 걸었다. 리준호는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창기상등병이 대답대신에 《허…》하고 미묘한 웃음을 지음으로 하여 말보다 더 많은 뜻을 이해할수 있었다.

크지 않은 구름이 달을 삼켜버렸다. 그러자 수림속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수 없게 되었다. 리준호는 어둠속에서 락엽밟는 소리와 가독나무잎에 군복이 슬치는 소리를 듣고서 겨우 박창기가 가는 방향을 알수 있었다. 어둠은 오래가지 못했다. 골짜기 건너편 산등성이에 광명이 비끼더니 점차 골짜기로 수림으로 넓어져갔다. 그러자 또다시 푸르스름하고 꿈속같은 달빛이 천지에 가득쳤다....

그 밤도, 한가위가 가까운 9월의 그 농촌길의 밤도 이처럼 둥근달이 구름속에 잠겼다 나왔다 하면서 알알이 터지게 익은 벼와 수수와 강냉이들이 풍기는 구수한 냄새 가득한 들에서 신비로운 광명과 어둠의 검은 나라가 서로 싸우고있었다.

창기와 순화는 서로 자기들이 살아온 형편을 이야기하며 이 꿈속같은 밤길이 끝없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창기는 기관구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소년로동자로 기관구에서 일을 시작한 창기는 해방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시작했다.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기술도 배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창기와 같은 로동자들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로동자들이 우리 나라를 떠받들고 건설하여야 하였다. 창기는 밤낮을 모르고 기름에 절여가지고 일했다. 그래도 힘든줄을 몰랐다. 창기는 자기의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것은 조선의 아름다운 미

래와 결부된 포부였다.

순화는 기관구의 이름없는 한 젊은 로동자가 그처럼 황홀한 희망을 안고있는데 놀랐다. 순화도 이야기를 하였다. 순화는 어릴 때부터 지주집에서 늑도록 머슴살이를 해오던 아버지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분여받고 순화와 함께 밭머리에서 기쁨의 눈물로 밤을 지새던 이야기를 하였다. 고생끝에 너무 일찌기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또 울었다. 순화는 머슴군아버지의 눈물마저 말라버린 품속에서 쓸쓸하게 자랐던것이다.

(아, 불쌍하게 자란 순화, 다시는 그런 세상이 오지 못한다. 우리 로동계급이 너를 지켜주마!)

순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기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해방된 기쁨, 땅을 분여받은 행복, 이속에서 아버지의 주름잡힌 얼굴에 웃음이 피고 순화의 연약한 몸도 처녀로 활짝 피어났다. 아버지가 첫째 농사를 잘 지어 옥백미를 나라에 애국미로 바치러 갈 때 순화도 방울소리 왈랑질랑 울리는 소달구지를 따라 읍까지 갔었다.

그 달구지길로 지금 순화는 창기와 함께 걸어가 고있다. 모래가 깔려 달빛아래 희게 보이는 구불구불한 길... 길옆에는 메밀꽃들이 하얗게 피어있어 두 사람은 꽃밭속을 걸어가고있는듯하였다. 습기를 머금은 싱그럽고 훈훈한 바람이 고요하고 넓은 들, 야산에 둘러싸인 우그러든 들에 불어왔다. 강냉이잎들이 조용히 설렁이고 흩어진 구름들이 창창한 밤하늘로 빨리 날아지나갔다.

《비가 오지 않을까? 습기찬 바람이 불어오는구만!》

창기가 물었다.

처녀는 생글 웃으며

《바람이 따스하지요? 비가 올 바람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다.

달구지길은 개울을 건느게 되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외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창기가 먼저 다리를 건너가다가 돌아서서 뒤따르는 순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순화는 말없이 손을 주었다. 그들은 따스한 정이 오고가는 손을 잡고 외나무다리를 건넜다.

외나무다리를 건너 창기와 순화는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달빛아래 명주필처럼 펼쳐진 달구지길

로 계속 걸어갔다...

금년초에 창기는 공장민청조직의 추천으로 영예로운 조선인민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정거장에서 부모와 동무들과 헤어질 때 순화도 나와있었다. 순화는 창기와 둘이 만나는 기회가 생기자 서운해하는 빛을 감추지 못했다.

창기는 순화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본듯 낮으나 힘있게 말을 꺼냈다.

《순화동무, 우리의 행복을, 순화와 아버지의 행복을 배아파하며 빼앗으려고 원썬들이 날뛰고있소. 왜놈을 대신해서 미국놈이말이요! 조국은 청년들을 조국보위에 부르고있소 ...원썬놈들만 아니라면, 정말 희망껏 일해보고싶소. 나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듣는것이 제일 좋소. 기적소리는 기관차가 멈지 않고 달린다는 소리이고 조선이 미래에로 달려간다는 소리요!》

창기의 말을 듣는 순화의 눈에는 갑자기 눈물이 펴고이는것이였다.

《어째 그러오?》 창기가 눈섭을 찡그리며 물었다.

《곧세게 살아야 하오.》

순화는 애정이 담긴 눈으로 창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다 알아요. 편지를 자주 하지요?》

《매달 하겠소.》

더 할 말이 없었다. 창기는 부모들에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기차는 청진역을 떠나 기운차게 내달렸다. 순화의 모습은 멀리서 아물거리다가 아주 사라져버렸다.

창기는 매달 편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몇번 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창기는 미처 편지 쓸새도 없이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달렸다. 그렇지만 생각은 언제나 기관차와 벗들과 특히 순화에게 가있었다. 그는 《기적소리》를 늘 마음속에 들고있었던것이다.

그러던차에 순화에게서 편지가 왔다. 전쟁이 일어나서 첫 편지였다. 그 편지에서 창기는 변천된 준엄한 환경에 따르는 그 처녀의 정신적인 변화를 읽게 되었다. 창기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컸다.

그 감정이 지내 얼굴에 나타나서 리준호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으리라.

4

《저게 뭘니까, 상등병동지?》

뒤따라오던 준호가 성급하게 속삭이며 창기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주위를 예리하게 살피고있던 창기도 그것을 보았다. 깊은 골짜기가 무시무시하게 내려다보이는 오른쪽의 가파로운 산릉선에서 달빛에 번쩍거리는 철갑모들이 우물거리고있었던것이다.

두 병사는 허리를 낮추고 살펴보았다. 적들이였다. 그것도 한두놈이 아니라 수십명을 헤아리는 집단이였다. 먼저 룡선에 오른놈들은 달빛을 피하여 컴컴한 수림속에 집결하고있었고 한편 골짜기 밑에서 철갑모들이 계속 우줄우줄 올라오고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아군이 차지한 고지의 후면이였다. 패주하던 적들은 아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을 제이해보려고 전선중부의 X×계선에 완강한 방어진을 펴놓았다. 그래서 인민군부대들은 현재 차지한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분쇄하고 남으로 계속 진격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 박창기와 리준호의 연락임무도 그를 위한 하나의 자그마한 세부였다. 적들도 가만있지 않고 반공격을 시도해왔다. 지금 아군의 고지후면에 나타난 적의 무리들은 이 반공격을 위한 그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는것이 뻔했다. 이놈들을 그냥 둔다면 아군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게 된다. 그것은 벌써 현실적인 위협성으로 눈앞에 다가왔다. 놈들이 포위환을 편 다음 하늘에 신호탄을 쏘올리면 반공격이 개시될수 있었다. 그러고보면 정황은 급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따라서 적들로서는 성공적인 진출이였다.

박창기는 이러한 정황을 몇초사이에 판단하였다. 빨리 아군에게 알려 적들의 기도를 좌절시켜야 했다.

《절커덕!》

어느새 리준호가 격발기를 당겼다 놓으며 앞으로 나가고있었다.

《준호, 셋!》

창기는 그를 따라가서 어깨를 잡아챘다. 준호의 입술이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백명에 가까운 적의 큰 무리와 불의에 조우한 나어린 전사는 몹시 흥분하여 분별없이 돌진하려고 했던것이다.

《왜 명령없이 움직ियो?》

창기는 뻔뻔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놈들이 이제... 아군의 뒤통수를...》

《침착하오, 준호동무! 적은 백놈이고 우리는 둘

이요.》

《예?》

준호는 진정 놀라왔다. 상등병이 겁먹은게 아닌가?...

《우리 둘이서는 막아내지 못하오.》

창기의 낮은 음성이 다시 들려오자 준호는 비로소 사태의 엄중성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총가목을 천 손이 떨리고있는것이 무엇때문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리준호는 창기의 번쩍거리는 눈과 꼭 닫긴 입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어찌자는건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 이럴 때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것이 아닌가...)

《중요한것은 빨리 부대에 알리는거요.》

마침내 무슨 결심이 내려진듯 창기는 준호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요. 리준호동무! 최대의 속력으로 중대에 달려가야 하겠소. 연락임무수행정형도 보고하고 이 정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오. 어서 떠나오! 시간이 한초가 새롭소!》

결심이 내려지자 오히려 박창기쪽에서 더 서두르는것이였다. 리준호는 박창기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알수 있었다. 그런데 벌써 창기가 준호의 생각을 넘겨짚으며 성급히 독촉했다.

《여기 걱정은 말고 빨리 떠나오!》

《상등병동지! 저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싸웁시다.》

준호는 애원하다싶이 말했다.

《중대에 알려야 하오.》

창기는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여기서 총소리가 나면 중대에서도 알게 아닙니까?》

《물론 알수 있소. 그러나 중대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오. 그리고 여기에는 두명 있으나 한명 있으나 같소.》

《그럼 제가 남겠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마지막 희망이였다. 그러자 창기는 준호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명령을 집행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하고-

《그럼... 명령대로 갔다오겠습니다.》 하고 리준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때까지 견지해주십시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접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절절하게 울리였다. 창기는 그가 한없이 고마왔다. 그를 힘껏 껴안아주고싶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접전하겠소. 준호, 다시 만나세! 꼭 오라구!》

순식간에 참나무숲속으로 사라졌던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수류탄과 기관단총을 창기에게 내밀었다.

《고맙소. 그러나 총은 가져가오. 탄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자 준호는 탄창을 떼어놓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박창기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달려가는 준호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것은 최악이 경우까지도 결심한 사람의 뜨거운 웃음이었다. (친구, 우리는 다시 못만날수도 있네... 친구는 훌륭한 군인이 될거야!) 그는 준호가 남기고 간 수류탄을 차고 탄창을 품에 넣었다.

그제야 박창기는 잊어버렸던 달빛을 느꼈다. 아름다운 달밤이다! 남순화의 수집계 상국이 웃는 아련한 얼굴이 눈앞에 환하게 나타났다. 창기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러자 순화는 좀 작아지면서 애국미를 싣고가는 소달구지뒤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웃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다시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창기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하는것이였다.

《창기동무, 원썬놈들을 한결음도 이 땅에 들어놓지 마세요! 원썬들을 무찌르고 꼭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저도 창기동무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겠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설을 받들고 쫓기한 우리 후방에서도 밤낮없이 바쁘답니다. 이제 밤길도 혼자서 걸어다녀요. 밤 열두시 넘어 집에 올 때가 많아요.》

순화가 보낸 편지의 구절이였다.

창기는 그 어떤 숭엄한 감정과 커다란 힘에 이끌리며 기관단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말 그대로 혼자서 백놈을 당해내야 하는 접전장으로 힘있게 걸음을 내디디었다.

5

리준호는 수림을 벗어나자 애기술밭에 들어섰다. 군복바지가랭이가 나무가지에 걸려 찢어지고 허궁을 잘못 짚고 두번이나 앞으로 꺼꾸러졌다가 일어나는바람에 무릎이 벗겨지고 이마가 퍼렇게 부어올랐으나 그는 그런것을 알지 못했다. 귀부리에서는 바람이 잉잉거리고 목은 타들었다. 뒤에서 아직 총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것은 준호를 고무하였고 더

빨리 달리도록 재촉했다.

애기술발을 달려 계곡에 이른 준호는 개울에 들어섰다. 개울은 놀라서 울부짖으며 사방에 물방울을 튕기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꺾고 물속에 주저앉았다. 그는 다시 솟구쳐 일어나 개울을 건느고 모래가 깔린 개울가를 지나 다시 잡판목이 우거진 산비탈 숲속에 울러붙었다. 비오듯하는 땀은 눈을 뜰수 없게 하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하고 열에 뜬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달렸다. 중대부가 멀지 않았다. 소리치려고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때 뒤에서 《뚜루룩… 뚜루룩…》 하는 따발총 소리가 터졌다. 그 총소리는 준호의 뒤덜미를 잡아당겼다. 그는 피득 돌아섰다. 입을 꼭 다물고 철갑모들이 우글거리는 적의 무리속에 뛰어드는 박창기의 모습이 떠올랐다. 준호는 자기도모르게 그쪽으로 달려가려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를 의식하고 깜짝 놀라며 뒤로 돌아서서 고지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중대장을 어렴풋이 알아보았다. 기억에 남는것은 의혹에 찬 그의 큰 눈이었다. 준호는 무엇을 말했는지 알지 못했다. 나무가지에 굽히여 얼굴이 찢기고 피가 엉켜붙은 나 어린 전사 리준호는 보고를 마치기 바쁘게 정신을 잃었던것이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한개소대가 출발하고있었다. 《준호, 다시 만나세. 꼭 오라구!》 하던 창기상등병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리고 《뚜루룩…》 하는 기관단총의 소리와 탄사하는 적의 총소리, 수류탄 튀는 소리… 무슨 힘이 그를 일으켜세웠던가. 리준호는 소대와 함께 일생에 처음으로 달려본 그 험하고 먼 산길을 다시 되짚어 달려갔다. 이번에는 더 빨리 달렸다. 이번에는 뒤가 아니라 앞에 박창기가 있었고 달릴수록 그가 가까와졌다. 총소리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견지하시오!》 준호는 이렇게 열에 뜬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소대는 산개되어 달려드는 적들과 조우하였다. 창기의 따발총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것을 보아서 적들이 그를 지나서 달려든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창기는 총탄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희생되었는지 알길 없었다. 준호는 눈에서 불이 일었다. 만탄창 된 새 탄창을 끼운 기관단총은 사납게 울부짖었다. 이미 박창기에 의해서 적지 않게 손실을 당한 적들은 소대원들의 화력앞에서 혼비백산하며 이리 물리고

저리 흩어지며 련이어 쓰러졌다. 소대원들은 돌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총창으로 찌르고 총탄으로 까놓았다.

이슬에 젖어 달빛아래 번들거리던 가독나무잎들은 총탄에 찢기고 어지럽게 흩어졌다. 고요한 침묵속에 잠겨있던 수림은 귀를 멍멍하게 하는 총성에 놀라 부르르 떨었고 매캐한 화약내가 가득찼다.

놈들을 요정낸 준호와 전우들은 창기를 찾아 수림속을 더듬었다.

박창기는 큰 바위에 의지하여 앉아있었다. 준호는 《창기동지!》 하고 눈물에 겨워 웨치며 달려가서 그를 와락 껴안았다.

《여기 있었군요! 우리 소대가 왔습니다!》

박창기상등병은 응답이 없었다. 오른손에 틀어진 기관단총이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땅에 넘어졌다. 리준호는 창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반쯤 떠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눈동자에는 달빛이 어려있었다.

………

리준호는 기관단총을 어깨에 메고 다시 신비스러운 고요속에 잠긴 수림속을 걸어가고있었다. 소대와 함께 중대로 돌아오는길이다. 그러나 준호는 달빛도, 바지가랭이에 슬치는 가랑나무잎도, 수림의 고요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입을 꼭 다물고 말없이 스택스적 걸었다. 오직 가슴속만이 끓어번지고있었다. 박창기의 영웅적희생은 준호가 처음으로 당한 전우의 죽음이였다. 준호는 처음으로 사나이다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창기라는 사람이 이처럼 귀중한 동지로 자기의 가슴속에 깊이 남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말이 없는 사람, 처녀에게서 편지를 받고 희열에 넘쳐있던 사람, 그는 준엄한 시각이 다가오자 서슴없이 동지를 위하여 중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결전장으로 나아갔다.

(고결한 전우여!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다한 동지의 높은 뜻과 영웅적인 행동과 고귀한 희생정신은 헛된것이 아니다. 동지는 나의 모범으로 되었다! 우리는 복수의 총창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원썩적멸의 길로, 남해끝까지 달려갈것이다!)

준호는 이처럼 맹세하였다.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는 광막한 밤하늘에 붉은 신호탄이 올랐다. 중대는 대대, 련대와 함께 총공격으로 나아갔다. 적의 진지는 무너졌다. 대오는 원썩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며 남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싸움의 불비속에서 준엄한 시련을 넘으면서 리준호는 성장하여 상등병이 되고 분대장이 되었다. 곱살한 눈과 귀여운 입과 보통보통한 턱은 어디로 갔는가. 포연에 끄슬고 파편에 찢긴 거칠은 얼굴, 날카로운 눈, 꼭 닫힌 입... 사색이 깊어지고 입을 다문채 언제까지나 있을수 있는 무게있는 군인이 되었다. 1년 남짓한 전쟁의 나날을 거쳐 리준호는 준엄한 생활을 체험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있게 울리었다.

1951년도 저물어가는 추운 12월, 강산은 눈에 덮이고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고지를 탈취하는 치열한 공격전이 있는 어느날, 쟁취한 고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도착한 다른 구분대와 배비변경을 하고 제2계대로 들어와 대렬과 장비를 보충받던 그날밤, 몹시 추웠다!

달밤이었다. 창백한 달빛은 추위를 한층 더 느끼게 했다. 눈을 빠작빠작 밟으며 중대부로 가던 분대장 리준호는 전연에서 오는 담가대와 마주쳤다. 네명의 간호원들이 돌씩 짝을 지어 그 추위에도 흰 입김을 내뿜으며 먼길을 달려오고있었다. 맨앞에선 간호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었을 때 준호는 《동무들, 수고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되는 인사를 하였다. 나 어린 처녀들의 수고는 눈물겨운 것이었다. 간호원들은 그 인사에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준호는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길우에 서있었다. 모자에 성애가 하얗게 붙은 처녀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준호는 가슴이 뭉클하여 잠시 두눈을 감았다.

(장하오. 우리 누이들... 후날 사람들은 조선의 딸들이 가릴것절한 포화속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잊지 않을것ियो. 책으로도 씌여질것ियो!)

달빛아래 런대군의소로 달려가는 간호원들의 희미해지는 뒤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이렇게 혼자 말했다.

그는 뚜벅뚜벅 다시 걸어갔다.

중대부천막안에서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런대대렬참모가 웬 처녀간호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군관들과 하사관들은 일시에 묘령의 처녀군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단발머리를 하고 추위에 두볼이 빨갛게 익고 생기가 넘쳐나는 몸매 날씬한 처녀는 군인의 굳센 자세가 벌써 몸에 배고 군모며 군복이 미모에 잘 어울리었다.

대렬참모는 리준호를 눈으로 찾더니 《분대장동무를 꼭 만나야겠다고 해서 같이 왔소.》 이렇게 말하고 처녀에게 리준호를 소개했다.

《이 동무가 리준호분대장입니다.》

리준호는 서둘러 군복자락을 잡아 펴며 몸가짐을 바로하고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 역시 커다란 아름다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는데 처녀의 눈빛에서 무엇인가 절절한 감정을 읽게 된 준호는 저으기 당황하였다. 웬일인지 아까 만났던, 모자에 성애가 하얗게 붙고 입주위에 얼음이 덮인 간호원처녀들을 보았을 때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혹시 이 처녀가 그들중에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준호는 처녀군인과 함께 천막안에서 달밝은 밖으로 나왔다.

처녀가 한손으로 군복허리를 꼭 틀어쥐고 먼저 말을 했다.

《저는 분대장동지를 만나려고 벌써 몇달전부터 노력했습니다. ...50년 8월에 리준호동지가 써보낸 편지를 받고 인차 입대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있었으나 아주 또렷하게 울리었다.

그렇다. 이 처녀는 남순화였다!

준호는 딛고 선 땅이 흔들리는것 같았다. 그는 처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수가 없어 허공에 등실 떠있는 달을 쳐다보았다. 할말이 없었다.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뜻을 전하는 때가 있다. 이 두사람의 지금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다. 얼마후 순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창기동무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로동자였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원썬놈들만 아니었더라면 창기동무는 벌써 술한 기관차들을 정비해서 철길우로 달리게 했을것입니다. 창기동무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는 조선이 미래로 달려가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적소리를 멈추지 않으려고 그 동무는 자기의 청춘을 바친셈입니다. 창기동무는 쓰러졌지만 기적소리는 계속 울릴것입니다.》

순화는 얼굴을 들고 힘있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인가 강렬한 빛이 어려있었다.

리준호는 순화의 말을 들으며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렇다, 창기는 영생하고있다. 긴머리태를 잘라 단발머리를 하고 삶과 죽음이 희롱하는 결전장을 수없이 넘나드는 순화도, 짧은 기간이었으나 너무도 많은 생활을 체험해야 했던 스무살의 분대장 준호도 창기처럼 그 모든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와 청춘을 조선의 미래를 위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한없이 귀중하고 성스러운 조국을 위해

서슴없이 바친 이름없는 전사들이었다. 바로 이 전사들에 의하여 우리는 승리했고 조선은 전진했다.

수필

중대전투기록장을 펼치고

박창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굳건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일당백초병들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하여 분계선 초소를 찾았었다.

라디오에서 전투적음악이 울려퍼지는 초병시간, 나는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는 전사들을 찾아 구분대정치지도원동무와 함께 중대교양실에 들어섰다.

교양실에서는 특무장이 얼마전에 입대한 젊은 병사들과 함께 중대전투기록장을 보고있었다.

《전사들에게 중대가 걸어온 전투로정을 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

정치지도원동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신입대원들을 향해

《전투기록장을 보는 감상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중대에 대한 공지가 부족 높아집니다. 정말 이름없는 영웅들입니다. 신심이 생깁니다.》

젊은 병사들의 힘찬 대답에는 커다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나는 병사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전투기록장을 펼쳐나갔다.

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용감히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불멸의 위훈이 수놓아져있는 전투기록장.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태어나 그이의 현명한 령

도따라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뚫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빛나는 로정을 자랑하는 충성의 서사시-전투기록장.

후더워오는 마음을 안고 한장한장 번지는 전투기록장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피로써 조국을 보위한 슬기로운 전사들에 대한 영웅적이야기가 깃들어있었다.

그 많은 위훈중에서 나의 가슴을 몹시 격동시킨 것은 제1소대 전사들의 투쟁이야기였다.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인 1952년 여름, 제1소대 전사들은 한치한치의 땅을 지키며 가렬처절한 백열전을 벌리고있었다. 전사들에게는 싸우다 쓰러져 묻힐 땅은 있어도 원썬놈들의 발굽밑에 내어맡길 땅은 한치도 없었다.

적들이 우리 전호를 넘어서면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또다시 놈들의 노예가 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전사들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겨 난생처음 제땅에 씨를 묻고 제손으로 기계를 돌리며 행복을 노래하던 사랑하는 고향이 불타는 이 고지와 잇닿아있음을 스스로 자각한 전사들이었다.

온몸에 부상을 당하고 두눈마저 잃었지만 심장이 고동치는 한 고지를 떠날 권리가 없다고 하며 끝까지 소대를 지휘한 김덕훈소대장,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포연에 그슬린 바위에 《위대한 **김일성** 장군만세!》를 새기고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아 중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조선로동당원인 리재명분대장,

사랑하는 고향을 불바다로 만들고 안해와 귀여운 자식들을 생매장한 미제야수놈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지고 참가한 야간습격전투에서 놈들의 박격포를 열두문이나 까부시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장성진아바이전사,

전쟁이 승리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미래의

설계가가 되겠다던 그 희망도 귀중하였지만 그보다 사랑하는 조국이 더욱 귀중하였기에 수류탄뭉음을 안고 가증스러운 적 땅크를 맞받아나간 민철수꼬마전사...

자기가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자각하고 그를 위하여 판가리싸움에 목숨을 내댄 전사들의 그 신념, 그 의지를 꺾을 자 세상에 없었다.

김덕훈, 리재명, 장성진, 민철수... 수많은 전사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다.

그들은 영웅도 아니다. 그들의 이름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도 없다.

이름없는 영웅전사들!

그들은 그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던가. 자기들이 지켜선것이 다름아닌 사랑하는 조국땅이었기에 그들은 하나의 실개천, 하나의 자그마한 언덕을 놓고 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피어린 싸움을 벌렸다.

한치의 땅을 위하여 총창이 맞부딪쳐 불꽃이 튀는 치열한 육박전에 그들은 서슴없이 뛰어들어 총창이 휘고 총탄이 깨지도록 원썬놈들을 죽였다.

실로 이 나라의 크고작은 그 모든 봉우리마다에는 인민군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

그들은 결코 공명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준엄한 싸움에 목숨을 내댄것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이 그렇듯 귀중하였기에, 조국이 없이는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희망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도 없음을 자각한 전사들은 정의의 위업에 생명을 바침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길 줄 알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심장을 울리는 충성과 신념의 맹세를 안고 그길에 아껴둘 목숨, 아껴둘 청춘이 따로없이 피흘려싸운 그들이야말로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싸운 전사들이 어찌 이뿐이라. 중대전투기록장에조차 이름이 없는 수많은 무명의 전사들이 이들처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우지 않았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고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이런 전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승리하였다.

그 하나하나의 조약돌들이 레루를 받드는 피임돌이 되어 달리는 기차를 떠받들듯이 이렇듯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한 수많은 무명전사들에 떠받들리어 조국은 언제나 튼튼할것이다.

참으로 중대전투기록장은 이곳 중대가 걸어온 전투적으로정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인민군중대들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그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강철의 전투대오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위훈이 깔려있었다.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군은 오직 승리의 한길로 역세계 달려온 불패의 혁명무력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자란다.

하나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며 혁명의 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전화의 그날, 아버지가 싸우던 고지에 오늘은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총을 잡고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혁명의 무장은 오늘도 수백만의 가슴마다 빛나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군사파쑸악당의 가슴팍을 겨누는 우리의 총구는 순간도 드림이 없다.

1930년대의 항일혁명투사들이,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이 걸어간 충성의 그 길을 이어 오늘은 혁명의 계승자-우리의 일당백초병들이 걸음마다 영광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심장에 새긴 인민군전사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할 불타는 결의로 가득찬 전사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더운가, 사랑스러운가!

전투기록장의 마지막 장을 번졌으나 흥분의 파도는 여전히 가슴속에 설레이고있었다.

《동무네 중대는 정말 이름없는 영웅중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중대의 영예를 꼭 빛내이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전투기록장엔 더 큰 자랑이 기록될

겁니다. 그때 다시 꼭 와서 보십시오.》

전사들의 말에는 한없는 긍지와 필승의 신념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나는 미더운 전사들의 튼튼한 모습을 바라보며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대에 대한 필승불패의 힘과 용맹, 영광의 위훈을 가슴 가득히 느끼었다.

다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

리정기

너와 내 지금 그 어디에

서로 갈라져 서있는것이나

여기 미술박물관 한쪽의 그림앞에서

병사인 내 눈길 떼지 못하노라

람루한 해진 옷에 아이를 업고

파도사나운 남해가에 서있는

눈물 글썽한 소녀의 모습이여

한창 맘껏 뛰놀며 즐겨야 할 그 나이에

해당화 붉게 피는 바다가

일만도래굽이 백사장 그 어데 두고

너 지금 파도 음산한 기슭에 선것이나

먼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는것이나

소리쳐부르는 애처로운 네 목소리에

기슭을 치는 노한 파도만이 대답하는가

네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눈길

끝없이 가닿는 먼 수평선에는

아버지의 흰돛대신 밀려온다

침략의 검은 함선들과 낯설은 어선들이

땅도 바다도 어장도 빼앗긴 탓에

어머니, 아버지마저 잃은 소녀야

네 고향 남해가는 드넓은데

네가 서야 할곳

태풍과 파도사나운 기슭뿐이란말인가

볼수록 가슴이 탄다

동서남북 끝에서 끝까지

네 맘껏 활보하도록

온 삼천리를 지켜 병사가 서야 할곳

조국의 남단 바다가 기슭에 선

어린 소녀야, 애타는 네 목소리

나를 향해 끝없이 부르는것 같구나

아, 더는 참을수 없다

병사의 임무 다하지 못한 고통

너만이 아닌 온 남녘의 불행

나만이 아닌 온 민족의 고통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릴

천백배의 분노로 끓어번진다

통일의 광장에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실

영광의 그 시각에

다시 만나자, 남해가의 소녀야

미술박물관이 아닌 통일의 광장에서

소녀야, 네가 선 그곳에

남북의 옷은 얼굴들이 함께 서있으리라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아래 꽃필
너의 행복과 희망, 너의 보람과 안녕
온 조국땅의 모든것들을

너를 위해, 너와 같은 어린것들을 위해
통일된 조국은 안아 지켜주리라

전승의 밤, 철령을 넘어

김우협

하늘에선 별빛이
철탑에선 용점의 불빛이
어울려 쏟아지는 밤
한자한자 먹즙을 찍어가며
젊은 연공의 입당보증서를 쓰노라니

흘러간 생활의 불길속에
나의 입당보증을 서준
한 당원의 가장 빛나는 삶의 봉우리
철령이 머리 들어라.

3년세월 캄캄하던 거리와 마을에
꿈인듯 환희의 등불이 켜지고
온 강산이 전승의 기쁨에 잠 못 들던 그 밤
나는 쓰러진 전우의 당원증을 품고
철령 넘어 런대당위원회로 갔다

걸음 걸음
뜨거운 눈물이 밝히던 철령,
준엄한 전쟁의 불바다를 함께 헤쳐오다가
어찌하여 아, 어찌하여 전승의 밤길을
그는 나홀로 그렇게 걸게 했던가!

장마행군의 어려운 나날
꼬마인 내 배낭까지 메여다준 사람이여,
련사홀 미제침략자들이 악을 쓰며
거마리같이 고지에 달라붙을 때
탄약상자 받쳐놓고 내 입당보증서를 써준 사람이여,
불먼지 이는 적진속에 뛰어들어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돌격로를 연 당원이며,
죽음을 앞둔 순간 자신은 쓰러지면서도
나의 심장, 나의 피줄에
당의 숨결, 충성의 피줄을 이어주고 간 당원이며,

두고온 처자들과 불탄 고향집을 두고
그리고 당생활의 보람찬 길을 두고
한마디,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건만
그처럼 열렬하고 다감한 그의 음성,
영원히 살아 웃는 그의 얼굴인
인민의 환희로운 전승의 언덕을 어찌 잊으랴

아, 당원의 참된 삶은
인민의 행복을 지켜
조국의 영광의 봉우리를 지켜
그 행복, 그 영광 속에 영생하는게 아니냐!

내 비록 머리에 세월의 흰서리 내려
불타던 그 전호속을 떠나 멀리 있어도
연공이며, 너와 함께 하늘길에 올라
수난의 남녘을 부르며 강판을 누비던 나날
당원의 심장, 불붙는 마음의 전호속에선
그날의 그 폭음, 그 충성 멎은적 없고
피물은 전우의 당원증은 항시 가슴에 무거웠다.

시대앞에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입당보증서를 써가는 이 마음
내 만일 이제라도 조국이 부른다면
전승의 언덕에 그가 나를 세운것처럼
당원으로 한목숨 기꺼이 바쳐

은 강산이 통일의 기쁨에 울고 웃을
남해의 높은 언덕에 너를 세우고싶다

연풍이여, 나는 쓰노라
당의 뜨거운 숨결을 이어가노라,

시초

한자 또 한자
너와 나의 심장이 하나로 잇닿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에 충성의 맹세를 적
어가노라.

영웅고지에 깃든 노래

정렬

1211 고지는 말한다

천만 불기둥을 내뿜으며
미제원썹들을 가차없이 후려치던 봉우리
그 서리발을 어디다 감추고
그렇듯 지금은 조용하단말인가,
영웅의 산, 1211고지여!

전사들의 함성과 용맹이 나래치던
옛전호가엔 가렬한 싸움의 자취런듯
탄피, 파편들이 아직 발밑에 뜨거웁건만
그 어디나 정적이 깃들었어라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여울물소리도
여기서는 가까이 가려 들을수 있구나.

발아래 뺨어내린 산발들에는
점점이 나리꽃 하늘거려도
네가 즐기는 정서는 굶고 거세더라
말뼉같은 몽치구름 허리에 휘감고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뒤엎은
영웅전사들의 숨결을 모두어안은 봉우리
너는 웅심깊은 그날의 그 가슴을
함부로 열어보이지 않으며
구름우에 장엄히 머리 들었구나

천리를 살피며 말없는 너의 자태에서

타승해야 할 원썹을 눈앞에 두고
안으로 탕개를 조이는 너의 그 담력에서
나는 포화의 날보다 더 서리찬것을 보고있다
침묵속에 간직된 끓는 용암을 보고있다

깨아지른 절벽가 끝에서 끝까지
사방 더듬어보고 굽어보아도
하늘아래 웅장함과 장엄함이
여기에 다 모인듯
가슴 벅차올라라.

조선의 영광을 저 하늘가에 안아올린
멸적의 기상으로 예워싸인 봉우리
전호가의 흙 한줌 움켜쥐여도
불이 터져나올듯
승리의 함성으로 차있는 영웅의 고지여!

력사의 증견자, 반제전선의 보루로
누리에 조선의 존엄을 펼치며
1211고지는 세계에 말한다,
화산속에 용암이 끓고있듯이
미제를 재로 만들 억만 불줄기
이 정적속에 깃들여있다
만약 원썹들이 건드리기만 한다면
지심 깊이에서부터 침묵은 깨여지리라.

빛나는 삶

한치 한치 톺아가던 영웅의 숨결인듯
그날의 돌격로우에 철쭉꽃 떨기져 설레는 소리
사랑하는 전우를 위해

그가 탄피에 받던 맑은 이슬이 고인듯
푸른 잎새우에 방울방울 구슬이 빛나라

짧은 나이에
한생에도 못다이를 위훈을 세우며
영웅이 밟고 간 길지 않은 그 길,
나는 그날의 돌격로를 생각에 잠겨 걸으며
눈앞에 그려본다, 영생하는 삶을,
미제의 쇠붙이가 녹아내린 바로 그 지점에서

총을 메고 교정을 떠나던 날에 바라본
고향의 노을빛이 어린 그 붉은 견장,
시로 읊으며 안아보던 조국의 모든것을
목숨으로 지킨 혈전의 길에서
그을린 그 군복자락,
나래쳐 내닫던 그 모습으로
무너진 적화점앞에 리수복영웅은 서있구나

산발을 흔들며 비껴가던
그의 마지막 불같은 웨침
그날의 돌격로우에서 들려온다
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단 하나인 가슴을 불속에 던져
소중히 안아올린 영광의 언덕우에

휘영청 둥근달 앞산에 띄워놓고
직동령 원호방아소리
전선에 띄우는 고향의 기별인가,
밤마다 쿵쿵...

어서어서 옥백미 찢어서
남정들 싸우는 전선에 보내자고
삼동서네 집에서 남먼저 쿵덕쿵
고향의 목소리 합쳐 전해가자고
이집 저집 쿵쿵, 쿵덕쿵...

꺼먼 포연은 머리우에 흘러도
황금벼단 안아 섬기던 안해들이
그날처럼 곁에 있는줄 알아다오,
녀인들의 간절한 그 마음 담아
방아소리 잘도나 울리네,

불먼지 떠도는 하늘에서
정다운 그 목소리 울려오면
불속에서도 직동령 철쭉꽃 반겨웃고
건듯 머리 드는 매봉산마루우에

뜨거운 충성의 숨결을 두고 간 영웅이여

아, 짧게 살아도 빛나게 살줄 안 그대
한생을 청춘에 당겨서 값있게 바치고
은혜로운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받아안았으니
그날부터 조국의 축복속에
영원한 삶의 절정에서 빛나고있구나

나래쳐 내닫던 멸적의 그 돌격자세
언제 한번 바꾼적 있으랴
승리의 노래높이 울리는 통일의 광장에
아버이수령님을 모실 그날을 불러오며
영웅의 뜻 오늘도 불언덕에 살아있어라

세월은 멀리 갔어도
그 나이 열아홉, 모습도 그 모습,
수난의 남녘땅을 눈앞에 둔 고지에서
오늘은 영원한 본보기자세가 되어
《영웅 리수복》이 오른 충성의 높이로
수많은 전사들을 이끌어주고있어라.

직동령 방아소리

별들이 눈처럼 반짝였네,

방아소리 잠간만 뜸해지면
어마나, 포소리도 동안이 떠져요,
구슬땀 흠쳐낸 그 얼굴에
웃음샘을 피우며 또다시 쿵덕쿵

적진을 답새기는 승리만세소리
속사리 벌판에 비껴올제면
화답하며 기뻐서 쿵쿵, 쿵덕쿵...
직동령의 잦은 방아소리, 포소리
잘도나 가락이 어울리였네,

싸우는 후방의 숨결과 훈향을 담아
화선천리 날라간 직동령 방아소리
아버이장군님 다녀가신 전선마을에
미제를 놀러디딜 힘을 안아낸
방아방아 승리방아소리
사라지지 않는 노래로 연선천리에 남아
오늘도 쿵덕쿵, 내 가슴에 높이 울리네,

한목숨 바쳐

달빛 타고 이슬내리는 밤이면
 전호가 쪽잠든 꿈결에도
 가슴속 다정히 안겨와라,
 내 첫걸음마 떤던
 살구꽃 피는 고향집 뜨락
 여름에도 이가 시리던 깨끗한 웅달샘.
 어디선가 한줄기 물소리 들려와도
 버들방천아래 미역감던 강이
 발밑을 감돌아 흐르는것 같아라
 한그루 푸른 다박술을 보아도
 내 고향 무성한 나무숲이
 전호가에 우거져 아지치는것 같아라
 내 철없던 시절
 무심하게만 보고 스친 모든것이
 내 몸의 한부분처럼 소중하여라
 비개인 뒤의 피어나는 송이구름마냥
 먼 추억속에 떠오르는 갖가지 화폭들
 문득문득 포화속에 비쳐들 때면
 그 살뜰함을 그 누가 그려낼수 있으랴.

나는 사랑한다,
 우리 고향에 오신 장군님 맞으며
 감격에 겨워 기쁨에 젖어
 처음 가슴 헤쳐 바라본 고향의 그 하늘,
 낮설은 티검볼 하나 스며들수 없는
 내 지켜선 조국의 하늘이여라.

눈앞이 흐려져 바라본 그날의 산과 들을
 내 잊을수 있으랴
 장군님 주신 땅을 안아보고 살펴보며
 흐느끼던 아버지의 눈물을 나는 거기서 보았다
 아지랑이 피는 발머리 진달래를
 안해가 담배쌈지에 수놓아주던 못잇을 고향

몸에 배고 젖어들어
 살결이 되고 피로 뛰는 땅
 내 숨결에서 한시도 떼어낼수 없노라,
 이 한목숨 초불처럼 꺼진다해도
 없어서는 아니될 영원한 생명인 조국

나는 사랑한다,
 복받은 땅우에
 소복소복 내리던 흰눈
 관개수따라 백학이 훨훨 날고
 밭목을 휘감으며 물결치던 벼이삭

아, 한목숨 바친다 해도
 열백번 꽃잎처럼 흩어져
 아름다운 향기로 소중히 보태지고싶다
 청신한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
 원썬들은 만져도 보게 할수 없는것이
 병사의 고향, 병사의 조국이여라.

《함정골》을 굽어보며

방금 격전을 치르고난 병사인듯
 나는 승리자의 기상을 안고 섰다
 1211고지의 산정아래
 안개도 내리기 저어하는 천길나락
 깊고 깊은 《함정골》을 굽어보며...

저 심연같은 골짜기에
 지금도 어지러이 덩구는 미제의 철갑모들
 엿가락처럼 짓이겨져 거덜이 난 포신들,
 불맞은 미제의 철과 납덩이들이
 산산 조각이 되어 녹쫓고있다.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던놈들의 《정예사단》들을
 비수처럼 쏘는 저 벼랑끝에
 떡잎처럼 쳐갈겼으니
 한눈에 그 꼴을 다 볼수 없구나,
 미제의 패전장을

지난날 대륙들을 짓밟으며
 야수처럼 날치던 기승은 어디로 갔느냐
 미제는 저렇게 조선의 손아귀에 비틀어져

뒤죽박죽 만신창이 되었어라

놈들을 발밑으로 뿌려던진 저기는
 인간과 야만이 영원히 합칠수 없는곳
 미제의 패망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진렬장
 지구우에 그려진 제국주의 멸망도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침략자미제야
 잊지말라, 네놈들의 패망의 교훈을
 그날에 나래치던 불사신의 기상을 안고
 네놈들의 등허리를 꺾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내 다시한번 경고하노니

지금도 분계선너머 동지를 틀고
 침략의 불장난을 일삼는 미제침략자들아,
 똑똑히 기억하라, 네놈들 함부로 덤벼든다면
 저 《함정골》의 길밖에 없다는것을,
 거기엔 공기도 물도 흙도 없다는것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자위의 혁명무력이
이 땅 그 어디나 엄엄히 머리 들었다.

내 오늘은 영웅의 산, 1211고지에서
네놈들의 잔해를 바라본다만

또다시 덤벼드는 그날에는
더 높은 《상심령》에 올라
가슴 흐뭇이 굽어보리라,
다시 울수 없는 지구의 밖으로
영영 굴러떨어진 미제의 완전멸망도를!

충성의 한모습으로

(351고지공격전투때 김인택, 김룡택영웅들이 적화점을 막은 자리에서)

림종근

영웅들이 흘린 피 스며배였느냐
그대들의 더운 가슴 닿았던 땅
충성의 마음인양 붉게 타는구나
가렬한 싸움의 그날을 말해주듯
그대들이 적화점을 막은 자리에엔 풀 한포기 없이
상기도 옛모습 그대로구나

영웅들의 살결인듯 부드러운 흙
만져보자 어디 한번 만져보자
아! 그대들 몸의 더운 온기런가
움켜쥔 한줌의 흙은 따스한데
그대들의 심장속에 끓던 붉은 피
이내 심장의 벽을 치며 흘러든다
왜 이리 가슴설레며 눈물만 솟느냐,

이 흙, 이 땅, 이 조국,
위대한 수령님 밝히신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의 뉘엿는 심장을 바친 영웅들아
그대들의 고결한 넋을 헤아리기조차
이내 심장이 너무도 어려서나
생각을 더듬어도 할말은 아니 떠오르고
왜 이리 자꾸 흐느끼게만 되느냐

아! 웃으며 영생의 언덕우에 올라선 그대들앞에
하고싶은 말 가슴에 뜨거워
조용히 두눈을 닦으며 머리를 드니
엄엄한 산발은 그대들의 불굴의 모습으로
만발한 진달래는 그대들의 웃음으로 안겨오고
그대들의 숨결인양 훈풍은 불어와
다시 목은 메고 뜨거운 이슬은 다시 맺히고...

아아! 떠나온 고향은 서로 달라도

어깨우에 얹혀있던 노예의 멍에
영원히 벗겨주고 새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을 위하여
그대들은 이렇게 충성의 길을 함께 걸었구나
이렇게 두 심장이 하나로 되어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놓았구나

쏟아지는 총포탄 막아서는 지뢰밭을 헤쳐
최고사령관동지 명령을 받들어가는 길우에서
두 청춘, 그대들의 두 모습이
충성의 한모습이 되어 솟아올랐거니
바람아, 너도 여기선 조심히 불어가라
눈비여, 너도 여기선 삼가 내리라

진정 그대들의 가슴속에 끓던 붉은 피
이내 심장의 벽을 치며 흘러든다
충성의 돌격로우에서 하나로 합쳐진
그대들 심장우에 내 심장을 합친다
우리 분대 일당백 전사들의 심장을 함께 합친다
영원한 충성의 한모습으로

아! 세월의 언덕과 언덕을 넘어
천만사람들을 충성의 한길우에 불러세우며
영웅들은 오늘도 서있구나
두 청춘이 영원히 하나의 모습이 되어
천만사람들의 심장을
충성의 한길우에 합쳐주며...